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언론정보학석사학위논문

신자유주의시대 청년세대
친밀성의 재구성, “썸”

2017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안 혜 상

신자유주의시대 청년세대 친밀성의 재구성, “쌈”

지도교수 홍 석 경

이 논문을 언론정보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 년 6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안 혜 상

안혜상의 언론정보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 년 6 월

위 원 장 이 재 현 (인)

부위원장 배 은 경 (인)

위 원 홍 석 경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로서 처음 시작하였다. ‘왜 우리는 “쌈”만 타는가?’의 문제이다. “쌈”이라는 관계형태의 양성화, 미디어의 노출, 주변에서의 “쌈”의 범람과 잦은 종료. 연구자는 20대 후반의 청년세대 중 한명으로서 왜 우리가 그러한 관계만을 반복하는 것인지를 탐구해보고자 했다. 이는 신자유주의라는 맥락 아래, 소위 “헬(Hell)조선”이라는 시대담론을 공유하는 우리들의 친밀성의 영역, 그 가장 아래의 단계에서 어떠한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자 한 시도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관계가 신자유주의시대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친밀성의 양상으로서 등장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전지구적으로는 신자유주의라는 맥락, 그리고 그보다 아래에서는 ‘한국’이라는 친밀성의 공간 안에서, 연구자는 “쌈”이라는 관계를 통해 청년세대들이 어떠한 관계맺음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 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실제로 이러한 관계를 실천하고 있는 청년들 11명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쌈”이라는 친밀성의 양상을 크게 세 가지의 연구문제로서 탐구하였다. 첫째는 “쌈”의 실천양상, 둘째는 관계인식, 그리고 마지막은 실천논리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세 가지의 연구문제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들을 종합해, “쌈”을 신자유주의시대 한국 사회라는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인지를 결론으로서 제시하였다.

“쌈”의 실천양상과 관련하여, “쌈”은 개인들에 의해 하나의 독립적인 관계 형태로 실천되고 있는 관계였다. 개인들은 “쌈”을 유지하면서도, ‘연애’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 소위 ‘밀당(밀고 당기기)’의 전략을 구사하며 관계를 “쌈”에 고정시키고 있었다. 먼저 ‘당기기’의 전략으로, 이들은 오프라인/온라인으로서 인상 관리를 통해 좋은 모습만을 보이며 관계를 유지하려 했는데, 이때 SNS는 자신의 자아 연출과 상대의 취향 확인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연락은 카카오톡을 통해 수시로 이루어졌고, 공백의 시간에는 SNS의 ‘좋아요’ 기능을 통해 지속적인 연락을 취했다. SNS는 이들에게 상대와의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개인의 노력과 감정의 부담을 줄여주는 가장 경제적인 관계맺음의 방식이었다.

이들의 데이트는 연인간의 데이트와 다름없었지만, 스킨십에 있어서는 의견이 갈렸다. 11명의 인터뷰이들 중 8명이 “썸”에 있어 성관계까지 가능하다고 밝혔고, 이들 중 6명은 실제로 이러한 경험이 있어 대체적으로 스킨십에 있어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상대와 “사귀자”라는 발화 행위를 통제하고, 호감 표현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상대와 ‘연인’으로의 관계 전환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 “썸”은 명시적으로 합의되기도 했는데, 몇몇 인터뷰이는 상대와 ‘이러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합의한 후 관계를 지속하기도 하였다. 곧 “썸”은 독립적인 관계에서 나아가, 합의되어 유지될 수 있는 관계의 형태로까지 실천되고 있었다.

관계의 인식과 관련해서는, 인터뷰이들에게 이러한 관계는 ‘연애의 부담’은 없으면서, ‘연애 감정’은 누릴 수 있는 준(準)연애 관계로 인식되고 있었다. 즉, 이들은 ‘연애’가 가져올 수 있는 부담들은 피하는 한편, 그러한 관계에서 오는 감정들은 획득할 수 있는 관계로서 “썸”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 ‘여자친구의 행복’을 하나의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연애를 할 경우 ‘여자친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곧 ‘연애’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들에게 있어 “썸”이라는 관계는, 그러한 부담 없이도 ‘연애’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이들에게 있어 실행 가능한 관계맺음의 방식이었다.

인터뷰이들은 “썸”이라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애의 부담은 소거된 상태로 재미, 즐거움과 같은 연애의 감정들을 누렸다. 이들에게 있어 썸남, 썸녀의 존재는 때로는 외로움,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었고 때로 의지가 되기도 하였다. 몇몇 인터뷰이는 이러한 관계에서 오는 감정이 가장 ‘순수한 감정’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즉, 이는 ‘연애’나 ‘결혼’과 같은 구속적인 관계에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것이 없는 ‘자유로운 관계’로부터 오는 즉흥적이고, 순수한 감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다양한 이성 탐색이 가능한 열린 관계로 이해되었는데, 실제로 많은 인터뷰이들이 “썸”을 타는 동시에 다른 이성과의 데이트를 즐겼고, 복수의 “썸”을 유지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썸”은 공식적인 연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또한 이들은 현재의 썸남, 썸녀를 미래의 보험적인 이성

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는데, 즉, 현재 사귀지는 않지만, ‘미래에 사귄 수도 있는’, 잠재적 연인으로서 상대를 남겨 놓은 것이다. 연구자는 이를 연애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려는 개인의 전략적인 선택이라 해석하였다.

한편, “썸”의 관계는 ‘연인’이라는 존재가 부재한 불완전한 관계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즉, ‘연애’라는 공식적인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상대가 언제든지 나를 떠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내재된 관계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썸”에서는 상대에게 온전한 의지를 하기란 불가능하고, 이는 공식적인 ‘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에게 공표할 수 없는 떳떳하지 못한 관계였다.

연구자는 그렇다면 이들이 이러한 불완전한 관계맺음을 실천하는 논리는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이들은 먼저 자신의 커리어에 있어서의 불안정성(pecarity)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커리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이들은 상대와 ‘연애’를 시작하더라도 관계가 어차피 깨질 것이라는 관계적 불안정성의 문제까지 갖고 있었다. 이들은 현재에 있어 ‘커리어’를 친밀성의 영역에 우선하는 양상을 보이며 끊임없이 자기계발하는 개인의 모습을 보였는데, 곧 이들에게 있어서 ‘연애’라는 친밀성의 양상은 하나의 ‘리스크’로서, 항상적으로 커리어의 이후에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였던 것이다. 커리어를 계발하는 데 있어 마주하는 현실적인 조건들은 이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는 기제로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한국에서 규정되고 있는 ‘연애’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에게 ‘연애’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의 ‘연애’의 모습이 소비와 밀접하게 연관된 ‘낭만적 사랑’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낭만적 사랑의 이미지와 관련해 여성에게 무엇인가를 ‘해줘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된 연애의 모습은 이들로 하여금 그러한 수행 능력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어질 때, ‘연애’라는 관계를 포기하게끔 하고 있었다.

개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개인의 모습으로 돌아서서, 감정의 득실을 고려해 상대와의 관계에 감정을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했다. 이들은 상대와 헤어질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감정을 쏟게 되는 ‘연인’이라는 관계를 피하려 했고, ‘연애’의 관계에서 쏟아야 하는 감정의 투자를 하지 않기 위해 “썸”의 관계에 머무르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썸”이라는

열린 관계 속에서 보다 다양한 이성을 만나면서 감정을 분산 투자하고, 다른 이들도 모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만 손해볼 수 없어’ 다양한 이성을 만나려 하고 있었다. 결국 이들은 경쟁이라는 시장 논리를 내재화해, 감정이라는 친밀성의 영역에서도 득실을 따지며 관계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지극히 경제적인 신자유주의적 개인의 모습으로 제시되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썸”이라는 친밀성의 양상이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적 개인성의 문제, ‘한국’이라는 친밀성의 공간,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세 가지의 축으로 구성된, 청년세대들이 가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한 친밀성의 양상이라고 제시하였다. 청년들은 ‘연애’라는 것이 하나의 리스크로 다가오는 한국의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 가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이를 재구성해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요어 : 썸, 연애, 친밀성, 신자유주의, 청년세대, 테크놀로지

학 번 : 2014-22332

목 차

제 1 장. 문제제기	1
제 2 장. 신자유주의시대의 개인성과 친밀성	6
제 1 절. 신자유주의시대의 개인성	6
1. 신자유주의시대 자기통치하는 개인	6
2.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생존주의 주체	11
1) 한국형 신자유주의와 결과로서의 양극화	12
2) “헬조선” 담론과 생존주의 청년들	14
제 2 절. 신자유주의시대 친밀성의 맥락	21
1. ‘연애하는 주체’의 성립	21
1) 근대 ‘자유로운 개인’의 사랑	21
2) 한국에서의 ‘자유로운 연애’	24
2. 친밀성의 변동	28
1) 한국사회 친밀성 양상의 변화	28
2) “유동적 사랑”으로 대표되는 현대의 관계맺음	35
3) 새로운 친밀성의 양상들	38
제 3 절. 신자유주의시대 개인의 친밀성의 양상으로서의 “썸”	42
제 3 장. 연구방법	45
제 1 절. 연구대상	46
제 2 절. 연구과정	52
제 4 장. “썸”의 실천양상	55
제 1 절. “썸”의 시작	55
1. “썸” 타는 개인들	55
2. SNS를 통한 “썸”	60

1) 페이스북, 메신저 앱을 통한 ‘간편한 접근’	60
2) 소개팅 앱을 통한 직접적인 ‘셀프 소개팅’	63
제 2 절. “썸”의 유지	65
1. ‘당기기(pull)’의 전략	65
1) 인상의 관리	65
(1) ‘좋은 모습’만 보이기	66
(2) SNS를 통한 자아 연출과 취향의 확인	67
2) 부담스럽지 않은 연락	70
(1) 연락은 ‘카카오톡’을 통해, 수시로	70
(2) SNS ‘좋아요’를 통한 지속적인 ‘나의 존재 알리기’	72
3) 연애했 때와 다른없는 데이트	77
4) 선택적 스킨십	77
2. ‘밀기(push)’의 전략	82
1) 금기어 “사귀자”	82
2) 뜨겁지 않아야 하는 호감 표현	84
3) “썸”의 명시적 합의	86
 제 5 장. “썸”의 관계인식	 91
제 1 절. ‘연애의 부담’은 없으면서 ‘연애 감정’은	
누릴 수 있는 준(準)연애관계	91
1. 연애의 부담	91
1) ‘연애하는 나’로서의 책임	91
(1) 상대방의 요구에 대한 책임	91
(2) 적절한 시간과 비용의 투자	93
(3) 일상의 공유	96
(4) 안 좋은 모습, 약점의 공개	98
(5) 연애-결혼으로 이어지는 과정	99
2) ‘연애하는 남성’의 ‘여자친구의 행복’에 대한 책임 ...	102
2. 연애의 감정	103
1) 호감, 재미, 즐거움, 나아가 “썸”만의 ‘순수한 감정’	104
2) 외로움, 상실감의 극복과 의지	105

제 2 절. 다양한 이성 탐색이 가능한 열린 관계	107
1. 다양한 이성과의 만남	107
1) 복수의 “썸”의 경험	107
2) 복수의 “썸”에 대한 인식	109
2. 썸남, 썸녀의 보험적 유지	110
제 3 절. ‘연인’이 결여된 불완전한 관계	111
1. 불안감의 산재	111
2. 온전한 의지의 불가능	112
3. 떼뗄하지 못한, ‘공표’의 불가능	114
제 4 절. 소결: “썸”의 관계형태 분석	115
 제 6 장. “썸”의 실천논리	118
제 1 절. 항상적 불안정성(pecarity)	118
1. 커리어의 불안정성	119
1) 취업 준비생들의 “연애를 할 시기가 맞나”	120
2) 직장인들의 “커리어 발전에 집중할 시기”	122
2. 관계적 불안정성	125
제 2 절. 한국에서 규정된 ‘연애’의 부담	130
1. ‘낭만적 사랑’으로서의 소비주의 연애	131
2. 남성들의 ‘관계 주도’의 부담감	133
제 3 절. ‘감정 투자자’로서의 개인	136
1. ‘연애’에서의 감정투자 회피	136
1) 기대에 따른 실망, 그리고 상처	136
2) 사회적 침투에 따른 정신적 피로감과 감정의 전이	138
3) 헤어질 경우의 감정소모	139
2. 다양한 이성에 대한 분산투자	141
1) 개별적 투자자산 “썸”, 연애, 그리고 결혼	141
2) ‘나만 손해 보지 않겠다’의 투자전략	144
 제 7 장. 결론 및 제언	146
제 1 절. 결론: 신자유주의시대 청년세대 친밀성의	

재구성으로서의 “쌈”	146
1. “쌈”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개인성	146
2. ‘한국’이라는 친밀성의 공간에서의 “쌈”	148
3. “쌈”과 얽힌 테크놀로지의 맥락	150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152
참고문헌	155
부록	163
Abstract	165

표 목차

〈표 1〉 인터뷰이 목록	51
〈표 2〉 인터뷰 질문지 가이드라인	54
〈표 3〉 인터뷰이들의 스킨십 유무와 허용 가능 정도	78
〈표 4〉 복수의 “쌈”을 경험한 인터뷰이들	108
〈표 5〉 연애와 “쌈”의 관계형태 비교	116

그림 목차

〈그림 1〉 혼인 건수 및 조혼인을 추이	29
〈그림 2〉 1인 가구 비율과 평균 가구원수	30
〈그림 3〉 세대구성별 구성비	31
〈그림 4〉 오치아이(Ochiai)가 제시한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출산율 감소	33
〈그림 5〉 오치아이(Ochiai)가 제시한 아시아에서의 출산율과 근대성	33
〈그림 6〉 위챗 ‘주변 사람’ 기능	62
〈그림 7〉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의 알림	73

제 1장. 문제제기

최근 한국의 청년들 사이에서 부상하는 연애 양식이 있다. 그것은 바로 “썸(Some)”이다. 이는 공식적으로 사귀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이성적인 호감이 오가는 상태를 말한다. 아직 사귀지는 않지만 사귀려고 관계를 가져나가는 단계를 흔히 “썸”이라 한다. 이 용어는 몇 년 전부터 유행하다가, 2014년 “썸”이라는 대중가요¹⁾의 소재로 쓰이면서 본격적으로 부상했다.²⁾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너”라는 가요 가사는 “썸”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단어의 어원에는 여러 가설이 있지만, 둘 사이에 ‘무언가(something)(이)’가 있다는 표현에서 유래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심성옥, 2015). ‘연애’라는 공식적인 교제의 전 단계에서, 호감이 있는 이성들끼리 서로의 감정을 알아보며 교제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흔히 “썸 탄다”고 말하는데, “썸”이라는 상태에 이것이 마치 줄타기를 하는 것 같다고 해서 “탄다”라는 동사를 붙여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썸”이 최근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실 이러한 관계가 최근에 새로이 생겨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먼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인이 되기 전 둘이서 ‘밀고 당겨보는’ 단계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존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³⁾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단계가 다소 부정적인 어감의 ‘간 보는 단계’가 아니라 “썸”이라는 단어로서, 중립적이거나 일견 새롭고, 나아가 무언가 설렘까지 공존하는 긍정적 어감의 용어로서 양성화(陽性化)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미디어를 통해 이러한 단어가 널리 알려지고⁴⁾,

1) 소유, 정기고. “썸(Feat. 릴보이 of 빅스)”. 썸. 로엔 엔터테인먼트, 2014.

2) 대학내일 20대연구소 (2014a). <2015, 20대 트렌드 리포트>. 서울: 홍익.

3)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지칭하는 용어로 “BTP(Boyfriend type person)”, “GTP(Girlfriend type person)”가 있는데, 이는 연인이 “공식적인 사이로 발전하기 전까지의 모든 중간단계에 적용되는 용어”다(Illouz, 2012/2013, 200쪽).

4) 해당 제목의 가요 “썸” 뿐만 아니라 인기리에 방영됐던 청년들의 연애상담

미디어 담론과 대중 담론을 통해 강화되어 현재에는 “썸”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생 3명 중 1명은 “썸”을 타고 있으며, 이들은 평균적으로 1.46명과 이러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⁵⁾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러한 “썸”이 제 목적과는 다르게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연애가 시작되기 전 서로를 탐색해보는 단계가 “썸”이라면, “썸”의 목적은 연애여야 한다. 하지만 “썸” 이후 실제로 상대방과 교제하였는가를 물어보는 설문조사에서 전체 65명 중 55명이 “썸 이후 사귀지 않았다”고 답했다.⁶⁾ 즉, 약 85%가 “썸”만 타고 관계를 종료한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썸”을 지속하기 싫어지는 순간에 대해 질문했을 때, 34.3%만이 “연애할 생각은 없고 “썸”만 즐기는 것 같을 때”라고 답했다.⁷⁾ 이는 다시 말해, 나머지 66프로는 연애할 생각이 없어도 굳이 “썸”을 중단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주변에서도 이러한 “썸”의 양상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썸”만 타다 말아버리는 사람, “썸”을 장기간 지속하는 사람, 여럿과 동시에 “썸” 타는 사람, 한 사람과 “썸”을 타다 더 팬찮은 사람이 나타나자 “썸”을 갈아타는 사람 등. 연구자가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은 이들이 꼭 상대방과의 ‘연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그저 상대방과의 미묘한 감정, 호감의 설왕설래를 즐기고 있었고, 계속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했다. 즉, 연애를 전제하지 않은, “썸”을 위한 “썸”을 지

프로그램 JTBC <마녀사냥> (2013.8.2.~2015.12.18.)에서도 “썸”은 대표적인 주제였고, 아예 “썸”을 주제로 SBS <썸남썸녀> (2015.04.28~07.28), JTBC <5일간의 썸머> (2015.5.21~2015.7.9), tvN <코미디빅리그> “썸 & 썸 (2014.1.5.~2015.6.21.)” 등의 프로그램이 생겨나기도 했다. 최근에는 싱글 남녀들을 한 집에 몰아넣고 한달간 이들의 “썸”의 양상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인 채널 A <하트시그널> (2017.6.2.~)방영이 시작되었다.

- 5) 전국 남녀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베이를 진행한 결과, 약 30%가 “현재 썸을 타고 있다”고 대답했다(대학내일 20대 연구소, 2014b).

URL: <https://20slab.naeilshot.co.kr/archives/523>

- 6) 김민지 (PD). (2015, 9, 11). <마녀사냥> . [TV 프로그램]. 서울: JTBC.

- 7) 각주 5의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들의 34.3%는 “연애할 생각은 없고 “썸”만 즐기는 것 같을 때” “썸”을 지속하기 싫어진다고 답했다(대학내일 20대 연구소, 2014b). URL: <https://20slab.naeilshot.co.kr/archives/523>

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연구자는 왜 많은 이들이 연애를 유예하면서 이러한 상태를 지속하는지가 궁금했다. 굳이 연애가 목적이 아니면서도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즉, 이들은 왜 “썸”만 타는가?

미디어에서는 “썸”의 양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일각에서는 연인에 대한 책무는 미뤄두고 연애의 유희만 누리려는 ‘무책임한 청년들’⁸⁾로 보기도 하고, 본인의 선택에 자신이 없어 계속 결정을 미루는 결정장애인 이른바 ‘햄릿 증후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하기도 한다. 즉, 이성 과 연인 단계로 발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썸”을 ‘자기방어적 심리가 반영된 연애’로 보기도 하는데, 연애로 발전했을 경우 헤어짐과 같은 상처에 대한 방어막을 확보하기 위해 “썸” 단계에만 머무른다는 것이다.⁹⁾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청년들의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즉, 청년들을 ‘책임감 없는 인간’으로 치부해 버리면서, 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관계맺음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이들에게 청년들은 그저 이성과의 관계맺음을 두려워하는 ‘자신감 없는 인간들’일 뿐이다. 청년들의 연애는 지극히 사적인 개인들끼리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는 개인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시각에서도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청년세대들의 문제는 비단 청년세대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사회·경제 구조, 가치관과 생활양식, 가족구성 등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수많은 문제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강명구, 2016).

그렇다면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관계맺음의 등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로 호감이 있고, 상대방도 나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굳이 사귀지는 않는 이러한 관계. 이는 어떠한 친밀성의 양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는 바우만이 현대인들의 관계맺음으로 제시한 “유동적

8) 최태형 (2014, 6). 새로운 시대의 연애. <에스콰이어> . URL: http://taih.synology.me/taihyoung/bbs/board.php?bo_table=interview&wr_id=241

9) 김현주 (2015, 5, 15). [김현주의 일상 토크] ‘썸’타는 건 ‘간’보는 거 아닌가요?. <세계일보> . URL: <http://www.segye.com/newsView/20150514000851>

사랑(Liquid love)”(Bauman, 2003/2013)¹⁰⁾의 한 양상인가?

본 연구에서는 이것이 신자유주의라는 맥락 속에서, 소위 “N포 세대”¹¹⁾라 불리는 한국의 청년세대들로부터 등장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끊임없이 자신을 관리하고 계발하는 자기계발 주체이자, 연애, 결혼, 출산을 포함해 친밀성의 영역에서 많은 것을 포기해 “N포 세대”라 불리는 한국의 청년들로부터 이러한 “썸”이라는 애매모호한 관계맺음이 도출되었다는 점에 집중한 것이다. 연구자는 신자유주의적 개인성의 측면과 한국사회의 친밀성의 양상을 두 축으로 삼아, 이러한 관계맺음의 양상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한다. 즉, 신자유주의시대의 청년들에게 있어 이러한 “썸”의 관계가 어떠한 친밀성의 양상인지를 탐구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관계맺음을 유지하는 청년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러한 질문에 답해보고자 한다. 이들이 실제로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통해서, 이러한 친밀성의 양상이 어떠한 관계의 형태로서 나타나고, 이는 어떠한 지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지를 탐구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썸”은 자칫 청년들의 가볍고도 미시적인 현상으로 읽힐 수 있다. 하지만 초혼 연령은 갈수록 높아지고, 혼인율과 더불어 출산율이 급락해 초저출산 국가¹²⁾로 분류되고 있는 한국의 청년세대들로부터 이러

10) 바우만(Bauman, 2003/2013)은 현대인들의 관계맺음의 양상을 “유동적 사랑(Liquid love)”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이들의 관계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유동적 사랑(Liquid love)”이라 표현한 것이다.

11) 현재 한국의 청년세대는 2007년 전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20대를 일컫는 “88만원 세대”로 시작해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 “5포세대”(취업, 주택 포기), “7포세대”(인간관계, 희망 포기), “9포세대”(외모, 건강 포기)까지 그 숫자가 늘어나다가 최근에는 “N포세대”로 불리고 있다. ‘무한대로 포기한다’고 해서 “N포”라 불리는 것이다.

출처: 조선닷컴 뉴스 Q (2015, 10, 18). 청춘, 대한민국을 ‘지옥’이라 부른다. <조선닷컴>. UR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26/2015082600998.html ; 최정아, (2015, 10, 25). 우리를 더 이상 ‘N포세대’라 부르지 말아주세요. <파이낸셜 뉴스>. URL: <http://www.fnnews.com/news/201510240943427657>)

12)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보다 출산율이 낮을 경우 이를 ‘저출산’이라 하는데, 합계출산율이 1.3명 아래일 경우 이를 ‘초저출산’이라 한다. 한국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초저출산’ 국가이고, 현재 세계 224개국 중 출산

한 연애 양식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이를 한국의 친밀성¹³⁾의 맥락에서 파악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공한다. 이미 많은 청년들이 연애는 유예하면서 “썸”을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관계는 점차 하나의 독자적인 관계 형태로서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썸”이라는 친밀성의 양상을 통해 현재 청년들의 친밀성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탐구하고, 이것이 신자유주의시대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어떠한 친밀성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을 221위를 기록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아직까지 초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출처: 이현미 (2017, 3, 20). [이슈플러스] 한국 출산율, 세계 꼴찌 수준... “삶의 질의 문제”. <세계일보>. URL: <http://www.segye.com/newsView/20170320003204> ; 정진영 (2017, 5, 31). 청년취업 블루오션 ‘강소기업’을 찾아라 - 출산율 꼴찌에 노동생산성은 바닥... 한국 노동시장 ‘二重苦’, <문화일보> .

URL: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53101031621320001>

13) “친밀성(intimacy)”은 이전에 ‘대인 관계(personal relationships)’로 불렸던 개념을 대체해가고 있다(Jamieson and Jameison, 1998). 이는 관계의 구조(structure)보다는 질(quality)에 집중하는 개념으로, 자미에슨과 자메이슨은 친밀성을 “가까운 관계의 특성(the quality of close connection between people)과 이러한 특성이 만들어지는 과정(process of building this quality)”(Jamieson and Jameison, 1998, 1쪽)으로 정의한다. 즉, 기존의 ‘가족’이나 ‘부부’와 같이 어떠한 구조로 묶이던 관계가 아니라 ‘친밀성’이라는 특성으로서 관계를 바라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친밀성은 가족이나 친족뿐 아니라 이러한 구조로부터 제외된 친구나 연인, 이성애 관계, 그리고 동성 커플도 포괄한다. 이처럼 친밀성의 개념은 기존의 인간관계를 확장시키면서, 기존의 틀로서는 설명할 수 없었던 다양한 인간관계들을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제 2장. 신자유주의시대의 개인성과 친밀성

본 장에서는 “썸”이라는 관계가 탄생하게 된 맥락을 짚어 보기 위해 이론적 논의로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개인성, 그리고 친밀성의 문제를 다룬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개인성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러한 관계를 실천하는 개인, 특히 현재 한국 사회의 청년들의 모습을 이해해보려는 것이고, 친밀성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관계가 탄생하게 된 친밀성의 맥락을 짚어 보기 위한 것이다. 즉, 연구자는 ‘어떠한 개인’이 ‘어떠한 친밀성’을 실천하고 있는가의 맥락화를 시도해보려 한다.

제 1절. 신자유주의시대의 개인성

1. 신자유주의시대 자기통치하는 개인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기원을 찾자면 이는 하이에크(Hayek)에 의해 주장된 일단의 시장지향적 이념이라 할 수 있다(윤상우, 2009). 하이에크, 미제스, 프리드먼 등의 경제학자들은 국가의 통제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억제하고 개인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억압한다고 주장하는데, 곧 효율적인 배분과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아닌 ‘시장 가격’으로서 생산과 소비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Mises, 1979; Hayek, 2001; Friedman and Friedman, 1980; 지주형, 2011에서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하비(Harvey, 2006)는 신자유주의를 “사적 소유권, 개인의 자유,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이라는 특징을 갖는 제도적 틀 안에서” 인간의 복지가 가장 잘 발전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이론(Harvey, 2006, 145쪽)이라 설명한다. 곧 신자유주의는 개인과 시장의 자유를 주창하면서, 국가의 개입이 아닌 시장 원리를 강조한 경제 이론으로 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이론은 1970년대 경제 불황을 겪으며 각광을 받으면서, 기존의 케인즈주의를 뒤엎고 학계와 정치계에서 채택되게 된다(김효진, 2011).

하지만 현재에 있어 신자유주의는 단순히 경제 이론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포괄적인 함의를 갖는다. 신자유주의는 이제 “경제 원리, 정책, 그리고 제도의 차원을 넘어서, 담론, 이데올로기, 통치 원리 그리고 주체성 형성의 차원으로 확장되었다”(조영한, 2012, 23쪽).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주조한 개인성의 측면이다. 하비(Harvey, 2006)는 이제 우리가 세계를 살아가고 이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방식과 통합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자유주의가 인간의 사유와 정치경제적 실천에 너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곧 신자유주의는 이제 우리가 삶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하나의 ‘틀’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개인들의 외부적인 행위보다는 그러한 행위를 실천하는 개인들 자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개인들로 하여금 그러한 ‘신자유주의적인 삶’을 살게끔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가 주조한 개인이란 어떠한 개인일까? 전술했듯이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 시장에서의 자유를 주장하며 부상했고, 이러한 맥락 아래 중요시되는 것은 무엇보다 개인의 ‘선택권’이라 할 수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와 비교해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소유권보다는 선택권을 강조하고, 이러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면에서 국가의 입헌적 역할을 옹호하는 것이다(지주형, 2011). 하지만 자유로운 선택의 이면은 이에 따른 책임의 문제이다. 곧 신자유주의는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개인에게 돌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은 무수한 선택지들 아래, 이에 따른 위험 부담을 스스로 책임지는 주체로 변형된다. 즉, ‘선택권을 지닌 자유로운 주체’로 호명됨으로써, 개인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 자신을 관리하는 ‘기업가적 주체’, ‘프로젝트형 인간’으로 탈바꿈되는 것이다(지주형, 2011).

결국 신자유주의는 외부적인 명령 없이도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삶을 관리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는 새로운 “통치 기술(art of government)” 또는 “통치성(governmentality)”(Foucault, 2008)의 맥락으로 이해된다. 푸코는 “통치성(governmentality)”의 개념을 제시하며 국가

와 개인 사이에서 개인이 스스로를 주체화하는 방식에 주목한 바 있다. 그는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 신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주체화의 양상을 계보학적으로 탐구하면서, 권력을 조직하는 정치적 합리성의 형태를 밝히는 주요한 개념이자 분석의 도구로서 통치성의 개념을 제시하였다(엄혜진, 2015). 푸코는 통치성을 “행위의 통솔(conducts the conduct of men)”(Foucault, 2008, 186쪽)로서 파악하는데, 이는 곧 개인들이 자신을 통솔하게 하는 방식들을 조성하기 위해 고안된, 개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무언가를 행하는 방식(way of doing things)” 또는 “기술(art)”로서 이해된다(Burchell, 1993, 267쪽). 즉 이는 국가가 어떠한 제도나 규제를 통해 개인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특정한 행동을 이끌어내며, 이러한 행동의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푸코에게 있어 통치성이란 “특수한 형태의 권력을 행사케 해주는 제도, 절차, 분석, 고찰, 계측, 전술의 총체”(Foucault, 2004/2011, 163쪽)로서, 이는 곧 개인에게 권력이 행사되는 과정이자 그 결과를 설명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푸코의 통치성이 신자유주의적 주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 유용한 점은 이것이 신자유주의 아래 개인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통치의 주체가 되는지를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푸코가 신자유주의의 핵심으로 제시하는 것은 이것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 사회 자체를 재편하였다는 점이다(엄혜진, 2015). 푸코는 신자유주의가 시장의 경제적 양식을 일반화해서, 시장 경제에 대한 분석, 또는 공급과 수요에 대한 분석이 비-경제(non-economic)의 영역에까지 적용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때 그가 예로 든 것은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인데, 푸코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쏟는 애정, 배려, 음식을 주는 방식 등은 신자유주의의 맥락에서 하나의 ‘투자’로 이해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투자는 아이에게는 성인기의 수입으로, 어머니에게는 이에 대한 만족으로서 ‘소득’을 가져온다는 것이다(Foucault, 2008, 243-244쪽). 곧 푸코에 따르면 어머니와 아이 사이의 형성적 또는 교육적인 관계 또한 투자, 자본비용,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이익과 같은 ‘경제의 논리’로서 분석될 수 있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맥

락이라 할 수 있다.

푸코는 이러한 시장 논리 아래에서의 개인을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œconomicus)”(Foucault, 2008)로 명명한 바 있다. 경제의 영역과 사회적 영역이 중첩되면서, 개인은 계산을 통한 합리적 선택을 내재화시켜 사회적인 영역에서까지 득실을 따져 경제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푸코가 제시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고전적인 ‘경제적 인간’과는 다소 다르다. 이는 시장의 논리가 변화한 것과 관련이 있는데, 푸코는 18세기 자유주의 통치성에서는 필요에 의한 ‘교환’이 시장을 규정하고 그 유의미함을 보장했으나, 신자유주의의 경우 ‘경쟁’이 시장의 특성과 논리를 설명한다 제시한다(Foucault, 2008, 118-119쪽). 즉, 과거의 경우 공정한 거래를 통한 등가 교환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경쟁을 통한 최대의 효용이 시장의 논리가 되는 것이다(조원광, 2009). 따라서 푸코가 말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교환과 소비자로서의 단순한 경제적 인간이라기보다, 최대의 효용을 위해 움직이는 “기업가적 개인”이자, “생산”하는 개인이라 할 수 있다(Foucault, 2008, 147쪽). 즉, 단순히 경제적 인간이라기보다는 ‘기업가적 개인’으로서의 호모 에코노미쿠스인 것이다. 이때 푸코가 개인을 “기업가적 개인”이라 지칭한 것은 곧 개인이 “자기 자신의 자본(his own capital)”이 됨과 동시에, “그 자신의 생산자(his own producer)”가 되고, 그의 “소득의 원천(source of his earnings)”이 되기 때문이다(Foucault, 2008, 226쪽). 곧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경쟁의 논리를 내재화한 개인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자본화해, 스스로 생산해내고, 수익을 벌어들인다는 점에서 ‘기업가적 개인’이 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점은 개인이 이러한 경제의 논리를 체화시켜 본인의 ‘자유 의지’로서 스스로를 통치한다는 점이다. 푸코가 제시하는 신자유주의의 통치성은 통치성의 내재화를 통해 개인 내부에서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Foucault, 1978/1994; 조은, 2010). 즉 개인은 외부로부터의 감시나 훈육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라는 시장논리를 통해, 스스로 최대 효용을 내기 위해 자기계발과 같은 “자기 테크놀로지(Technologies of the self)”(Foucault, 1988/2002)로서 스스로를 연마하게

되는 것이다. 푸코는 자기의 테크놀로지를 “개인이 자기 자신의 수단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아 자기 자신의 신체와 영혼, 사고, 행위, 존재방법을 일련의 작전을 통해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 설명한다(36쪽). 푸코는 이러한 자기 테크놀로지로서 개인은 행복과 같은 일정 상태에 도달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하는데, 곧 자기의 테크놀로지란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조정하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자기작용이라 할 수 있겠다. 개인은 이러한 ‘자기 테크놀로지’로서 자신을 끊임 없이 연마하고 수련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개인 스스로의 작용이라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주체는 얼핏 자율적인 개인의 모습으로 보여진다. 자기 테크놀로지로서 형성된 주체는 자기를 경영하는 기업가이자, 자신의 역능과 행위, 결과 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율적’ 개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강내희, 2014, 443쪽). 하지만 이는 결국 기존 국가의 통치의 역할이 개인에게 부여된 다른 형태의 통치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기존에 국가가 맡았던 통치의 역할이 통치의 경제적 합리성으로 인해, 개인 스스로의 통치 행위로 전환된 것이다(임동근, 2008). ‘기업가적 개인’으로서의 인간형은 사회의 효율성, 특히 통치비용의 관점에서 엄청난 효율성을 달성시키는데, 국가가 지시하지 않아도 이들은 자신의 최대 효용을 위해 혁신을 반복할뿐더러, 기존에 경제적 영역이 아니었던 영역에서까지 이러한 혁신을 단행하기 때문이다(조원광, 2009, 95쪽). 이러한 점에서 신자유주의는 개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기업가적 개인이 될 것을 유도하고, 기업가적 개인들의 스스로의 통치를 통해 효율을 이루려는 통치의 발전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푸코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로서의 개인이 ‘합리적 행위’를 하는 개인이자 ‘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개인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타월하게 통치 가능한 자”라고 제시한다(Foucault, 2008, 270쪽). 즉, 이들은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합리성에 의거해 이들을 예측하고, 특정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푸코는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환경의 변수들 내의 변화’, ‘환경에 인위적으로 도입된 체계적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반응하는 자라고 제시한다(Foucault, 2008, 270쪽). 곧 이들은 합리적 개인이자 ‘환경에 민감한 개인’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들이 처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통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푸코는 이러한 점에서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탁월하게 통치 가능한 자”, “관리가 가능한 자”, “통치의 상관물”로서 출현한다고 주장한다(Foucault, 2008, 270-271쪽).

결국 신자유주의적 개인의 모습은 통치의 기술을 내재화해 스스로를 통치의 대상으로 삼는 ‘자기통치의 개인’, 경제적 개인, 그리고 기업가적 개인인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이들은 시장의 논리로서 ‘경쟁’을 체화시키고, 최대의 효용을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며 혁신을 거듭하는 자기계발의 주체이다. 개인은 스스로 기업가가 되어, 자신이 정한 규율에 따라 스스로를 관리하며, 자기 자신을 ‘자기 통치’로서 적용시키는 개인인 것이다.

2.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생존주의 주체

앞장에서 우리는 전지구적으로 진행되었던 신자유주의의 흐름이 결국 통치의 맥락에서 자기통치의 주체를 탄생시켰음을 살펴보았다. 즉,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책임지며, 스스로를 관리하고 계발에의 노력을 멈추지 않는 ‘기업가적 개인’이자 ‘자기통치하는 개인’의 모습을 주조해낸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맥락 속에 놓여 있는 한국 청년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즉, ‘신자유주의적 주체’로서, 한국이라는 특수한 공간 아래 청년들은 어떠한 신자유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본 장에서 연구자는 “썸”이라는 친밀성의 양상을 탄생시킨 청년들의 신자유주의적 개인성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의 모습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 이러한 흐름 속에 놓여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청년들은 신자유주의의 양상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떠한 세대담론을 공유

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 속에서 어떠한 개인성을 담지하게 되었는가?

1) 한국형 신자유주의와 결과로서의 양극화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신자유주의적 변동이 시작되어, 1997년 IMF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을 거쳐 이것이 보편화된 것으로 보인다(조영한, 2012).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가 특수한 양상을 띠는 것은, 이것이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주도’로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윤상우, 2008; 조영한 2012; 지주형, 2013). 연구자들은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가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으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developmental neoliberalism)”로 맥락화한 바 있다(윤상우, 2009; Choi, 2007; Hill, Park and Saito, 2012; 조영한, 2012). 이들은 신자유주의화의 과정 속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주목하며, 신자유주의가 ‘발전주의 국가’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음을 지적한다(윤상우, 2009; 조영한, 2012). 즉,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는 외환위기와 IMF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전환이었고, 이것이 “자유시장”이 아닌 “경제성장”(윤상우, 2009, 55쪽)을 목표로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정책 자체가 수출증대, 경제성장, 그리고 캐치업과 같은 발전주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였고(윤상우, 2009), 한국의 경우 장기간의 발전국가로서 ‘발전 동원체제’의 연장선상에서 신자유주의가 채택되었다고 주장한다(조영한, 2012). 곧 애초에 개인과 시장에 대한 국가의 후퇴를 주장하며 제시되었던 신자유주의가, 한국의 경우 ‘발전주의’라는 맥락 아래 ‘국가 주도’의 독특한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이것이 하향식으로 진행되면서 독특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지주형(2013)은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를 탐구하며,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가 독특한 신자유주의적 구조를 형성했다고 분석한다. 그가 제시한 한국형 신자유주의의 특징들을 간략히 서술하자면, 금융적 축적의 확대, 개방과 대외의존, 재벌권력 및 경제관료 권력의 강화, 그리고 노동운동의 약화이다. 먼저 그는 한국의 위기관리 경험이 금융수단을

통한 축적 규모의 증가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는데, 주식과 파생금융상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더불어, ‘부자 되기’ 신드롬으로서 가계와 개인의 일상 자체도 금융화의 절차를 밟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IMF 극복을 위해 외국자본의 유치와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금융부문이 대외 의존성이 높은 양상을 띠게 되었다고 제시한다. 초국적 자본이 들어오면서 한국의 금융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고, 수출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면서 대외무역의 의존도 또한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국가 주도’의 신자유주의화는 이를 주도한 경제관료의 통치와 재벌 권력을 강화시켰는데, 이것이 결국 노동에 대한 탄압, 노동비용의 감축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지주형, 2013, 315-410쪽). 곧 한국의 경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서 신자유주의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귀결로서 기업과 노동자의 격차, 초국적 자본과 재벌, 경제 관료의 지배와 같은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양극화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연구자들은 한국형 신자유주의의 결과가 사회경제적 양극화, 불평등의 문제로 나타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김세균, 2007; 윤상우, 2009; 조영한, 2012; 지주형, 2013). 윤상우(2009)는 한국의 경우 정책의 방향이 자본의 경쟁력 강화, 성장우선주의, 수출주도형 축적에만 맞춰져 있어,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이러한 사회적 모순을 관리하는 역할이 방기되었다고 제시하고(60쪽), 김세균(2007)은 한국 사회에서의 신자유주의가 중간층의 몰락을 가속화시켰고, 불안정 노동이 전면화되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이것이 곧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의 심화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제시한다. 곧 한국의 경우 신자유주의 자체가 가지는 모순 및 부작용과 더불어, 한국만의 ‘발전주의’라는 독특한 맥락이 결합되어 이것이 더 심화되거나, 또는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 현실을 가장 실제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은 현재 한국 사회의 청년들이라 할 수 있다. 청년실업 문제와 더불어 고용 불안정, 양극화의 문제는 곧 취업, 결혼, 그리고 출산과 같은 개인적 삶을 꾸려가야 하는 청년들에게 있어 이러한 삶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현실의

맥락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현실에 대해 내린 진단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 이들은 “헬(Hell)조선”을 외치며, 새로운 계급론인 ‘금수저, 흙수저론’을 등장시켰다. 연구자는 다음 절에서 이러한 청년들의 세대담론을 탐구하면서, 이를 통해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이로부터 형성된 청년들의 개인성의 맥락을 알아보려 한다.

2) “헬조선” 담론과 생존주의 청년들

한국의 청년들은 현재 “헬(Hell)조선”이라는 “집단상상력”¹⁴⁾을 공유하고 있다.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은 조선’이라는 ‘구성된 실재’를 같은 세대의 청년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헬(Hell)조선”은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은 조선’이라는 뜻이다. 굳이 한국이 아니라 ‘조선’인 이유는 한국 사회를 유교적 계급 질서로 운명이 갈리던 ‘조선왕조’에 빚댄 것이기 때문이다.¹⁵⁾ 이는 계급을 강조하면서 개인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명제 자체를 부정한다. 즉, ‘노력해도 안 되는 사회’가 바로 “헬(Hell)조선”이 뜻하는 것이다.

14) “집단 상상력(collective imaginary)”이란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Anderson, 1991/2007) 개념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앤더슨은 “민족성(nationality), 민족됨(nation-ness), 그리고 민족주의(nationalism)는 특수한 종류의 문화적 조형물”(23쪽)이라 주장한다. 즉, 이러한 것들은 고대부터 존재해 온 실재가 아니라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상상된, 역사적 구성물이라는 것이다. 이때 상상되었다(imagined)는 것은 사람들이 멋대로 꾸며냈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기에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구성되고 의미가 부여된 역사적 공동체라는 의미를 갖는다(Anderson, 1991/2007에서 역자의 말). 이러한 개념에 기반한 “집단 상상력(collective imaginary)”은 특정 시기에 구성원들의 마음 속에 그려진 공동체의 이미지를 의미한다. 이는 실재에 기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것이 구성원들끼리는 공유되는, 내부적으로 미디어 담론이나 구성원들간의 담론을 통해 만들어지고 강화된 ‘구성된 실재’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헬(Hell)조선”을 “집단상상력”이라 한 이유는 실제 한국이 “헬(Hell)조선”이라는 사실보다도, 이러한 담론이 공유되고, 미디어 담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강화되면서 하나의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로서 “헬(Hell)조선”을 구성해냈다고 보기 때문이다.

15) 이설 (2016. 2. 4). 미국인들 “헬조선, 남 얘기가 아니야”. <동아일보> . URL: <http://news.donga.com/3/all/20160204/76304050/1>

청년들은 이러한 “헬(Hell)조선” 담론에 익숙하다. 국가는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지 않고, 시장 역시 더 이상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강정석, 2016). 개인이 ‘안전하다’고 느낄 만한 어떠한 울타리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게 된 것이다.¹⁶⁾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들은 한국 사회를 ‘노답 사회’라 말한다. 답이 없는 사회라는 것이다. ‘답이 없다’는 것은 ‘답을 모르겠다’와 질적으로 다르다. 답이 없다는 것은 결국 현실이 풀릴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답이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이러한 상황에 끝이 없다는 사실이다(이충한, 2016). 20대의 74%가 “미래가 불안하다”고 말하고¹⁷⁾, 20-30세대의 50.6%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다”¹⁸⁾고 말한다. 청년들은 단순히 현재가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헬(Hell)조선”과 “노답 사회”에 고개를 끄덕인다. 곧 “헬(Hell) 조선”이라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려버린 비관적인 ‘간파’의 언어인 셈이다(강정석, 2016, 147쪽).

16) 최근 2017 유엔 세계행복보고서(WHR)에 따르면, 한국은 행복도에 있어 155개 국가 중 55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3년 41위, 2015년 47위로 밀려난 데에 이어 더 떨어진 것이다. 국가 신뢰도에서도 한국은 0.24를 기록했는데, 이때 1은 완전한 신뢰, 0은 완전한 불신을 뜻한다. 특기할 것은 상위 5개국(순위대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핀란드)에 비해 한국이 경제성장률과 예상 건강수명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전체적인 실업률과 청년실업률도 한국이 1~2% 포인트 낮고, 심지어 핀란드의 청년 실업률은 19.9%로 한국(10.7%)의 두 배에 육박한다. 결국 경제 지표와는 별개로 한국의 경우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구조’에 대한 불신으로 낮은 행복지수를 기록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윤지로 (2017, 6, 6). [연중기획-이것만은 확 바꾸자!] 청년 희망도 노후 안정도 ‘신기루’... 삶의 무게에 짓눌린 한국인. <세계일보>. UR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179976&sid1=001&lfrom=kakao>

17) 전재호 (2015, 7, 7). [20대를 말하다]① 10명중 7명 “미래 불안하다”. <조선비즈>. URL: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07/2015070701478.html?related_all 이신영 (2015, 7, 8). [20대를 말하다]④ 모텔비, 식비에...” 연애, 경제적으로 부담” 65%. <조선비즈>. URL: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07/2015070702541.html

18) 강지남 (2015, 10, 24). [신동아 11월호/창간 84주년 특별기획]2030세대가 내다본 ‘2045년, 나의 5060 인생’. <동아닷컴>. URL: <http://news.donga.com/3/all/20151021/74303302/1>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회에서 개인의 최우선 과제는 일단 ‘살아남는 것’이 된다. 즉, “생존주의”(김홍중, 2015b)가 삶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는 것이다. 김홍중(2015b)은 이를 “후기 근대적 상황이 야기한 새로운 삶의 곤경에 직면한 청년들이, 자신들에게 제기되는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응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투 속에서 형성한 집합심리의 시스템”(181쪽)이라 설명한다. 그의 논의에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생존에 대한 당연한 ‘욕구’가 아니라 하나의 ‘주의’로서, 즉 ‘지향되는 가치’로서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김홍중(2015b)은 이러한 “생존주의”의 탄생은 사회에서 도덕 차원의 붕괴가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즉,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우리가 ‘지향해야’ 할 만큼, 사회가 개인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존주의”에 물든 청년들이 당연시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서바이벌’이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공정하게 링 위에 올라 싸워야 한다. 누구도 살벌한 경쟁으로부터 면제되어서는 안 되고, 경쟁을 거쳐 살아남는 것만이 공정한 것이 된다. 이는 곧 “살벌함의 공정함”(조한혜정 외, 2016, 20쪽)이다. 방송에서는 이러한 서바이벌 시스템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일례로 얼마 전 10대 소녀 101명을 놓고 이들 중 11명만을 뽑아 가수로 데뷔시키는 프로그램 Mnet <프로듀스 101> (2016.01.22~04.01)이 큰 인기를 끌었다.¹⁹⁾ 소녀들의 눈물은 불쌍하기는 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소녀들은 탈락되는 것이 마땅하고, 치열하고 처절하게 경쟁에서 이긴 소녀들만이 ‘승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시청자들도 가장 많이 노력을 기울인 소녀에게 표를 던진다. 이러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방송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노력’을 중시하고, 경쟁을 당연시하는 서바이벌 사회의 모습 그 자체를 보여준다.

모두가 경쟁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점

19) 최근에는 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듀스 101 시즌 2> (2017.4.7.~6.16)를 방영해 11명의 소년들을 선발했고, Mnet에서는 이와 유사한 여성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인 <아이돌학교>를 7월 13일부터 방영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40여명의 소녀들이 소위 ‘아이돌 학교’에 입학해 서로 경쟁하면서, 결국 최종 선발된 소녀들만이 아이돌로서 데뷔 기회를 갖는다.

점 없어진다. 약자에 대한 배려는 곧 나에 대한 불평등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약자들은 배려의 대상으로 이해되기보다는, 경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불공정하게 나의 기회를 빼앗는’ 사람들로 이해된다. 이는 근본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하는 제도와 공동의 노력에 대한 불신에 기반하는데, 사람들은 약자들에게 취해지는 보호 조치를 ‘부당한 혜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조한혜정 외, 2016). 그리고 이는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대한 ‘적대’와 ‘혐오’의 현상으로서 나타나게 된다(조한혜정 외, 2016, 20쪽).²⁰⁾

청년들의 마음이 이렇게 각박해진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 ‘노력’을 했었기 때문이다. 최은주(2016)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신분이 아니라 개인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했었다고 설명한다. 즉, ‘하면 된다’의 신화이다. 하지만 후기 근대 사회에서는 노력이 단지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아 실현’을 위한 것으로 격상되었다. 청년들은 ‘스펙 쌓기’, ‘휴식 없는 삶’을 당연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고 경쟁에 뛰어들었다. 지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부단히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것은 현재의 현실이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4월 11.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²¹⁾ 이는 IMF 이후 1999년 청년실업률 11.5%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²²⁾, 곧 현재의 노동 시장은 외환위기만큼이나 심각한 것이다.

취업은 어려운데, 청년들은 학교를 다니며 계속해서 빚을 졌다. 한국

20) 2016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여혐(여성 혐오)’과 ‘남혐(남성 혐오)’ 현상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인터넷에서 된장녀, 김치녀 등 여혐발언을 일삼는 남성들로부터 시작해 여성들도 이에 대한 반격으로 남성들을 ‘한남충(한국 남자에 ‘벌레’라는 의미를 덧붙인 것)’이라 부르면서 여혐과 남혐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2016년 5월 17일 한 여대생이 여혐 사상을 가진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일명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이 발생하면서 갈등은 더욱 더 심화되었다. 김수정 (2017, 5, 17). 강남역 여성살해사건은 ‘묻지마 범죄’가 아니다. <노컷뉴스> . URL: <http://www.nocutnews.co.kr/news/4785201>

21) 나현준 (2017, 6, 2). 청년 구직난 언제쯤 완화될까. <매경프리미엄> . URL: <http://premium.mk.co.kr/view.php?no=18950>

22)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2015. 3. 18). “청년 취업 어렵다”...청년실업률 11.1% 1999년 7월 이래 최고(종합). <한국경제> . URL: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3185578g>

장학재단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2006년 54만명에서 2015년 92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같은 기간 대출금액도 1조 6934억원에서 3조 1964억원으로 늘었다.²³⁾ 대출 이후에는 상환 문제가 있다. 통계상 2015년 학자금 대출 상황 연체인원은 9만명에 달한다. 이는 2006년에 비해 5배나 불어난 것이다. 곧 청년들은 빚을 저가면서 공부하고, 사회에 나가서 이를 갚아야 하지만 시장의 문제 때문에 상환할 능력이 되지 못해서 계속해서 빚을 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취업을 해도 문제다. 한국의 근로환경 수준은 OECD 국가들 중 하위권에 속한다. ‘많이 일하고, 적게 받고, 자주 옮기는 것’²⁴⁾이 현재 한국 노동환경의 특징이다. 2015년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총 2,285시간으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이 일했다. 이는 OECD 평균 1,770시간보다 515시간이 더 많은 것인데,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근로자가 두 달 이상 더 일한 셈이다.²⁵⁾ 한편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3.7%로 2014년 기준 OECD 국가들 중 2위,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은 4위를 차지했다. 같은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 비율은 20.1%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29개국 중 끝에서 두 번째다.²⁶⁾ 결국 한국의 노동환경은 ‘들어가기도 힘들고, 들어가서도 힘들고, 옮기고서도 힘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도 선배들을 보며 어느 정도 밝은 미래에 대해 꿈꿀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러한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취직을 해도, 여전히 미래는 불안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하는 것이 결국 ‘금수저·흙수저론’이다. ‘해봤자

23) 이윤희 (2017, 1, 29). [청년리포트①]고학력 사회의 그늘 학자금 대출...저축 꿈도 못꿔요. <뉴스시스>. URL: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128_0014670487&cID=10401&pID=10400

24) 김승호, 이진혁 (2016, 1, 21). 많이 일하고, 적게 받고, 자주 옮기고...근로환경 최악. <파이낸셜뉴스>. URL: <http://www.fnnews.com/news/201601211719223449>

25) 안용성 (2016, 2, 10). [단독] 작년 1인당 근로 2285시간... OECD 국가 중 최고. <세계일보>. URL: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1/29/20151129001916.html?OutUrl=naver>

26) 각주 36의 자료.

안 되더라'라며 절망하다 개인의 운명은 결국 부모의 자본에 따라 결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조한혜정 외(2016)는 이것이 “청년들이 자신들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현실의 불평등 구조를 간파한 담론”(18쪽)이라고 지적한다. 즉, 실제 청년들에게 다가온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다. 개인의 노력이 결국 아무런 효과도 가져오지 못함을 느낄 때 이러한 ‘금수저·흙수저론’이 부상하게 되는데, 즉, 이제 ‘개천에서는 용이 날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 개천을 뚫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인지, 최근 아이들의 장래 희망은 과거와 달라졌다. ‘내 꿈은 대통령’은 옛날 얘기가 되었다. 현재 청소년들의 장래희망 1위는 아이돌이다.²⁷⁾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 풍족하기 때문’이다. 공동 2위는 교사와 대학 교수인데, “오래 일할 수 있고, 연금이 나와 안정적이기 때문”이라고 아이들은 말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안정 추구 성향은 뚜렷해진다. 고등학생들은 가장 선망하는 직업으로 공무원(22.6%)을 꼽았다. 2위는 더욱 안정적인 ‘건물주와 임대업자 (16.1%)’다. 이러한 장래희망을 보면 한국의 청소년들은 극도의 안정 추구 성향과 더불어, 어떻게 보면 무기력감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홍중(2015a)은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청년들에게는 “꿈-자본(dream-capital)”²⁸⁾(50쪽)이 결핍되었다고 지적한다. 즉, 이들이 미래를 상상하고, 희망을 향해 실천해 나갈 심적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김홍중, 2016).

이러한 ‘노답 사회’에서 청년들이 유일하게 소망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탈조선’이다. 즉, 한국으로부터 탈출하자는 것이다. ‘한국이 싫어서 다른 나라로의 이민을 생각해 본 적 있냐’는 질문에 2만 1천명의 응답자들 중 88%가 “있다”라고 답했고, 93%는 한국이 부끄럽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27) JTBC TV (2016, 2, 29). [탐사플러스] 공무원·건물주가 ‘꿈’... 청소년들의 현주소. URL: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83269

28) 김홍중(2015a)이 제시하는 “꿈-자본(dream-capital)”이란 “꿈을 꿀 수 있는 힘, 꿈을 통해 자신이 미래에 향유하고자 하는 세계와 자아의 영상을 선회해 낼 수 있는 힘, (불)가능한 꿈에 대한 감각, 합리적 실천을 추동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포괄하는 욕망과 희망의 힘, 실천을 향해 존재를 떠미는 내적 힘”(50-51쪽)이다.

답했다.²⁹⁾ 결국 현재 한국 사회의 청년들에게 있어 ‘한국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헬(Hell)”에 사는 것과 비견될 만큼 힘든 일이고, 이러한 맥락에서 다른 나라로의 탈출은 상황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으로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곧 “헬(Hell)조선”, ‘금수저·흙수저론’으로 대표되는 세대 담론으로서 개인성의 모습을 살펴보자면, 한국의 청년들은 김홍중(2015b)이 제시한 “생존주의” 주체로 생각해볼 수 있겠다. 청년들은 이들이 구성해낸 “헬(Hell)조선”이라는 삶의 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바이벌’이라는 시스템을 체화시키고 또 이를 통해 다시금 살아남으려 노력, 나아가 ‘노오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오력’은 청년들의 자신의 역량 강화와 자기계발을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분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개념이다. 자기계발하는 개인의 모습과 관련해 서동진(2009)은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개인의 모습이 “자기계발의 주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제시한 바 있다. 즉, 개인은 자신의 ‘자유에의 의지’로서, 스스로 끊임없이 자신을 계발하고 발전시키는 주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서동진은 자기계발에의 의지는 “자발적 욕망을 실현하려는 나, 자기혁명을 꿈꾸는 나, 자신을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경영하는 나”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하는데(367쪽), 곧 자유에 대한 욕망은, ‘자유’를 통해 자신의 삶을 조명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주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 청년들의 모습은 이러한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모습과 다름없다. 이들은 단순한 ‘노력’이 아닌, 그러한 한계를 넘는 ‘노오력’을 하며, 살아남기 위해 경쟁의 체화, 스펙 관리 등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계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한국의 청년들은 자기계발 주체, 자기 통치의 주체로서, 끊임없는 역량 강화인 ‘노오력’을 시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주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역량 강화의 목적은 자아실현보다는 살아남는 것, 즉 서바이벌 한국 사회에서의 ‘생존’이 되는 것이다.³⁰⁾ 따라서 한국의 청년들은 전

29) JTBC TV (2015.9.17). [탐사플러스] “한국 떠나고 싶다”...젊은층 ‘헬조선’ 증후군. URL: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035667

30) 김홍중(2009)은 신자유주의적 주체의 모습을 ‘생존자’로서 제시한 바 있다.

지구적인 신자유주의화, 그리고 특히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라는 맥락 속에서, 신자유주의가 추동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실제로 체감하며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자기계발하는, 생존자 주체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제 2절. 신자유주의시대 친밀성의 맥락

본 절에서 연구자는 “쌈”이라는 친밀성의 양상을 탄생시킨 맥락을 짚어 보기 위해, 신자유주의시대 친밀성의 맥락에 대해 탐구한다. 이러한 “쌈”이 곧 남녀간의 사적인 관계맺음이라는 점에서, 연구자는 이러한 사적인 관계맺음이 성립되었던 시작점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변화한 현대의 친밀성의 양상을 살펴보려 한다. 본 절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들이 어떻게 사적인 주체로서 ‘연애’라는 사적인 관계맺음을 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한국의 맥락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났고, 또한 변화하고 있는 현재의 친밀성의 양상은 어떠한가의 맥락이다.

1. ‘연애하는 주체’의 성립

1) 근대 ‘자유로운 개인’의 사랑

서구에서 사적인 개인들간의 관계맺음으로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은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이었다. 낭만적 사랑은 흔히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로맨틱한 사랑’의 이미지인데, 이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매혹되고

그가 말하는 “신자유주의적 생존자”는 ‘생존주의’를 하나의 도덕률로 삼아,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 도구적 성찰성을 극대화하는 존재이다(173쪽). 곧 경제적으로는 취업 시장, 구조조정, 불황 등의 무한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고, 사회적으로는 성공 지상주의로 대표되는 과시적 인정 투쟁의 공간에서, 또한 생물학적 측면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생존’을 추구하는 존재인 것이다(182쪽).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 연인관계가 되며, 사랑은 특별한 사람에 대한 독특한 감정, 일생에 한 번뿐인 영원한 감정이라고 믿는” 사랑이다(신경아, 2014, 153쪽). 낭만적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육체적인 관계보다는 정신적 교류를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기든스(Giddens, 1993/2001)에 따르면 낭만적 사랑은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영혼의 만남”을 가정한다(85쪽). 즉 낭만적 사랑에 빠진 개인에게 상대방은 “그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결여를 메꾸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이다(Giddens, 1993/2001, 86쪽). 곧 낭만적 사랑은 정신적 교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숭고한 사랑(sublime love)’과도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낭만적 사랑은 ‘숭고한 사랑(sublime love)’과 중요하게 구별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는 낭만적 사랑이 개인의 삶에 “서사(narrative)”의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이다(Giddens, 1993/2001). 낭만적 사랑에 서사성이 내포된다는 것은 사회와는 분리된 유일한 개인만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든스는 낭만적 사랑이란 “사회적 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준거점도 가지지 않는”, “개인적 서사 안에 자아와 타자를 삽입하는 이야기”(Giddens, 1993/2001, 78쪽)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곧 사회로부터의 분리된 개인 주체의 특이성, 그리고 관계를 맺는 두 사람만의 유일성을 동시에 암시하는 것이다(이현재, 2013). 곧 낭만적 사랑이란 ‘사적인 개인’이 ‘유일한 그 사람’과 ‘정신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완성해가는 ‘자신만의 이야기’라 할 수 있겠다. 낭만적 서사는 사회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그 어떤 다른 사람의 서사로 대체될 수 없으며, 유일무이하다는 점에서 인격적 개체성을 존중받고자 하는 근대적 주체의 욕망이 된다(이현재, 2013).

따라서 낭만적 사랑이 보편적으로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은 18세기 근대적 개인이 등장하면서부터였다.³¹⁾ 살스비(Sarsby, 1983/1985)에 따르면

31) 근대적 개인의 탄생 과정을 세세하게 논하는 것은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홍찬숙(2015)의 설명을 빌려 간략하게나마 개인의 탄생 과정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홍찬숙(2015)에 따르면 “시장관계의 발전에 의해서 개인들은 공동체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도시의 삶을 형성했고, 종교개혁을 통해 신의 세계를 개인의 내면에서 찾기 시작했으며, 과학의 발전을 통해 신의 질서보다 자연의 질서가 우선적임을 확인했다. 문학·예술·

낭만적 사랑은 12세기부터 존재하기는 했지만 이때의 낭만적 사랑은 자유가 허용되었던 귀족들만이 가능한 것이었다. 중세의 낭만적 사랑은 “자유 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세련된 감정과 우월한 사회적 지위의 표현”이었던 것이다(Sarsby, 1983/1985, 60쪽). 이는 곧 낭만적 사랑이란 개인에게 있어 ‘자유’가 전제되어야 성립할 수 있는 것임을 암시하는데, 이때의 자유란 크게 사회적 영역에서의 자유, 그리고 개인적 영역에서 본인에 대한 주체로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벡(Beck and Beck, 1990/1999)은 자유로운 개인이란 자신의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노동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율성을 지닌 주체가 되는 것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로랭(Laurent, 1993/2001)은 개인이란 “타인과 자신을 본질적으로 구분 짓는 주관성 속에서 내면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인 동시에, 책임이 따르는 행위와 선택을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인간”(12-13쪽)이라 설명한다. 이들에 따르면 곧 자유로운 개인이란 주체성을 지니고, 외부적 조건에 있어 독립성을 주장하며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개인인 것이다. 조혜정(1991)은 경제적으로는 자유로운 노동자가 되고, 사회적으로는 신분사회의 전통적 권위로부터 해방되어 획득적 신분으로 평가받으며, 문화적으로는 공동체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개체화되면서 개인의 행복에 대한 주관주의적 문화를 가지는 것을 “자유로운 개인”이라 설명한다(26쪽).

근대적 개인의 자유가 크게 사회적 영역과 개인적 영역으로 구분되어 설명되는 이유는 근대에 이르러 사회적 영역이 이분화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전통사회와 달리 탈전통적 산업사회는 일터/가정, 노동관계/가족관계, 공/사, 이성/감성, 남성/여성의 분리를 전제로 조직되었다(이현재, 2013). 하버마스(Habermans, 1990/2001)는 근대사회가 화폐나 권력을 매체로 움직이는 경제 및 행정 체계와 인간의 행위규범이 정향되는 생활세계로 이분화된다고 보았고, 루만(Luhmann, 1982/2009)의 경우 비인격적 관계와 인격적 관계로 근대사회가 구분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비인격적

철학을 통해 ‘개인’을 인간의 보편적 형태로 고양시켰고, 법과 정치제도의 변화를 통해 ‘개인’이라는 존재형태를 정당화했다”(6쪽).

관계란 상대가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을 토대로 관계를 맺는 것이고, 인격적 관계란 내가 상대방의 인격에 대해 잘 아는 “친밀관계”(29쪽)들이다. 즉, 상대방을 하나의 기능체로서 파악하느냐 또는 인격체로서 보느냐의 기준으로 루만은 근대사회를 구분한 것이다. 학자들이 근대를 어떻게 이분화하든 공통되는 것은 근대사회는 크게 사회적 영역인 ‘밖’과 내적 영역의 ‘안’으로 구분된다는 것이고, 근대에 있어 자유로운 개인이 된다는 것은 곧 두 영역 모두에서의 자유를 개인이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근대적 개인성을 기반으로 개인의 사적인 감정에 대한 자유를 주장하는 낭만적 사랑이 부상하게 된 것이다. 낭만적 사랑은 기존에 사회적 계약을 의미했던 결혼의 양상을 변화시켰다. 이전까지 결혼과 사랑은 별개의 것이었고, 결혼은 가문 간의 경제적 계약이었다. 하지만 낭만적 사랑이 등장하면서 가문이나 재력 같은 외부적 조건이 아닌 개인들간의 친밀감에 기반한 혼인을 추구하게 되었다. 즉, 결혼이 사회적 재생산을 위한 장치였던 것에 비해, ‘낭만적 사랑’이 결혼과 결합하면서 결혼이 낭만적 사랑을 실천하는 공간이자 과정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김정영, 이성민, 이소은, 2014). 기든스(Giddens, 1993/2001)에 따르면 낭만적 사랑에 기반한 결혼은 “공유된 역사”를 창조해냄으로써 결혼관계를 가족 조직의 다른 측면들로부터 분리해 내고, 이러한 관계에 특수한 우월성을 부여해준다(85쪽). 즉, 낭만적 사랑이 결합된 결혼이란 단순히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근대적 개인성을 담지한 특별한 두 사람만의 영원한 서사(narrative)가 되는 것이다.

2) 한국에서의 ‘자유로운 연애’

서구에서 근대적 사랑의 양식으로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이 등장했다면, 한국에서는 근대적 사랑의 양상이 어떻게 등장하였는가? 먼저 연애의 시작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연애(戀愛)’의 개념은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1910년대에 일본 소설을 통해 들어온 것이라 할 수 있

다. 과거 일본에서는 서양의 ‘Love’를 번역할 단어가 필요했는데, 당시 일본에서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육체적 결합을 연상시키는 단어였다. 서양의 기사도와 같이 고귀한 사랑의 개념에 일본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이기 어려웠고, 따라서 사랑과 그리움을 뜻하는 ‘연애(戀愛)’라는 단어로 이를 번역하였다(김지영, 2008). 이어 1910년대 초반 〈쌍옥루〉(1912~1913), 〈장한몽〉(1913)과 같은 일본의 번안, 번역 소설들이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여기에 담겨 있는 ‘연애’의 개념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김지영, 2012). 결국 한국에서의 연애는 서구의 ‘사랑(Love)’ 개념이 일본의 ‘연애(戀愛)’ 개념을 거쳐, 실제의 모습보다 ‘연애’라는 하나의 이미지로서 전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엄격한 유교 이념 아래에 있었던 조선 사회에서 이러한 ‘연애(戀愛)’라는 개념은 남녀간의 사랑에 사적인 감정으로서의 지위를 부과해 주는 역할을 했다. 당시 조선에서 남녀의 사랑은 공식적으로 정당화되지 못했었고, 성과 사랑 또한 공적 담론에서 함부로 언급되기 어려운 주제였다. 남녀의 사랑 문제는 결혼 개혁과 같은 제도적 장치의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때 개인들의 사랑은 계몽이라는 모토 아래서 독립적인 가치로 주목받지 못했고, 남녀 간의 사랑은 혼인과의 연속성 속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었다(김지영, 2008). 하지만 새로이 등장한 ‘연애’라는 단어는 남녀간의 사랑을 독립적으로 표현하는 어휘였다. 이는 스스로 “가족, 국가의 기획을 떠나 자기목적적인 존재임을 선언”(권보드래, 2008, 82쪽)하는 용어였고, “사랑을 공공의 것으로 담론화하는 전략적 장치”(김지영, 2012, 129쪽)였다. 즉, 사적인 관계맺음에 대한 정당성을 사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도 부여해주는 장치였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시에 연애란 사회개혁적인 측면을 내포하는 것이기도 했다. 류종렬 외(2006)는 당시 자유연애에 대해 논설한 이광수의 〈혼인에 대한 관견〉(1962)를 분석하면서 구시대의 혼인 풍습을 타파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서 ‘연애’가 제시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조혼, 부모의 강압에 의한 결혼으로 점철된 사회에서, 자율적 인간으로서의 개인적 자각에 기반한 ‘연애’는 전근대적 사회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했다는 것이다.

1910년대 말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 연애는 “사랑에 대한 낭만적 동경”, “신문물로서의 ‘연애’에 대한 도취”, 그리고 “근대적 세계에 대한 변혁기 조선의 강력한 열망”으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게 된다(류종렬 외, 2006, 140쪽). 즉, 소설 속 ‘연애’의 이미지가 보여주는 근대적 서구 문명에 대한 동경과 더불어 자유롭지 못했던 친밀성의 영역에서의 해방을 바라보며, 청년들은 ‘연애’에 열광했던 것이다.

당시 조선 사회가 ‘연애전염병’에 걸렸다는 논평이 나올 정도로 많은 젊은이들이 연애의 사조에 동참하였고³²⁾, 1910년대 중반 청년들은 ‘연애할 자유’를 달라며 ‘자유연애’를 주장하게 된다(김지영, 2008). 하지만 당시 조선의 현실은 달랐다. 자유연애를 주장하는 청년들이 맞닥뜨리게 된 건 조혼과 강요에 의한 혼인과 같은 인습이었다. 김지영(2012)은 서구의 연애의 이미지를 통해 개발된 연애에 대한 기대는 조선 청년들의 실질적인 경험과 균형을 맞추지 못했고, 결국 청년들은 더 강렬한 열정을 통해 자아의 순수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시도하였다고 설명한다. 수많은 소설의 주인공들이 사랑 때문에 죽어갔고³³⁾, 1910년대 말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는 자살, 정사(情死), 그리고 살인물이 이례적인 수치를 기록한 시기이기도 했다(김지영, 2012). ‘연애’라는 개념은 아직 개인으로의 주체성이 실현될 수 없는 조선의 현실과 맞닥뜨리면서 많은 이들을 절망 속으로 빠뜨리게 된 것이다.

청년들의 ‘자유연애’는 1920년대가 흘러가면서 부상하게 되는데, 이때의 ‘자유’는 점점 ‘연애’를 수식하는 것으로 의미가 변화하면서 이제 ‘자유로운 연애’가 탄생하게 된다. 이전의 자유연애는 ‘자유로운 연애’가 아니라 ‘연애의 자유’를 의미했던 것이었다. 즉, ‘연애할 자유’, 부모가 강제

32) 바-보, 「戀愛는 神聖한가」, 『靑年』, 1921. 5, 23쪽; 류종렬 외, 2006에서 재인용.

33) 소설의 주인공들은 보답 받지 못하는 감정 때문에(이광수(1916), 〈윤광호〉), 애인의 배신 때문에(방정환(1920), 〈그날 밤〉), 잘못된 선택을 속죄하기 위해(나도향(1922), 〈환희〉), 애인과 소식이 끊어져서(윤귀영(1924), 〈흰달빛〉), 애인이 몹쓸 병을 가진 기생이라서 육체적 관계를 나눌 수 없어서(박종화(1923), 〈죽음보다 압호다〉) 죽음을 택했다(김지영, 2012, 133-134쪽).

하는 결혼으로부터의 해방으로서의 자유연애였던 것이다(김지영, 2008). 하지만 1920년대가 지나면서 자유연애의 ‘자유’는 연애를 수식하는 것으로 의미가 바뀌기 시작한다. 특히 사회주의 사상이 유행한 1920년대에 베벨, 제트킨의 이름을 빌린 여성론과 연애론이 소개되고 콜론타이의 〈붉은 연애(赤戀), 1923〉가 큰 인기를 끌면서³⁴⁾ 자유분방한 연애의 모습이 번져 나가게 되었다. 이때 근대적 교육을 받고 의식이 깨어 있는 ‘신여성’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은 애정이 없는 결혼, 대가족 제도를 비판하면서 자유로운 사랑을 주장하였다. 신여성들의 강력한 주장을 필두로 자유연애 사상이 널리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1930년대 청년들의 ‘자유로운 연애’는 비로소 꽃을 피우게 된다. 자유로운 연애에 이어 심지어는 불건전한 연애까지 출현하게 되면서³⁵⁾, 사랑과 연애와 관련하여 근대에 대한 자기 성찰적 인식은 1930년대 후반에 들어와 비로소 나타나게 되었다(김경일, 2000).

곧 근대적 자유로운 개인의 출현은 개인들을 ‘연애하는 주체’로서 호명했다고 할 수 있다. ‘자유로운 개인’들이 사적인 관계맺음을 맺게 되면서, 이것이 서구의 경우에는 “낭만적 사랑”으로, 한국의 경우 ‘자유로운 연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연애’는 연애

34) 콜론타이는 〈붉은 연애(赤戀), 1923〉에서 ‘연애는 사적인 일(私事)’이라는 점과 ‘자유로운 육체적 결합’을 강조하였다. 김미지 (2004, 9, 17). “혁명의 투혼으로 ‘연애’를 변혁하라”. 〈미디어일다〉. UR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4&oid=007&aid=0000000527>

35) 당시 여성지 〈신가정〉에는 여성들에게 건전한 사랑을 당부하는 〈연애십계〉가 실리기도 했다(1935년 12월호 104쪽). 연애십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이성과의 사이에 사랑이 싹틀때는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부모에게 통사정을 할 일. 2.알게 된 최초의 이성을 연애의 대상으로 생각하여서는 안될 일. 3.감정에 흐르지 말고 이성애 눈떠야 할 일. 4.상대자의 성격을 경솔히 판단하지 말 일. 5.연애도중에 상대자에게서 절망을 느낄 때는 칼같은 마음을 먹고 단념할 일. 6.연애는 동정에서부터가 아니고 존경에서부터임을 인식할 일. 7.연애의 수난은 상호의 책임인 것을 깨다를 일. 8.어데까지든 신중 - 유희적인 연애는 절대로 피할 일. 9.결혼기피와 처녀시대의 꿈속에 취하려 하지 말고 어데까지나 엄격한 연애를 생각할 일. 10.연애는 인생최대의 사업도 아닌 동시에 무상의 향락도 아님을 깨다를 일.” 출처: 김영도 (PD). (2005, 4, 16). 〈스펀지〉. [TV 프로그램]. 서울: KBS.

라는 개념이 소설을 통해 먼저 들어오고, 이후 이러한 개념에 걸맞는 근대성이 확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소설 속의 ‘연애’가 조선의 청년들로 하여금 사적인 관계맺음에 대한 주장을 하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실제로도 ‘자유로운 연애’가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곧 한국에서의 ‘연애’는 실제적인 관계맺음의 양상으로 성립했다기보다는, 하나의 ‘이미지’로서 받아들여졌고, 이를 통해 이후 ‘자유로운 연애’로서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친밀성의 변동

연구자는 앞서 ‘연애’라는 관계의 성립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현대의 관계맺음의 양상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즉, 현대의 맥락에서 친밀성은 어떠한 변동을 겪고 있는가? 본 장에서 연구자는 한국에서의 친밀성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 학자들에 의해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현대의 관계맺음의 양상은 무엇이며, 실제 가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친밀성의 양상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한다.

1) 한국사회 친밀성 양상의 변화

한국 사회에서 친밀성의 변동을 가장 가시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것은 결혼과 출산, 그리고 가족 형태의 변화에서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한국의 출산율은 지난해 약 1.16명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치로, 전세계 224개국 중에서는 221위이다.³⁶⁾ 한국은 2001년부터 저출산도 아닌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 OECD 34개국 중 ‘초저출산’을 경험한 국가는 11개국이지만 이중 한국만 16년째 초저출산을 못 벗어나고 있다.³⁷⁾

36) 정진영 (2017, 5, 31). 청년취업 블루오션 ‘강소기업’을 찾아라 - 출산율 꼴찌에 노동생산성은 바닥... 한국 노동시장 ‘二重苦’, 〈문화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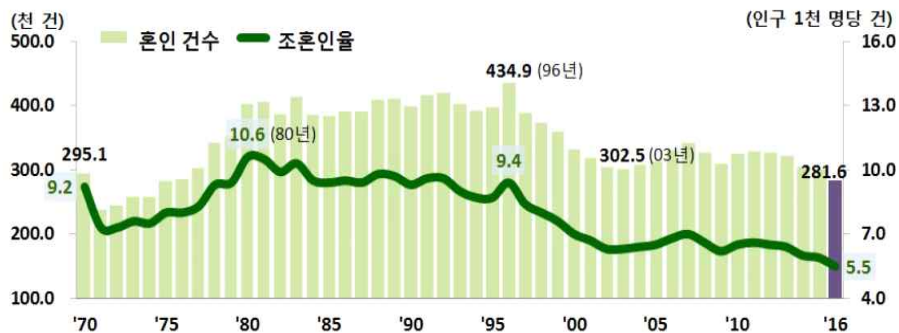
URL: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53101031621320001>

37) 이현미 (2017, 3, 20). [이슈플러스] 한국 출산율, 세계 꼴찌 수준... “삶의 질

초저출산과 더불어 혼인율도 급락하고 있다. 2016년 한국의 혼인율은 1970년 이후 역대 최저로 나타났는데, 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는 단 5.5건에 불과했다.³⁸⁾(〈그림 1〉 참조).

〈그림 1〉 혼인 건수 및 조혼인율 추이

*출처: 통계청 (2016)



20대 이상 미혼남녀들의 약 60%가 ‘더 이상 결혼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인식함에 따라³⁹⁾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혼인에 대한 청년들의 이러한 인식은 보편혼(universal marriage) 관념의 붕괴를 보여주는데, 즉 혼인과 출산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행해지던 과거와는 달리, 대다수의 청년들에게 있어 이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된 것이다. 이제 결혼을 못하는 ‘미혼족’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족’, 그리고 결혼을 미루는 ‘만혼족’ 또한 늘고 있다.⁴⁰⁾

의 문제”. 〈세계일보〉. URL: <http://www.segye.com/newsView/20170320003204>,

38) 하남현 (2017, 3, 23). 1000명 당 5.5건, 작년 혼인율 사상 최저. 〈중앙일보〉. URL: <http://news.joins.com/article/21396641>

39) 20대 이상 미혼남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 중 27.8%만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했고, 62.9%는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답했다.

출처: 비즈앤라이프팀 (2015, 7, 7). 미혼남녀 10명 중 6명 결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경향신문〉. URL: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7071752111&code=920100&med=khan

이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변화하였다. 결혼을 미루며 혼자 독립해 사는 젊은이들과 더불어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1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1인 가구의 비율은 2015년 27.2%로, 이는 35년 전의 4.8%와 비교해 가파르게 증가한 수치다. 전통적 가족 형태인 조부모, 부부, 미혼자녀가 함께 사는 3세대 가구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고, 가장 보편적인 가족 형태인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 비율도 점진적으로 줄고 있다(<그림 3> 참조). 결국 보편혼 관념의 붕괴와 만혼족의 증가, 혼인율과 출산율의 하락, 그리고 이에 따른 가족의 간소화가 한국에서의 가족에 관한 친밀성의 구조적인 변화 양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1인 가구 비율과 평균 가구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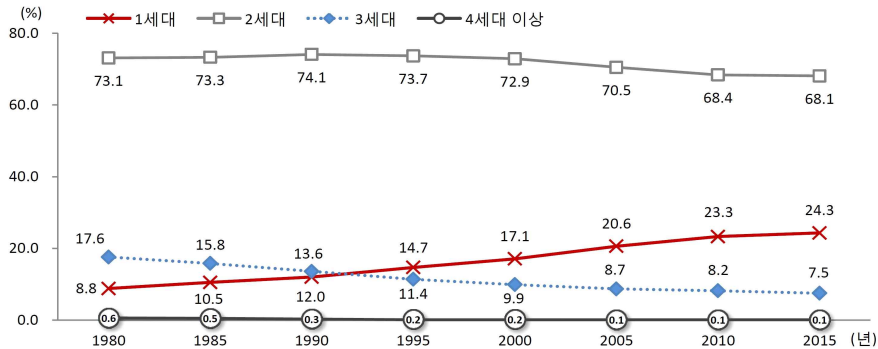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2016)



- 40)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가 32.8세, 여성이 30.1세로 추계되었다. 만혼의 영향으로 초혼연령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출처: 통계청 (2016). 2016 한국의 사회지표, URL: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5/index.board?bmode=read&bSeq=&aSeq=35962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그림 3〉 세대구성별 구성비

*출처: 통계청 (2016)



연구자들은 보다 이전부터 이러한 친밀성의 변화에 주목한 바 있다. 출산과 혼인율의 저하는 사실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친밀성의 변화 양상을 한국적인 맥락에서 설명해왔는데, 이들은 그 원인을 개인보다도 사회에서 찾는다. 일반적으로 저출산이나 비혼, 1인가구의 증가 등은 개인주의 의식의 발현으로 이해되지만, 연구자들은 한국의 경우 친밀성의 변동이 개인주의에 의거했다기보다는 여타의 제반 여건에 따른 것이었다고 분석한다(Chang and Song, 2010; 배은경, 2010; 심영희, 2011). 즉, 개인의 의식보다도,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이들의 친밀성의 영역을 조절했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한국에서의 근대화의 문제이다. 이들은 한국의 경우 근대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압축적”(장경섭, 2009)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친밀성의 영역에서 가시적인 변동을 야기하였다고 지적한다.

장경섭(2009)은 “압축적 근대성”의 개념을 제시하며, 한국의 경우 압축적 근대화를 통해 “압축적 근대성”을 이룩하였다고 설명한다. 압축적 근대성이란 “시간과 공간 차원에서 문명적 변화가 극히 응축적인 면들을 가지면서도 시·공간적으로 이질적인 요소들이 공존하며 매우 복합적인 성격의 문명이 구성·재구성되는 상태”(15쪽)를 말한다. 장경섭은 1차, 2

차 근대화가 일정한 단절기를 두고 진행되었던 서구와 달리, 한국의 경우 짧은 시간 안에 복합적인 요소들이 맞물려 근대화가 압축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제시한다. 그는 한국의 경우 서구에 비해 고속발전과 변화를 일으키면서 외세에 대한 제도적 대외모방성과 경제적 대외의존성, 봉건적 사회체제와 현대·탈현대적 가치 문화, 범세계적 문물과 토착적 문물이 공존하는 역동적이고 복잡한 근대성을 형성했다고 본다(장경섭, 2009).

이러한 “압축적 근대성”의 개념은 설득력을 얻으며 동아시아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용되기도 하였다. 오치아이(Ochiai, 2014)는 동아시아의 인구학적 전환을 장경섭의 “압축적 근대성”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서구에서의 인구학적 전환(출산율 감소)을 백의 개념을 빌려 제 1차 근대와 2차 근대⁴¹⁾로 구분해 설명하였는데, 서구와 북미에서 대체로 1880년-1930년대에 제 1차 인구학적 전환이 나타난 것을 제 1근대성의 시기로, 1960년대 말부터 나타나는 2차 인구학적 전환을 제 2근대성의 시기로 본다(<그림 4> 참조). 즉, 출산율의 감소를 근대성의 축으로 놓고 제 1근대와 제 2근대를 구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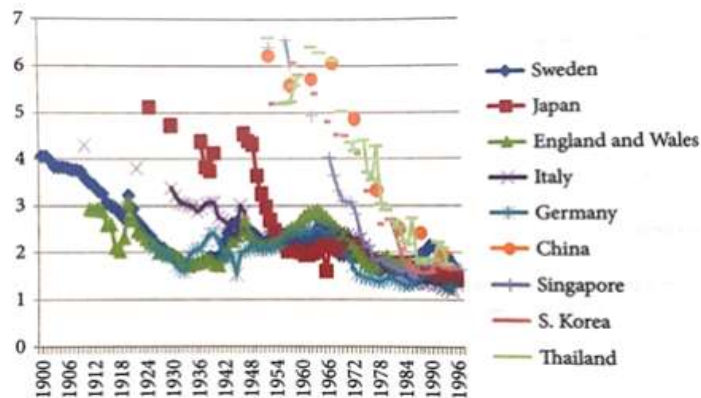
그가 “압축적 근대성” 개념을 적용한 것은 동아시아의 인구학적 전환을 설명하면서다.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1960-80년대에 1차 출산율 감소가 관찰되며, 일본과 싱가포르는 1970년대 중반부터, 한국과 태국에서는 1980년대, 중국에서는 1990년대에 2차 출산율 감소가 관찰된다. 일본 외의 아시아 국가들에서 두 차례의 인구학적 전환이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오치아이는 이를 “압축적 근

41) 백(Beck, 1986/1997)은 근대를 제 1차 근대, 그리고 2차 근대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에게 있어 1차 근대란 산업사회로의 이행을 말하고, 2차 근대란 1차 근대로 이룩된 근대성이 다시금 재배열되는 과정을 말한다. 백에게 있어 2차 근대성이란 “1차 근대성의 제도적 배열로부터 글로벌 위험, 개인화, 코스모폴리탄화와 같은 추동력에 의해 2차 근대성의 배열로 변화하는 복잡한 역사적, 구조적 과정”(심형희, 2013)인데, 그는 근대성이 산출한 부작용, 즉 ‘위험’과 같은 부작용을 매개로 해서 “근대성이 한층 급진화하는 과정”(홍찬숙, 2015, 252쪽)을 제 2차 근대성으로 파악한다. 백은 2차 근대를 통해 개인이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떨어져 자신의 삶을 스스로 구성해나가야 하는 2차 ‘개인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설명한다.

대성”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즉, 제 1근대와 2근대가 아시아에서는 연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그림 5〉 참조: 초록색으로 표시된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출산율의 감소가 연속적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 짧은 하지만 단절의 기간이 존재했기 때문에 오치아이는 이를 “절반의 압축적 근대성”이라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오치아이는 현재 아시아도 2차 인구학적 전환과 함께 제 2근대성의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본다(Ochiai,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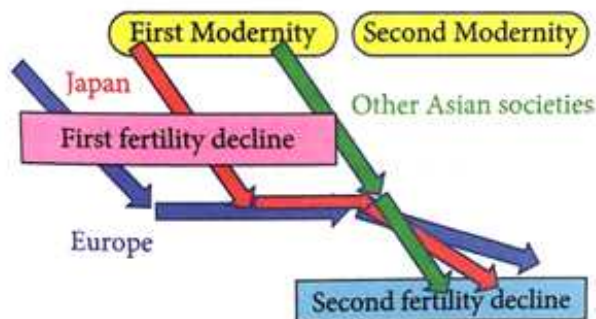
〈그림 4〉 오치아이(Ochiai)가 제시한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출산율 감소

* 출처: Ochiai & Hosoya (2014). *Transformation of the intimate and the public in Asian modernity*, 12쪽.



〈그림 5〉 오치아이(Ochiai)가 제시한 아시아에서의 출산율과 근대성

* 출처: Ochiai & Hosoya (2014). *Transformation of the intimate and the public in Asian modernity*, 13쪽



장경섭과 송민영(Chang and Song, 2010)은 압축적 근대화에 따라 한국에서의 친밀성의 양상이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제시한다. 이때 ‘개인화(individualization)’는 생활 상황의 구조적 변화인 ‘제도적 개인화’에 관한 것이고 ‘개인주의(individualism)’는 행위자의 의식, 의미, 지향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심영희, 2011). 따라서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는 개인주의에 대한 의식 없이 개인화된 형태의 관계양상이 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경섭과 송민영(Chang and Song, 2010)은 한국에서의 저출산과 미혼율 상승을 개인화의 현상으로 파악하지만, 이것이 문화적 이유보다는 경제적 이유로 인해 강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구에서처럼 개인주의 의식의 발현으로서 저출산이나 미혼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여성이 노동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가사와 노동의 이중부담을 피하기 위해 ‘위험 회피(risk-averse)’ 전략으로서 저출산과 미혼이 증가했다는 것이다(Chang and Song, 2010).

또한 한국에서의 여성들은 국가주도의 가족계획사업과 관련해 출산을 스스로 조절한 측면이 있다. 배은경(2010)은 국가가 자녀의 부양책임을 오롯이 개별 가족의 책임으로 지우면서, 출산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여성이 결국 스스로 출산을 억제하는 선택을 했다고 설명한다. 즉, 여성이 ‘아이를 잘 교육하는 어머니’이자 ‘교육비용을 책임지는 어머니’의 이중부담을 갖게 되면서, 결국 아이를 적게 낳는 “강요된 합리적 선택”(64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심영희(2011) 또한 한국의 가족이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의 특징을 띠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한국에서 개인들이 소망하는 혼인율, 출산율과 실제 혼인 및 출산율을 비교하였는데, 이들이 소망하는 혼인과 출산의 비율보다 실제적 비율이 더 적게 도출되었다. 즉, 혼인과 출산이 하고는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영희(2011)는 한국에서 일어난 제도적 개인화는 실제적인 의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즉, 개인주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여타 다른 제반여건이 혼인,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한국의 경우 서구와 달리 개인과 가족 사이에 균형을 잡으려는 가족, 즉, 한편으로는 제도적 개인화의 경향을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공동체 지향적인 가족형태가 나타난다고 제시하는데, 기러기 가족, 국제 결혼 가족, 주말부부 가족 등이 그 예이다. 그는 이러한 한국형 가족모델을 “21세기형 공동체 가족”으로 볼 것을 제안하는데, 이는 “개인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나타나는 가족이지만,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로 인해 가족지향이 강한” 유형이다(30쪽).

결국 현재 한국사회의 친밀성의 양상을 맥락화하자면, 이는 “압축적 근대화”와 그에 따른 개인의 (강요된)선택, 위험 회피 전략 등으로 인해 친밀성의 영역이 조절되어왔던 양상으로서 이해해볼 수 있겠다. 한국의 경우 점진적인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압축적 근대화’를 통해 친밀성의 양상이 급진화된 형태로 나타났고, 이것이 단순히 개인들간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개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서 선택되었던 것이다. 곧 한국에서의 친밀성 영역에 있어서는 감정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조건 또한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서, 이로 인한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 즉 친밀성에 있어서 개인의 ‘조절’이 이루어진 맥락 또한 이해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2) “유동적 사랑”으로 대표되는 현대의 관계맺음

학자들은 이러한 구조적 맥락뿐 아니라 현대에 들어 개인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랑의 모델 자체가 변화하였음을 지적한다. 이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현대 개인들의 관계맺음 양상의 변화에 주목한 바 있다(Beck and Beck-Gernsheim, 1990/1999; Giddens, 1993/2001; Illouz, 1997/2014; Bauman, 2003/2013; Illouz, 2007/2010; Illouz, 2012/2013). 먼저 벡과 게른샤임(Beck and Beck-Gernsheim, 1990/1999)은 개인화로 인한 ‘불안’ 때문에 개인이 친밀성의 영역에 집중하게 된다고 제시한다. 즉,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더불어 전통적 집단이 탈주술화되면서 개인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러한 불안으로부터의 안정을 친밀성의 영역에서 찾

으려 한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사회적 환경을 창조하거나 찾아내야 하는 개인들에게 이제 ‘사랑’은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심축이 되고(293쪽), 사랑은 하나의 ‘신홍 종교’와도 같아진다. 백과 계륜샤임은 이제 개인들에게 있어 ‘아이’란 사랑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주는 연결고리로서 기능한다고 주장한다.

기든스(Giddens, 1993/2001) 역시 친밀성 영역의 부상을 지적한다. 그는 지금까지 후면에 있었던 친밀성의 영역이 현대성으로 인해 “구조변동”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구조변동은 사실상(de facto) 여성들이 담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264쪽). 친밀성의 영역은 지금까지 남성들은 들어갈 수 없었던 여성들의 영역이었고, 이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질서의 사회적 삶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는 공적 영역에서는 여성이 제도적 억압으로 인해 배제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친밀성의 영역의 부상으로 이제 사적 영역에서의 민주화가 일어날 것이라 주장한다.

한편 일루즈(Illouz, 2007/2010)는 이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는데, 그는 친밀성의 영역의 부상이 아니라 친밀성의 영역과 자본의 영역이 혼재되는 양상을 다룬다. 그는 이를 “감정자본주의(emotional capitalism)”라 제시하는데, 이는 “경제적 자아는 감정적이 되고, 감정은 도구적 행위에 종속되는 것”(55쪽)을 말한다. 즉, 감정이 이제 경제적 교환의 논리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현대사회의 “상품의 낭만화”와 “로맨스의 상품화”를 그 예로 든다. 상품은 영화나 광고 이미지 속에서 낭만적 아우라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낭만화되고, 로맨스의 관행들은 상품과 소비와 맞물리게 되면서 로맨스가 ‘상품의 소비’로서 정의되게 되었다는 것이다(Illouz, 2012/2013, 57쪽). 즉, 현대사회에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은 그에 걸맞는 소비를 해 주어야만 한다. 또한 일루즈는 개인은 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좋은 선택을 하는 ‘만족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선택을 추구하려는 ‘선택의 극대화’를 이루려고 한다고 지적한다(Illouz, 2012/2013, 91-95쪽). 즉, 개인은 언제나 ‘더 나은’ 누군가를 찾으려고 하고, 이러한 누군가가 발견된다면 언제든지 파트너

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의 모델도 변화한다. 기든스는 현대의 이상적인 사랑 모델로서 “합류적 사랑(confluent love)”을 제시한다(Giddens, 1993/2001). 기든스에 따르면 “합류적 사랑”이란 “두 사람의 정체성이 과거에는 각기 달랐음을 인정하는 것을 토대로 새로운 정체성을 협상해가는 사랑”(108쪽)이다. 이는 관계 속의 개인이 각각 개인으로서 인정되고 존중 받는 관계인데, 곧 합류적 사랑이란 사랑보다는 일종의 파트너십을 강조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합류적 사랑과 근대의 낭만적 사랑과의 비교를 통해 현대의 이상적인 사랑 모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파악해 볼 수 있는데, 낭만적 사랑의 경우 ‘유일하고도 특별한 그 사람’을 찾아 나만의 서사를 완성하는 것이 관계의 목적이었다면, 합류적 사랑의 경우 상대방의 존재보다도 ‘관계’에 초점을 둔다. 즉, 특별한 누군가를 만나 관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개인을 만나 특별한 관계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낭만적 사랑은 유일성을 강조하지만, 합류적 사랑의 경우 다수와 특별한 관계가 가능하다. 또한 합류적 사랑은 관계를 이성 관계로 한정짓지 않으며, 관능의 기술(ars etoica)을 결혼 관계의 핵심에 도입하며, 이것이 관계의 유지 도는 해소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본다(Giddens, 1993/2001, 107-111쪽). 곧 평등한 독립적인 개인들이 만나 일방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데로 ‘합류’해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합류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든스(Giddens, 1993/2001)는 이러한 “합류적 사랑”이 “순수한 관계(pure relationship)”에 가까워질수록 감정적인 평등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데, 이때의 “순수한 관계”란 “사회적 관계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즉 개인이 다른 사람과 나누는 지속적 교제에서 파생될 수 있는 것들을 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103쪽)을 의미한다. 즉, 관계의 파생물을 위해 연애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순수한 관계”인 것이다.

하지만 바우만(Bauman, 2003/2013)은 이러한 “순수한 관계”에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이러한 관계에 기반한 합류적 사랑은 연인들 사이에서 “다음 통지가 있을 때까지” 밖에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신뢰가 자리잡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210쪽). 즉, 이것이 ‘합류’인 만큼, 언제든 지류로부터의 이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바우만은 현대사회의 연인관계를 규정짓지 않고 이를 “유동적인 사랑(Liquid love)”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전례 없는 유동성, 취약성, 그리고 천성적인 무상함이 모든 종류의 사회적 유대를 특징짓고 있다”(Bauman, 2003/2013, 210쪽)고 주장하는데, 즉, 어떠한 것으로든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동아닌 유동적인 액체와 같은 상태로서 연인관계를 파악한 것이다. 개인들끼리의 관계를 확정지을 수 없다는 관점은 벡(Beck and Beck, 1990/1999)과도 닿아 있는데, 즉, 개개인들이 자기관계를 선택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사랑이나 관계라는 것은 개개인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하게 변주하기 때문에(28쪽), 현대사회의 사랑, 그리고 연인들간의 관계는 “유동적(Liquid)”(Bauman, 2003/2013)이라는 것이다.

3) 새로운 친밀성의 양상들

결국 “유동적인 사랑”(Bauman, 2003/2013)으로 현재의 사랑이 맥락화되는 시점에서,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새로운 친밀성의 양상들이 발견되고 있다. 연애 또는 이성 관계를 탐구한 몇몇 연구들에서 개인들의 친밀성이 단순히 지배적인 양상을 따르는 것만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김은정, 2011; 김효진, 2011; 심성옥, 2015; 심영희, 2005; 이안나, 2013; Illouz, 2007/2010). 개인들은 기존의 규정적인 관계에서만 허용되었던 실천들을 관계와 분리해 실천하거나(김은정, 2011), 이러한 관계를 변형해 실천하는 모습(김효진, 2011; 이안나, 2013), 또한 새로운 공간 속에서 친밀성을 재구성하며 이를 실천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 것이다(Illouz, 2007/2010; 심성옥, 2015; 심영희, 2005).

먼저 김은정(2011)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결혼’이라는 친밀성을 유예하고 연애에 머무는 여대생들의 모습이 관찰되었다. 연구자는 결혼을 연기

하고 자신의 학업과 직업 모색에 힘쓰는 20대 여대생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이들은 상대와 이성교제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결혼’과는 별개의 관계로서 실천하고 있었다. 현재 남자친구가 있다고 답한 인터뷰이들이 모두 상대와 ‘결혼 생각이 없다’고 답한 것이다. 이들은 또한 성관계 또한 결혼과는 분리된 행동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었는데, 연구자는 이에 따라 과거 성인기 진입의 지표로서 여겨졌던 혼인은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성, 사랑, 결혼의 조합은 그 결합을 유지한다기보다는 분리되어, 이것이 각각 따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곧 현대에 들어 전통적인 관계의 규정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며, 기존의 규정적인 관계의 요소 또한 개인들에 따라 선택될 수 있는 것임을 알려준다.

한편 김효진(2011)의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연애의 소비각본에 맞추지 않고 이를 변주해 연애를 이어나가는 대학생들의 사례들이 관찰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명문대생들이 어떻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연애라는 것을 실천해 나가는지를 연구했는데, 소위 ‘명문대’에 들어가면서 신자유시대 경쟁사회에서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 대학생일지라도 저소득층 학생들은 다양한 사회적 제약 아래 연애에도 제약이 있었다. 시간,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연애라는 것이 하나의 ‘소비 각본’으로 규정되는 상황에서, 이들은 연애의 각본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아예 처음부터 이러한 소비각본을 따르지 않거나, 상대와의 타협을 통해 소비각본을 점진적으로 수정해 나가면서 연애를 지속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들은 소비 각본으로서의 연애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애’를 포기하는 대신, 이를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변형시켜 채택함으로써 연애를 지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개인들은 새로운 친밀성의 공간을 통해 친밀성을 재구성하기도 한다. 이안나(2013)는 대학생들의 모텔 활용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대학생들은 ‘모텔’이라는 공간 내에서 자신의 성적 자유를 주장하며 성적 친밀감을 구성하고 있었다. 대학생들은 모텔을 출입하는 동안 타인의 시선을 신경쓰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러한 공간 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자유로운

성적 주체로서, 자신들만의 친밀감을 실천해 나가고 있었다. 이들에게 있어 ‘모텔’이란, 부모나 사회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성적 실천을 추구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자, 자신들만의 친밀감을 기획하고 구성해 나갈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연구자는 이것이 개인들이 자신들만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전유하며 성적 실천을 이루는 것이라 제시하는데, 곧 대학생들은 자신들의 성적 자유를 완전히 포기하는 대신, 제한적이긴 하나 이를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성적 친밀감을 지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개인들은 친밀성을 구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온라인 공간을 택하기도 한다. 일루즈는 그의 저서 〈감정 자본주의〉(Illouz, 2007/2010)에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친밀성을 구성하는 개인들을 탐구하며 이를 “차가운 친밀성(Cold intimacies)”⁴²⁾이라 제시한 바 있다. 일루즈는 현대에 있어 개인들이 자신의 감정을 하나의 도구로서 경제적 영역에 편입시키고, 또한 데이트 사이트를 통해 경제적인 관계맺음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이를 ‘차가운 친밀성’이라 제시한 것이다. 일루즈는 인터넷 사이트와 같은 공간에서의 친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테크놀로지의 맥락’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는데, 이는 곧 이성 관계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만남이 SNS로서 일반화된 현재의 상황에 있어, 친밀성의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고려 또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심성옥(2015)은 한국에서 소셜 데이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다루었다. 최근 연인을 찾는 수단으로서 소셜 데이팅 앱이 많이 채택되고 있는데, 연구자는 세대담론의 시각에서, 이러한 소셜 데이팅 서비스는 청년세대들의 변화한 관계맺음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제시한다. 연구자가 관찰한 개인들에게 있어 소셜 데이팅 앱은 어떠한 데이팅의 도구보다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것이었고, 이는 여타의 조건들을 확인하고 치밀하게 상대를 고르는 하나의 ‘전략’이기도 했다. 연구자

42) 일루즈의 〈감정 자본주의〉(2007/2010) 책의 원제는 “차가운 친밀성(Cold intimacies)”이다.

는 ‘3포 세대’의 맥락에 있어 이러한 관계맺음의 양상이 개인들이 곧 연애를 포기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게임이나 쇼핑과 같은 간단한 만남과 관계 맺기 방식의 변화를 통해 연애와 관계 맺기 욕망을 빠르게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즉, 청년들은 관계맺음을 포기하기보다는 그 방법을 단순하고 간편한 방식으로 변화시킴으로서, 관계맺음을 이어 나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심영희(2005)는 사이버 공간 속에서 성적 친밀감이 재구성되는 양상을 탐구한다. 그는 사이버 섹스의 양상을 탐구하며, 이것이 개인의 경계 유지의 욕구와 친밀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준다는 점에서 현대의 개인주의화에 적합한 새로운 친밀성의 유형이라 주장한다. 개인은 사이버 공간 속에서 자신의 경계를 유지하며 상대와 수평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한 현실에서의 성적 행동에 따른 공허함을 사이버 공간에서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또한 사이버공간의 성격이 남녀차별이라는 사회적 불평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지적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는 사이버 섹스라는 친밀성의 양상이 ‘새로운 친밀성의 추구’라는 긍정적인 차원으로 제시될 수 있음을 주장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새로운 친밀성에 대한 논의들은 청년들의 연애가 하나의 고정적인 양상을 띠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맥락 안에서 이를 변화시켜 실천하는 ‘재구성’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즉, 청년들은 특정한 관계각본을 변형 또는 거부하거나, 자신들만의 공간을 구성해 이러한 공간 내에서 친밀감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데이트 어플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빠르고도 간편한 방식으로 관계맺음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양상들은 곧 개인들이 친밀성의 영역을 포기하기보다는 나름의 전술들을 통해, 자신들만의 친밀성을 재구성하면서 이를 실천하는 것임을 제시해 준다.

제 3절. 신자유주의시대 개인의 친밀성의 양상으로서의 “썸”

앞 절들을 통해 연구자가 파악한 “썸”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성과 관련해 “썸”은 신자유주의의 자기통치하는 개인으로서, 나아가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로 인해 ‘생존’이 지향점이 된 청년세대들에게서 등장한 관계이다. 또한 친밀성의 맥락에서, “썸”은 연애를 하나의 ‘이미지’로 접하고, 압축적 근대화로 인해 친밀성의 영역을 스스로 조절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선택해 온 한국의 맥락에서 등장한 친밀성의 양상인 것이다. 나아가 이는 현재의 친밀성이 “유동적인 사랑”(Bauman, 2003/2013)으로 제시되는 상황에서 새롭게 부상한 관계 양상인데, 선행연구들을 통해 개인들의 친밀성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맥락에 맞게, 이를 변형하고 재구성할 가능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썸”을 이러한 맥락 속 등장한 신자유주의적 개인의 친밀성의 양상으로 바라보려 한다. 즉, 신자유주의적 주체가 한국에서의 ‘친밀성의 변동’이라는 흐름 속에서 실천하는, 새롭게 재구성된 친밀성의 양상이라는 것이다.

몇몇 선행 연구들에서 “썸”을 다루기는 했지만, 이는 한국에서의 연애의 모습을 탐구하는 맥락 속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거나(김은정, 2016; 박소정, 2016; 심성옥, 2015), 또는 사회 비평 차원에서 논의되었다(임세화, 2014). 따라서 “썸”이라는 관계의 구체적인 실천 양상과 더불어 이것이 다른 친밀성과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또한 개인들이 이러한 관계를 실천하는 논리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보다 집중적으로, 이러한 관계를 실천하고 있는 개인들에 대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썸”이라는 관계만에 집중해, 실제로 이러한 관계를 실천하고 있는 청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실천 양상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연구자는 우선 “썸”이라는 관계의 형태를 규명해보려 한다. 관계형태

를 우선적으로 파악해보려는 것은 “썸”이라는 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관계의 시작과 종료, 만남의 형태, 스킨십, 관계에서의 의무와 책임, 개인의 역할 등 아직 파악되지 않은 관계 요소들이 많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구해보고, 이를 통해 “썸”의 관계형태를 우선적으로 파악해보려 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관계형태를 크게 두 가지의 측면으로 나누어 탐구해볼 것이다. 이는 관계의 행위적 측면, 그리고 인식의 측면이다. 즉, 개인들이 실제로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의 행위적 측면인 ‘실천 양상’을 먼저 살핀 후, 이들이 이를 어떠한 관계로 인식하며 실천하고 있는지의 ‘관계 인식’ 또한 다룰 것이다.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난 행위의 측면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개인의 인식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단순히 관계의 행위적 측면뿐 아니라 인식적 측면을 종합해, 개인들이 실천하고 있는 “썸”이라는 관계 형태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썸”의 관계 형태를 규명한 후, 연구자는 “썸”의 실천 논리를 다룰 것이다. 즉, 개인들이 실천하는 “썸”이라는 친밀성이 이렇다면, 그러한 관계맺음을 실천하는 논리는 무엇이냐는 것이다. 개인들은 자신의 선호로서 단순히 연애가 싫어서 이러한 “썸”의 관계만에 머무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회적, 경제적 맥락이 여기에 삽입되어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들이 이러한 관계만을 실천하고 있는 여러 논리들에 대해 탐구해봄으로써 이러한 친밀성의 양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해보려 한다.

연구자는 결국 이러한 세 가지의 연구문제를 순차적으로 거쳐 “썸”이라는 친밀성의 양상을 파악해 보고, 이러한 친밀성을 ‘신자유주의시대 한국 사회’라는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인지를 결론으로서 제시해 보려고 한다. 즉, 신자유주의시대 한국 사회의 청년들에게서 등장한 이러한 관계는 어떠한 친밀성의 양상이냐는 것이다. 연구자가 이렇게 설정한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새로이 등장한 “썸”의 실천 양상은 어떠한가. “썸”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유지되는가?
- 연구문제 2. 이들은 “썸”을 어떠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가? 즉, “썸”을 타는 이들에게 있어 “썸”이라는 관계는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이들이 “썸”을 실천하는 논리는 무엇인가. 즉, 이들이 ‘연애’하지 않고, 이러한 관계를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연구문제 4. “썸”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에서 이는 어떠한 친밀성의 양상인 것인가?

제 3장. 연구방법

본 연구는 “썸”이라는, 한국 사회에서 새로이 등장한 친밀성의 양상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친밀성의 관계 형태를 밝히고,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다뤄보려 한다.

탐색적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1)연구자의 호기심과 보다 나은 이해를 얻고자 하는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2)보다 강도 높은 연구의 실행가능성(feasibility)을 검증하기 위해, 3)차후의 연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Babbie, 2012/2013, 137쪽). 전술했듯이 한국에서의 연애, 이성 관계와 관련한 몇몇 연구에서 “썸”을 다루기는 했지만, 이는 부분적으로 다루어졌고 명확한 관계 형태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썸”이라는 관계 형태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며 앞으로의 연구들에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탐색적 연구로 진행될 것이다.

연구방법으로서 본 연구는 양적연구방법이 아닌 질적연구방법을, 그 중에서도 인터뷰 방법론을 선택하였다. 이는 “썸”에 대한 사전 지식이 충분치 않기 때문인데, 현상에 대한 지식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연구자가 이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기란 불가능할뿐더러, 이러한 친밀성의 양상은 개인들의 상호작용적인 관계와 그 실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설문조사로는 현상의 이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감정이나 생각, 의도와 같이 연구자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개인의 주관적인 영역을 탐구하기 위해서는(이한나, 2014), ‘본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고(Patton, 1990, 196쪽; 이한나, 2014에서 재인용), 이때 인터뷰 기법은 자기 자신이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최고의 관찰자라는 원칙에 바탕을 둔다(박은영, 2002). 따라서 연구자는 실제 이러한 관계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인터뷰로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연구의 방법으로 근거이론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근거이론은 다수의 연구 참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방법이다(강진숙, 2015). 하지만 본 연구는 이론의 개발이 목적이 아닌 이들의 공통된 경험에 대한 “두꺼운 기술(thick description)”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로 이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관계 양상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목표로 한다. “두꺼운 기술(thick description)”은 기어츠(Geertz, 1973)에 의해 제시된 연구 방법으로, 이는 현상에 대한 표면적인 묘사가 아니라, 그 아래 깔려 있는 의미나 의도, 그리고 맥락들까지를 기술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현상 기술(thin description)과는 구분된다(최선헌·최흠, 2009, 58쪽). 곧 연구자는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단순히 현상의 묘사가 아닌 이들의 행동의 맥락, 내부적인 마음의 문제까지를 고려해 관계 양상에 담긴 의미를 해석해내려 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자가 근거이론을 택하지 않은 다른 이유로서는, 근거이론의 경우 동질적인 표본을 선택해야 하지만, 이러한 관계 형태를 실천하는 개인들의 경우 동질적인 표본을 추출하기도 불가능할뿐더러, 표본의 수도 어떠한 ‘이론’을 개발해내기 위한 것으로는 부족하다 할 수 있다. 근거이론에서 요구되는 참여자 수는 약 20~30명인데(Creswell, 2013/201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수의 개인들을 만나기 보다는, 10명 내외의 인터뷰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들의 경험을 두껍게 기술하며 현상을 탐구해보고자 하였다.

제 1절. 연구대상

연구자는 이러한 “썸”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2,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실제로 이러한 관계를 실천하고 있는 청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썸”이라는 친밀성의 양상을 탐구할 것이다.

인터뷰이를 모집하기 이전에 연구자는 “썸”을 먼저 정의하였는데, 개인들마다 생각하는 “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의하지 않고서는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디부터가 “썸”이고, 어디까지가 “썸”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썸”을 “서로 이성적인 호감은 오가지만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공식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정의하였다. “썸”은 서로를 ‘연인’으로 부르지 않거나, 부를 수 없는 관계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다소 모호한 조작적 정의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썸”이 아직 명확하게 규정된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연구자는 명확하게 “썸”이 ‘무엇이다’라고 정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의로서 “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 것이다. 이러한 관계의 실천 양상을 통해 “썸”이라는 관계 형태를 규명하는 것은 본 연구의 우선적인 목적이기도 하다. 연구자는 그래도 이것이 공식적인 ‘연애’와는 구별된다는 점에서, 이를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공식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정의한 것이다.

연구자가 탐구하고자 하는 “썸”의 모습은 연애의 전 단계로서 설렘이 오고가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러한 “썸”에만 머무르는 모습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현재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썸”을 유지하고 있는 2,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가 말하는 오랜 기간의 “썸”이란, 최소 한 달 이상의 “썸”을 말한다. 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규정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지는 “썸”의 평균적인 기간이 약 한 달(3.82주)이기 때문이다.⁴³⁾ 따라서 연구자는 이러한 기간이 넘어갈 경우, 이것이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썸”에 머무르는 모습이라 생각해 기간을 최소 한 달로 설정하였다.

또한 호감의 교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경우 개인이 관계나 감정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최소 한 달 이상의 “썸”이라면, 개인들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라 판단해 한 달 이상의 “썸”을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이다.

43) 대학생들은 썸의 적당한 지속 기간을 평균 약 4주(3.82주)라고 답했다(대학 내일 20대 연구소, 2014b).

연구자는 지인들을 통해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과 의도적 표집(purposive/judgemental sampling)으로 대상자들을 모집하였다. 눈덩이 표집은 특정 모집단의 구성원들을 찾아내기 어려울 때 적절한 표집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Babbie, 2012/2013, 195쪽), “썸”을 유지하는 개인들의 경우에도 연구자가 일반적으로 구성원들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연구자는 눈덩이 표집을 택하였다. 연구자는 일차적으로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연구자가 관찰해온 지인들(지형, 민재)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이후 이들에게 다른 인터뷰이를 소개(예원, 민아)받는 것으로 인터뷰이를 모집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의도적 표집으로서 참여자들을 추가 모집하였는데, 의도적 표집은 “연구자의 판단 아래 가장 유용하거나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추출할 때” 유용한 표집 방법이다(Babbie, 2012/2013, 194쪽). 연구자는 “썸”이라는 관계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사례들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위해 참여자들을 추가 모집하였다. 연구자는 우선 지인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을 추천받는 것으로 인터뷰이들을 모집하고(은경, 시은, 지훈, 현준) 이후 모집글의 공유를 통해 추가로 인터뷰이들을 모집하였다(준혁, 서현, 민준).⁴⁴⁾

연구자가 눈덩이 표집과 의도적 표집을 택했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애초에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개인들의 경

44) 연구자가 추가적으로 모집글을 공유해 인터뷰이를 모집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는 보다 풍부한 기술을 위해 최소 10명 이상의 인터뷰이들과 대화를 나누고자 했다. 하지만 연구자가 이전의 표집을 통해 모은 참여자 수는 8명이었기 때문에, 연구자는 모집글을 통해 추가적으로 참여자를 모집했다. 둘째, 모집글을 공유하기 이전에 모집된 인터뷰이들이 직장인과 프리랜서, 또는 무직자였기 때문에 연구자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도 연구에 포함시키고자 했다. 적어도 한국의 ‘청년세대’에 대한 연구라면,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이야기도 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를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한정해 인터뷰이를 추가 모집하였다. 연구자는 인터뷰이 모집글 〈부록 참조〉을 작성해 일차적으로 단체 카톡방을 통해 지인들과 공유했고, 이 지인들이 또 자신의 지인들과의 단체 카톡방에 이를 공유해주는 방식으로 모집글을 공유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연구자는 대학생인 준혁, 서현, 민준을 모집할 수 있었다.

우 인터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⁴⁵⁾ 연구자는 다소 제한적인 모집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연구자는 여러 모집의 방법을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양한 표본들을 추출했고, 그 안에서 이들이 한국의 ‘청년 세대’에 대한 대표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연구자는 기본적인 성비를 맞추고(여성 6명, 남성 5명), 사회적 위치(직업)를 다양하게 포괄하려 했다. 사회적 위치와 관련해 인터뷰이들은 직장인 5명, 대학생 3명, 프리랜서 1명, 무직자 2명으로 구성되었다. 물론 이것으로 한국의 청년세대들을 대표하는 표본이 추출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연구자는 그래도 최소한의 대표성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다.

모집 과정에서 연구자는 현재 “썸”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이라도 이것이 연구에 유용할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과거의 사례도 연구에 포함해 논의하였다. 은경과 준혁의 경우가 그러했는데, 먼저 은경은 약 1년 전부터 “썸”을 시작해 세달 전쯤 “썸”이 흐지부지된 상태였다. 이는 과거의 경험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최근에 마무리된 “썸”의 관계이고, 연구자는 은경의 경험이 꽤 오래 지속되었다는 점에서(중간에 연락이 끊겼던 시기가 있었지만 은경은 약 세달 전 상대 남성과 여행을 다녀왔다), “썸”의 관계 양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 유용할 것이라 생각해 이를 연구에 포함시켰다.

준혁의 경우 현재 “썸”을 타고 있지만, 그는 과거 1년 넘게 “썸”만을 지속한 경험이 있었다. 연구자는 이를 미리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준혁과 현재의 “썸”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다 발견한 것이다. 준혁은 과거 1년 넘게 상대와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그는 관계가 흐지부지되기 약 3개월 전쯤 이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를 했다고 했다. 즉, 사귀지는 않지만, ‘이러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45) 연구자가 지인들에게 “썸”만을 유지하는 지인들을 추천해 달라고 했을 경우, 이들은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가 인터뷰를 하려고 하겠냐’고 했고, 모집 과정에 있어 실제로도 지인을 통해 사례를 발견했지만, 지인의 선에서 인터뷰가 차단되거나(지인이 상대에게 인터뷰를 부탁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또는 추천을 받았더라도 해당 사례자가 연구자에게 직접적으로 인터뷰 거절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가 매우 흥미로웠고, 이것이 “썸”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준혁의 과거 경험도 연구에 포함시켜 다루었다.

또한, 연구자는 애초에 “썸”의 기간을 ‘최소 한 달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모집 과정에서 단기간의 “썸”만을 반복하는 사례들을 발견하였다. 즉, 상대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성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연애할 생각은 없지만 몇몇 이성과 단기적인 만남을 지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훈과 현준의 경우가 그러하였는데, 이들은 현재 명확한 “썸”은 없지만⁴⁶⁾ 몇몇 이성들과 이따금씩 데이트를 하고 있다. 이들은 본인이 상대와의 관계를 굳이 발전시키려 하지 않는다 했는데, 지훈의 경우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했고, 현준의 경우 본인이 ‘연애를 많이 피하는 스타일’이라 말했다. 연구자는 이들의 “썸”이 단기적이긴 하지만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썸”의 양상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였다. 하나의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연애는 안 하면서 데이트만을 반복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굳이 연애가 목적이 아닌’, “썸”이라는 관계에만 머무르는 양상에 포함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지훈과 현준의 사례도 연구에 있어 함께 논하였다. 이렇게 선정한 인터뷰이들은 〈표 1〉과 같다.

46) 이때 이들이 말하는 “썸”은 분명한 연애를 목적으로 하는 “썸”의 모습이 아니다.

〈표 1〉 인터뷰이 목록

	이름 (가명)	성별	나이	직업	“썸”의 상태
1	지형	여	27	무직 (유학 준비중)	대학원 당시 교환학생 갔을 때 미국에서 만난 동갑 남성과 약 2년간 장거리 “썸” 지속 중.
2	은경	여	30	직장인	1년 전 “썸”을 뗀 직장 동료와 간헐적으로 연락하다 세달 전 함께 여행을 다녀옴.
3	민재	남	28	직장인	남자친구가 있는 대학교 후배와 약 2달 전부터 “썸” 타는 중.
4	시은	여	29	무직 (재취업 준비중)	소개팅으로 만난 동갑 남성과 2달 정도 “썸” 타는 중. (남성이 사귀자고 했지만 인터뷰이가 이를 유보함)
5	민아	여	28	직장인	두 명의 남성과 동시에 두 달 정도 “썸” 타는 중 (명시적인 합의).
6	지훈	남	37	프리랜서	명확한 “썸”은 없지만 몇몇 여성들과 종종 짧은 데이트 중.
7	현준	남	34	직장인	명확한 “썸”은 없지만 몇몇 여성들과 종종 짧은 데이트 중.
8	준혁	남	26	대학생 (인턴중)	해외에서 인턴 중 만난 여성과 약 2개월 간 “썸” 타는 중. 이전에 다른 여성과 1년 넘게 “썸”을 지속한 경험 (명시적인 합의).
9	서현	여	25	대학생 (취업 준비중)	대학 동기와 약 5개월 동안 “썸” 타는 중.
10	민준	남	26	대학생	대학 동기 2명과 동시에 “썸” 타는 중. 한 명은 약 7개월, 다른 한명은 약 1년 정도 지속.
11	예원	여	28	직장인	6명의 남성과 동시에 “썸” 타는 중.

제 2절. 연구과정

연구자는 우선 “썸”의 양상을 주변 지인들과의 대화, 미디어 담론, 기사, 잡지 글 등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질문지를 구성해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질문지를 토대로 인터뷰이들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상황에 따라 질문의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추가 질문도 하면서 보다 유연하게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가이드라인으로 삼은 질문지는 〈표 2〉와 같다.

연구자는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인터뷰이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를 제시하였다. 참여자들은 설명서를 숙지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고, 연구자는 녹취에 대한 동의를 얻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약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가량 조용한 카페에서 진행되었고, 이후 연구자가 추가적으로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인터뷰이를 다시 만나기도 하고, 여건에 따라 전화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추가 인터뷰를 포함하여 인터뷰는 2017년 3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이루어졌다. 지인들을 통해 알음알음 모집한 경우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카페에서 간단한 음료를 제공하였고, 모집글로 지원한 참여자들에게는 시간당 만 원의 사례비를 제공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관계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이들과의 만남과 자료 분석 과정에 있어 ‘괄호치기’를 통해, 연구자의 경험이나 기존 지식이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였다. ‘괄호치기’는 우리의 믿음과 가정을 ‘보류하기’, ‘그것들을 제쳐두기’, 우리 스스로 그것들로부터 ‘가능한 한 자유로워지기’를 의미한다(박순, 안명숙, 이명진 외, 2016, 52쪽). 따라서 연구자는 이러한 ‘괄호치기’를 함으로써 연구 대상자의 경험에 온전한 초점을 맞추고자 한 것이다. 또한 연구자는 인터뷰 과정에서 자칫 잘못 이해할 수 있을만한 부분은 다시 질문하고, 답변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듭하며 인터뷰이의 경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러 했다. 연구자는 모든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직접 필사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원자료로 삼아 반복적으로 검토하고 비교하면서 자료를 분석 및 해석하였고, 이를 기술함에 있어서도 충분하고도 풍부한 기술을 하려 하였다.

〈표 2〉 인터뷰 질문지 가이드라인

항목	질문 내용
인터뷰이의 기본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 직업 등 현재의 상황
“썸”에 대한 기본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썸”의 기간 - “썸”은 하나인지/복수인지. 복수일 경우 몇 개의 “썸” - “썸”의 상대방: 나이 및 직업
“썸”의 실천양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썸”의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떻게 만났는지, “썸”으로 발전한 과정 - “썸”이라고 느낀 계기 2) “썸”의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락의 형태 및 빈도: 전화/문자/SNS 그 외 - 데이트의 빈도 및 양상, 데이트 비용 - 애정표현 - 스킨십(스킨십의 정도 및 허용 가능 정도) 3) “썸”의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가 진전되려고 했던 적이 있는지 - 관계가 진전되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생각이 들었나 - “썸”과 연애의 기준선은 무엇인지 4) “썸”의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썸”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한 지점이 있었나 - “썸”이 끝난다고 하면 어떠한 느낌인지
“썸”의 관계인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썸”은 어떠한 관계인지 2) “썸”의 장단점 3) “썸”과 연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의 양상 차이 - 감정 및 책임감의 차이 - 장단점의 차이 4) 복수의 “썸”에 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가능한지, ‘상대방’은 가능한지 - 가능하거나/가능하지 않다면 그 이유
“썸”의 실천논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썸”을 유지하는 이유 2) ‘이것’만 아니면 사귄 텐데 하는 것이 있나

제 4장. “썸”의 실천양상

연구자는 이번 장에서 “썸”이 실제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탐구한다. 연구자는 이를 관계의 ‘시작’과 ‘유지’의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것인데, 관계의 유지를 특정해 다루는 이유는 “썸”이라는 관계의 특성 때문이다. ‘연인’과 같은 어떠한 구속력이 없는 이상 이러한 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계의 유지 전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관계를 시작하고, 또 이를 어떻게 “썸”으로서 유지하고 있는지를 다룬다.

제 1절. “썸”의 시작

1. “썸” 타는 개인들

연구자가 만나본 개인들은 모두 저마다 다른 양상으로 “썸”을 실천하고 있었다. 다만 이들을 관통했던 것은 이들이 굳이 상대방과의 ‘연애’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고, 각자 본인의 상황, 조건에 맞게 “썸”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상대와의 연애가 목적이었던 인터뷰이들도 있었지만, 이들 또한 시간이 지나며 연애에 대한 생각이 사라진 경우였다. 인터뷰이들의 현재 관계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의 논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인터뷰이들의 현재의 “썸”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 한다.

① 지형(27)은 제작년에 미국으로 교환 학생을 다녀왔다. 파티가 있었고, 이른바 “썸남”⁴⁷⁾을 그곳에서 처음 만났다. 썸남이 먼저 ‘밥을 먹자’, ‘영화를 보자’ 등으로 연락을 하기 시작해 그를 만나기 시작했다. 연락은

47) “썸”을 타고 있는 남자를 뜻한다. “썸녀”의 경우 ‘남성이 현재 “썸”을 타고 있는 여성’을 의미한다.

매일 했고, 거의 매일 저녁을 함께 먹었다. 서로 약속이 생길 경우 양해를 구했다. 그저 ‘베스트 프랜드’, 즉, 남사친(남자사람친구)이 아니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그는 “남사친보다 이성적 매력이 훨씬 높다”고 답했다. 즉, 이성적 매력이 소거된 단순한 친구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후에도 둘은 계속 그러한 상태를 계속 유지했고, 지형은 귀국했다(썸남은 미국에 계속 있는 상황이다). 지형이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둘은 종종 연락했고, 썸남이 한국에 왔을 때 만나기도 했다. 지형은 상대와 지금까지도 연락하며 약 2년간 이러한 “썸”을 지속 중이다.

② 은경(30)은 독특한 “썸” 경험이 있었다. 그는 직장 동료와 약 1년 전 “썸”을 탔다. 주기적으로 주말에 만나 데이트를 했고, 자주 만나 밥도 먹고 술도 마셨다. 약 한달 반에서 두 달 정도 데이트가 이어지다 썸남이 함께 여행을 가자고 했고, 은경은 이를 연인 관계로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분기점이라고 생각해 이를 승낙했다. 결국 둘은 2박 3일로 여행을 갔고, 여행을 가서도 일반 연인과 다르지 않은 커플여행을 함께 했다. 심지어 같은 방에서 잠도 잤지만, 은경은 스킨십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오히려 은경은 스킨십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공론화해(즉,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 썸남과의 관계를 정의 내리고 싶었다고 했다. 하지만 밤에 함께 술을 마시고 누웠는데도 손길조차 오가지 않았고, 그대로 여행이 끝났다. 은경은 상대 남성이 ‘젠다’는 생각이 들어 상대와 사귄 생각이 사라졌다고 했다. 여행을 다녀온 후 썸남은 이직을 했고, 이후에는 연락이 끊겼다. 하지만 6개월 쯤 지났을 때, 은경은 썸남과 연락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썸남은 은경에게 또 여행을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 이번에도 지난 여행과 같이 아무런 관계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행 이후 은경은 썸남과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③ 민재(28)⁴⁸⁾는 대학교 후배와 약 2달 전부터 “썸”을 타고 있다. 그

48) 민재와의 인터뷰 중 민재가 “썸”에서의 주도권에 대해 얘기한 부분이 흥미로워 여기에 제시한다. 민재는 “썸”의 시작의 주도권은 여자에게, 끝의 주도권은 남자에게 있다고 했다. 여자의 경우 남자가 정말 아니어도 성심성의껏

는 2013년 썸녀를 학교 모임에서 처음 만났는데, 감정이 동한 것은 약 3개월 전부터라고 했다. 특이한 점은 현재 썸녀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이다. 민재는 썸녀와 일주일에 한 두번 데이트를 즐겼고, 일반적으로 여자친구와 하는 데이트와 동일한 데이트를 즐겼다고 한다. 단 둘이 술을 마시기도 하고, 주말에는 민재의 차로 함께 드라이브를 다녀왔다. 매일매일 수시로 연락했고, 서로 회사가 끝난 후 각자 술자리에 갔다가 둘이 따로 만나 한잔 더하고 들어가는 일도 많았다고 했다. 민재는 상대가 외모에 대한 칭찬과 같이 자신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는 말을 했을 때 이것이 “썸”이라 느낀 것 같다 말했다. 연구자가 민재에게 썸녀가 남자친구가 없었다고 하면 ‘사귀자’고 할 것 같냐는 질문에 민재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④ 시은(29)은 현재 소개팅으로 만난 동갑 남성과 2달 정도 “썸”을 타고 있다. 소개팅을 했을 당시 시은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현재는 퇴사한 후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 시은은 썸남과 연락은 매일 수시로 하고 주말에 한 번 정도씩 데이트도 하고 있다. 썸남은 시은에게 ‘사귀어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지만, 시은은 ‘좀 더 시간을 가져 보자’고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왜 만나보지 않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시은은 “저는 지금 상태가 딱 좋은 것 같아요”라 답했다.

⑤ 민아(28)는 현재 두 명의 남성(A와 B)과 동시에 “썸”을 타는 중이다. 둘 다 “썸”은 약 두 달 정도 지속되었다. 이중 A는 민아가 2년 전에 알던 지인인데, 상황적인 여건으로 멀어졌다가 올해에 연락이 닿아 다시 “썸”을 시작했고, B는 최근 만나기 시작해 새로운 “썸”을 시작한 상대다. 민아가 둘과 동시에 “썸”을 타는 이유는 둘 다를 놓치기 싫어서다. 민아

잘 해주면 어느 정도 마음을 여는데, 남자의 경우 여자가 정말 아닐 경우 아무리 잘 해줘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썸”의 시작의 경우 보통 ‘남자가 대시하고 여자가 이를 받아주는’ 형태로, 이를 받아줄지 말지의 주도권을 여자가 쥐고 있지만, “썸”의 끝에 있어서는, 보통 남자가 먼저 고백을 통해 다음 단계로 갈지 말지를 언급하기 때문에 관계의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는 A와 B에게 동시에 호감을 느낀다고 했다. 다만 A와 사귀게 될 경우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확률이 높고(A는 조만간 외국으로 나갈 계획이다), B의 경우 한국에 줄곧 있을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사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한 민아는 A와 B가 상반되는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한쪽을 포기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민아는 현재 A, B 모두와 어느 정도 이러한 “썸” 관계에 대해 명시적인 합의를 한 상태이다.

⑥ 지훈(37)은 현재 명확하게 “썸”을 타고 있다고 말할 만한 사람은 없지만, 몇몇 여성들과 종종 짧은 데이트를 즐기는 중이다. 지훈은 “썸”이라고 하기엔 애매하고, 만나는 여자인 친구들은 많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들에게 연락이 와서 ‘같이 밥 먹자’거나 ‘뭐 하러 가자’고 하면 데이트라고 안 할 뿐 데이트나 마찬가지로 만남을 갖는다고 했다. 그는 몇몇 여성들과 종종 데이트를 즐기기는 하지만, 본인이 이성과의 관계를 굳이 발전시킬 의지가 없어 연애를 안 하고 있다 말했다.

⑦ 현준(34) 역시 지훈과 비슷한 만남을 하고 있다. 현준은 데이트의 기준이 애매하긴 하지만, 종종 이성들과의 만남을 가진다 말했다. 그는 여러 명이 만나는 자리에서 만났다가 따로 여성의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해 만난 경우도 있었고, 작년에는 약 한달 간 “썸”을 지속한 경험이 있다 말했다. 이 외에도 그는 예전부터 알던 여성 친구와 잠시 데이트를 즐기다가 최근 이 또한 흐지부지 되었다고 했다. 현준은 상대 여성이 관계를 발전시킬 것 같은 김새를 보이면, 관계를 차단했다고 한다. 현준은 자신이 “될 수 있으면 연애를 좀 많이 피하는 스타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⑧ 준혁(26)은 현재 해외에서 인턴 중 만난 여성 상사와 약 2개월 간 “썸”을 타고 있다. 그는 썸녀와 평일 내내 회사가 끝나고 함께 식사, 운동, 장 보기 등등을 하며 데이트를 즐겼다. 계속 이러한 데이트가 이어지고 서로의 외모에 대한 칭찬 같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준혁은 이 관계가 “썸”이라고 인지했다고 했다. 이 외에도 준혁은 해외 현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메신저를 통해 현지 여성들을 두 명 정도 만나 데이트를 즐겼다. 준혁은 이들과 메시지를 교환하며 ‘언제 보자’는 약속을 잡아 세 번 정도씩 데이트를 즐겼다고 했다. 또한 준혁은 3년 전 1년 이상 “썸”을 지속한 경험이 있다. 준혁은 이 여성과 데이트도 하고 “사랑해”라는 애정표현, 성관계까지 하면서 서로 사귀지는 않았다. 도대체 “어떻게 사귀지 않았나”는 연구자의 질문에 준혁은 ‘썸녀와 본인이 모두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했다. 준혁은 이러한 관계를 암묵적으로 유지하다가, “썸”이 흐지부지되기 약 3개월 전 명시적으로 합의를 했다. 준혁은 이 여성과 크게 싸우고 관계가 종료되었고, 현재 만나고 있는 여성에 대해서는 관계의 종료시점이 어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관계가 발전될 것 같지 않다’고 확신했다.

⑨ 취업 준비생인 서현(25)은 현재 같은 대학 동기 취업 준비생과 약 5개월 동안 “썸”을 타는 중이다. 서현은 아직 취직을 하지 못해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졸업을 미루고 있다. 서현의 경우 상대방과 어느 정도 사귄 마음이 있었으나, 상대방이 이를 유보해 서로 마음이 식은 상황이다. 썸남은 서현에게 현재 취업을 준비한다는 상황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연애를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다고 고백했다고 한다. 결국 서현은 썸남과 이러한 애매한 상태를 계속 유지 중인데, 서현은 “썸”을 타면서 본인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취업 준비’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 쉽게 썸남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서현은 또한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클 것 같다고 말했는데, 그는 현재 썸남과의 만남을 가지면서도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시간적인 부담 때문에 힘겹다고 했다.

⑩ 민준(26)은 대학 동기 2명과 동시에 “썸”을 타고 있다. C와는 약 7개월, D와는 약 1년 정도 “썸”이 지속되었다. 민준은 C의 경우 주로 술을 함께 마시자 해서 같이 밥, 술, 영화의 데이트를 자주 하고, D의 경우

카페에서 함께 공부의 목적으로 만나 다양한 데이트를 자주 한다고 말했다. 민준은 둘 다에게 호감이 있지만, 아직 연애로 발전하는 것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들이 모두 대학 동기이기 때문에, 이들과 만약 연인 관계로 발전하거나 고백을 했다 잘 안 될 경우 친구들 사이가 애매해질 것이 두려워 관계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⑪ 예원은 현재 6명의 남성과 동시에 “썸”을 타는 중이다. 6명 중 4명은 소개팅으로 만났고, 2명은 예전부터 알던 지인들이다. 예원은 소개팅으로 만난 남성들과 소개팅 이후 간간히 만나고 연락하며 이러한 관계를 몇 달 간 유지 중이고, 지인에서 썸남으로 발전한 사람들과도 이러한 관계를 계속 유지 중이다. 예원이 이렇듯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현실적인 조건 때문이다. 예원이 감정적으로 호감이 가는 사람들은 미국에 갈 예정이기 때문에 예원과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들은 소위 ‘스펙’이 괜찮은 사람들이라 미래를 위해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원은 소위 이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2. SNS를 통한 “썸”

1) 페이스북 메시지, 메신저 앱을 통한 ‘간편한 접근’

인터뷰를 하면서, 연구자는 많은 인터뷰이들이 “썸”에 있어 SNS⁴⁹⁾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이 “썸”을 시작하는 데 있어 SNS는 빠질 수 없는 만남의 공간이자, 연락의 수단이었다. 이들은 페이스북, 소개팅 어플, 메신저 등을 이용했는데, 가장 많이 등장했던 사례는 페이스

49) 본 연구에서는 이재현(2013)이 제시한 정의에 따라 SNS를 “웹사이트라는 온라인 공간에서 공통의 관심이나 활동을 지향하는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 이상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상정보를 드러내고 정보 교환을 수행함으로써 네트워킹,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소셜 소프트웨어”(ix - x 쪽)로 본다. 따라서 연구자는 SNS를 단순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한정짓지 않고, 소개팅 앱, 메신저 앱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쓴다.

북이었다. 연구자가 인터뷰한 11명의 인터뷰이 중 4명이 페이스북을 통해 “썸”을 시작했는데, 민아와 예원, 지형, 준혁은 모두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상대방과 연락을 시작했다.

먼저 예원의 경우 과거 썸남으로부터 온 페이스북 메시지를 최근에야 확인하게 되었다고 한다. 예원은 늦긴 했지만 답장을 했고, 상대방으로부터 답장이 와 연락을 하다가 “썸”으로 발전했다. 민아도 이와 비슷한 케이스인데, 민아는 썸남과 직접적인 연락이 끊어진 이후, 어느 날 페이스북 피드(feed)에 그의 소식이 뜬 것을 보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간단한 안부 메시지를 보낸 후 그에게 다시 연락이 왔고, 이어 만남을 지속하면서 그와 “썸”으로 발전했다.

준혁의 경우 알던 지인이 아니라 페이스북으로 썸녀를 처음 만났다. 여성이 준혁에게 페이스북에서 처음 메시지를 보냈고, 준혁도 이에 응해 연락을 시작하면서 관계가 발전한 것이다. 준혁은 이 여성과 1년 넘게 이러한 “썸” 관계를 유지했다. 준혁은 이 외에도 채팅 어플을 통해 이성을 만난 경험이 있었다. 그는 ‘위챗’이라는 어플을 이용했는데, 해당 어플에는 ‘주변 사람’이라는 기능이 있다(〈그림 6〉 50참조).

이 기능은 본인과 가까이 있는 이용자들을 찾아주는 기능으로, 사진과 더불어 상대방에 대한 정보, 또 상대방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알려준다. 〈그림 6〉의 왼쪽 사진에서와 같이 ‘주변 사람’을 누르면, 오른쪽 사진과 같이 다음의 사람들이 100m이내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어플 이용자들은 이를 통해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준혁은 이 기능을 이용해 2명의 이성을 만났고, 각각 3, 4차례 데이트를 즐겼다고 했다.

지형도 썸남과 페이스북으로 처음 연락을 시작했다. 그녀는 교환학생 당시 한 파티에서 그를 만났는데, 나중에 페이스북으로 ‘맥주 마시자’는 메시지가 왔다고 한다. 지형은 아이디어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그가 아마도 자신과 그의 접점인 언니의 페이스북에서 ‘친구 목록’을 통해 자신을

50) 사진 출처: 알럽타오바오 블로그 글 (2014, 11, 21)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 Wechat 하기- 흔들기, 주변탐색, 병편지”. URL: <http://m.blog.naver.com/minqiong/220187831927#>

찾았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지형은 재미있는 사실을 얘기해 주었는데, 미국에서 클럽이나 바에 갈 경우, 남자들이 번호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 하나’를 물어봤다고 한다. 일단 이름만 알아내고, 나중에 페이스북으로 검색해 친구 신청을 보내면서 연락을 한다는 것이다.

〈그림 6〉 위챗 ‘주변 사람’ 기능. *출처: 각주 50



곧 페이스북, 메신저 앱과 같은 SNS는 이러한 맥락에서 “썸”의 상대를 발견하기 쉽게, 그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루즈가 지적했듯이 곧 인터넷이 잠재적인 파트너 “시장”을 가시화시킨 것이다(Illouz, 2007/2010). SNS 공간에서는 개인들의 일상과 정보가 개인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도 나도 서로를 ‘발견’하기가 쉽다. 준혁의 사례처럼 일면식도 없는 이성이 온라인상의 간단한 프로필을 통해 나에게 연락을 하기도 간편할뿐더러, 위치 정보 제공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를 통해 상대가 나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도 알 수 있다. 결국 준혁과 지형의 사례처럼 SNS는 잠재적 연인 상대에 대한 정보를 세세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은 SNS 공간 속에서 사라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이재현, 2016), SNS 상에서는 항상 상대방이 보이게 된다. 즉,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이 게시글을 쓰거나 상대방과 상호작용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이는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은 SNS 상에서 더욱 더 활발히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이재현, 2016). 따라서 개인은 상대와 실제적인 연락은 끊어졌더라도, 언제든지 SNS 상에서 상대를 발견할 수 있다. 민아가 썸남의 소식이 ‘피드에 떠서’ 다시 연락하게 된 것처럼, 개인이 굳이 상대를 찾아보지 않아도, 상대가 스스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SNS는 이들에게 “썸”의 상대를 가시적으로 보이게 해 주면서, 이들의 관계맺음을 가능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2) 소개팅 앱을 통한 직접적인 ‘셀프 소개팅’

소개팅 앱은 보다 직접적으로 이성 관계의 관계맺음을 목적으로 한다. 은경은 이성을 만나기 위해 소개팅 어플을 이용한 사례인데, 은경이 이용한 어플은 ‘정오의 데이트’⁵¹⁾와 ‘틴더’⁵²⁾이다. 은경은 이러한 어플로 약

51) ‘정오의 데이트’는 가입자 100만명 이상의 대표적인 소개팅 어플이다. 이는 랜덤 매칭인데, 낮 12시마다 이용자들에게 두 명의 이성이 소개된다. 이 중 한 명의 프로필만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고, 오후 5시경 추가로 한 명을 더 소개해준다. 추가로 소개를 원할 경우 ‘캔디’라고 불리는 앱 내에서의 결제 수단으로 결제 후 이용이 가능하다.

출처: 공감포스팅팀 (2017, 2, 27). [공감신문] 혼밥이 지겨운 솔로들을 위한 맞춤형 소개팅앱 추천. <공감신문>. URL: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4>

52) ‘틴더(Tinder)’는 현재까지 누적 매칭만 110억 건에 달하는 글로벌 소셜 앱이다. 틴더는 내 위치로부터의 거리, 나이, 그리고 성별을 지정해 검색을 누르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차례로 띄워준다. 이용자는 화면에 뜬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사진을 왼쪽으로 밀고(디스라이크), 마음에 들면 오른쪽으로(라이크), 정말 마음에 들면 위쪽으로 밀어올린다(슈퍼 라이크). 그러면 어플에서 해당 사람들 중 나에게도 라이크나 슈퍼 라이크를 누른 사람들과 나를 자동으로 매칭시켜준다(슈퍼 라이크를 누를 경우, 상대 핸드폰으로 진동이 간다).

출처: 이슬기 (2016, 11, 1). [이슬기의 러브앤더시티] #9. ‘틴더’로 크리스마스

20명의 남성과 만남을 가져왔다고 한다. 은경은 이외에도 “썸팅”이라는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 보았는데, 이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가까운 주변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끼리 점심시간에 소개팅을 할 수 있게 매칭해주는 서비스이다. 구글 드라이브 문서함에 들어가 자신이 상대방에 원하는 것들, 나이, 외모, 직업과 같은 것들을 각각 퍼센트로 비중을 적어서 보내면 이를 통해 개인들을 매칭해 준다.

은경이 이러한 앱이나 매칭 서비스를 선택한 이유는 이것이 은경에게 있어 가장 합리적인 짝 탐색의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연애 시장에서 은경이 짝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외모이다. 은경은 상대를 소개팅으로 만나는 경우 외모를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플을 통해 만날 경우 자신이 원하는 외모 수준 이상의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곧 은경에게는 남성의 키나 마음에 드는 외모와 같은 “매력 자본(erotic capital)”⁵³⁾(Hakim, 2012/2013)이 가장 강하게 소구하기 때문에, 은경은 이러한 자본이 당연히 노출되고 나열되는 소개팅 앱을 선택했다. 곧 은경에게 있어 소개팅 어플은 가장 빠르고, 경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연애 자본을 갖춘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계맺음의 방식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SNS를 통한 “썸”의 사례들은 개인들이 테크놀로지를 통해 관계맺음의 방식을 경제적으로 변화시킨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SNS라는 상대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수단을 갖추면서, 온라인 공간 내에서 제시되는 몇몇의 사진들과 프로필을 통해 관계를 가져나갈 이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인들이 짝을 탐색하고 관계를 시작하는 데 있어 이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기능하는데, 그 이유는 상대에 대한 접근을 할 때 개인이 투자해야 하는 노력이 적기 때문이다. 개

솔로 탈출?... 데이팅 앱 뒷북 체험기. 〈서울신문〉. URL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101500178&wlog_tag3=naver

53) 하킴(Hakim, 2012/2013)은 개인이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에 이어 자신의 ‘매력’을 통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 자본(erotic capital)”을 지니고 있다 제시한다. 매력 자본이란 “아름다운 외모, 성적 매력, 활력, 옷 잘 입는 능력, 매력과 사회적 기술, 성적 능력을 모두 아우르며 신체적 매력과 사회적 매력이 혼합된 것”(Hakim, 2012/2013, 20쪽)을 의미한다.

인은 상대를 발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어플을 켜거나 사이트에 접속하며, 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적합한 이성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이는 아무 정보가 없는 상대를 만나 상대를 알아가며 선택의 과정을 진행하는 과거와는 다르다. 개인들은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미리 어느 정도의 조건과 프로필을 통해 상대를 파악한 뒤 상대와의 만남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곧 이들에게 있어 SNS와 같은 테크놀로지는 가장 경제적이고도 합리적인 관계맺음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개인들은 이러한 SNS가 편리하고도 합리적인 관계맺음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제 2절. “썸”의 유지

이번 절에서는 이들이 이렇게 시작한 “썸”을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다룬다. 전술했듯이 “썸”은 “서로 이성적인 호감은 오가지만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공식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연인’이라는 울타리가 없다는 점에서, 호감이 오고가는 이러한 관계가 장기간 지속된다는 것은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이들의 관계 유지 전략을 크게 두 가지의 차원으로 나누어 보았다. 첫째는 ‘당기기(pull)’의 전략, 그리고 둘째는 ‘밀기(push)’의 전략이다. 연구자는 “썸”이라는 관계의 핵심이 개인 사이의 ‘적절한 긴장 상태의 유지’라는 점에서 이들의 관계 유지 전략을 ‘밀기(push)’와 ‘당기기(pull)’로 구분해 본 것이다.

1. ‘당기기(pull)’의 전략

1) 인상의 관리(impression management)⁵⁴⁾

54) 고프만(Goffman, 1959/2016)은 사람들이 연극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듯, 매일 자신의 자아를 연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배우가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인

(1) ‘좋은 모습’만 보이기

인터뷰이들은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인상(impression)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들은 상대방과 만나거나 연락을 할 때 본인의 ‘좋은 모습’만 보이려는 경향을 보이는 한편, SNS를 통해 자신의 취향과 정체성을 상대방에게 각인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썸”의 관계에서 굳이 속 깊은 얘기를 하며 자신의 문제들을 공개하려 하기보다는, 취미와 관심사와 같은 일반적인 대화들을 하며 자신을 선택적으로 노출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러한 관계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줘도 되는” 관계라 말한다.

민아: “뭔가 아직 완전히 **이 오빠한테 나의 모든 걸 알려주기 싫은 느낌?** 그리고 **나의 좋은 면만 지금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무감? 그리고 어차피 만약에 진지해지면 어차피 다른 것들은 알게 되는 게 당연한 거 같아서 **굳이 썸 타는 단계에서 나의 모든 걸 까발리고**, 막 나의 뭐 나만의 문제들을 얘기하고 그러진 않는 거 같아요. 거의 표현을 그렇게 잘 안하고 그냥 막 **오늘 재밌었던 거. 어제 재미.** 약간 이런 위주 대화를. **취미, 관심사** 이런 거?”

준혁: “썸 때는 사실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줘도 되고**. 보고 싶은 모습만 봐도 되는데. 연인이 되면은 이제 거의 뭐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모든 모습을 보게 되고.”

시은: “썸남이어서 제가 바라는 거는 그냥 **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왜냐면 저도 궁금해 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사람으로, 어떤 사람인지만 서로 알아갔음 좋겠고, 나의 배경이나, 나의 과거를 아직은 **궁금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그

상을 조정, 관리하여 관객에게 가장 효과적인 자아 연출을 하듯, 개인 또한 사회생활에 있어 그러한 연출을 한다는 것이다.

런 건 안 물어보기도 하고, 아직은 궁금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거는 지켜 줬음 좋겠어요.”

이처럼 이들은 자신을 원하는 대로 노출할 수 있는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좋은 모습만 공유하며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곧 이들에게 있어 상대방과의 적정한 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을 가능하게 해 주는 거리이다. 따라서 이들은 상대와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상대도 나와서의 거리를 그만큼 유지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시은은 이렇게 ‘좋은 면’을 보여주면서 인상 관리를 하는 것이 현재의 관계를 더욱 더 “설레는 관계”로 유지해준다고 말하고, 민아는 긴장이 풀리지 않아야 “서로에게 더 잘해주고”, 이것이 “더 재밌다”고 말했다. 즉, 이러한 관계는 아직 서로 긴장이 풀리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를 더 존중해 주고, 배려해 준다는 것이다. 곧 이들에게 있어 상대방과의 적절한 거리감은 나에 대한 선택적 노출을 가능하게 하면서,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설렘을 유지하며 나아가 자신의 삶에 대한 존중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2) SNS를 통한 자아 연출과 취향의 확인

또한 이들은 SNS를 통해서도 자신을 선택적으로 노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때의 선택적 노출의 의도는 “썸”의 상대방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사람들이었다. 사실 연구자는 이들이 썸남, 썸녀를 의식해서 계정을 관리할 것이라 예상하였는데, 이들은 굳이 ‘상대방’을 의식한다기보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의 차원에서 계정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다만 지형의 경우 썸남이 생겼을 때 전 연인의 흔적을 지운 경험은 있었다. 지형은 썸남을 의식해서 혹시나 그의 흔적이 남아 있을 까 봐 이를 확인한 후 남은 흔적들을 지웠다 말했다.

인터뷰이들은 일반적으로 SNS 공간을 상대에게 나의 취향을 표현하는 공간으로서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민재는 비슷한 분위기로 일관성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상대에게 자신의 취향을 자연스레 알리려 했다.

민재: “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올리는데. 내가 좋아하는거. 근데 그런 건 있어. 내가 비슷한 느낌으로 계속 이런 걸 올려야지 이런 건 있지. 내가 여태까지 올려왔던 계속 비슷한 느낌을 계속 올린 다든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계속.** 여행사진 올리고. 카페 사진 올리고. 그게 계속되면 **애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즉, 민재에게 있어 SNS는 자신의 ‘취향’, 정체성을 상대방에게 일관되게 보여주는 ‘자아 연출(self-presentation)’의 공간이다. 같은 맥락에서 민아는 썸남에게 “인스타 패턴”이 있다고 했다. 민아는 처음에 썸남의 SNS를 보고 상대가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했는데, 그가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는 노래, 또는 노래 가사들을 자주 올릴 뿐 아니라, 특히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업로드의 빈도가 잦았다는 것이다. 곧 업로드하는 게시글의 종류나 빈도수, 또는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형태에서 그 사람만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SNS가 이처럼 개인의 ‘취향 공개’의 장이 된다는 점에서, 인터뷰이들은 상대방의 취향을 만남의 이전에 미리 확인하는 수단으로서도 SNS를 활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거의 매일, 수시로 상대방의 계정에 들어가 상대방의 일상을 확인하고 있었고, 상대방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라이프스타일은 어떤지,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를 ‘티 내지 않고’ 엿탐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를 통해 상대방과 공통점을 맞춰 보고, 취향이 맞을 경우 호감이 올라간다고 했다.

민재: “**되게 자주 들어가지.** SNS를. 되게 자주 들어가서 뭐하고 사나... 사진 계속 보고. 궁금하잖아 그냥. 관심사 같은거 파악하고. 애가 뭐하고 살았나 뭘 좋아하나. **인스타의 기능은 엿탐 느낌? 그냥 계속 보는 거? 맨날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 애도 이런거 좋아하는구나. 나도 이런거 좋아하는데’.** 공통점을 자꾸 찾으려는 거?”

민아: “인스타는 그냥 각자 서로 티 안내는 척 하면서 서로 몰래몰래

그. 라이프스타일을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인스타를 보고 서로의 약간 그런 취향을 딱 볼 수 있으니까. 더 호감이. 만약이 둘이 취향이 맞으면 더 호감이 생기고. 둘이 안 맞으면 호감이 깨지겠죠. 근데 다행히 저희는 그런 스타일이 맞아가지구.”

예원과 지형 또한 “썸”의 상대방을 엿탐한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본능’이라 했다. 즉, 상대방이 뭘 하는지, 무슨 일상을 보내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하나의 본능이라는 것이다. 이중 지형은 특히 “상대방이 이성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면 무조건 엿탐을 한다”고 했다. 이러한 모습들은 곧 이들이 하나의 관음자(voyeur)로서(이재현, 2014), “썸”의 상대방, 나아가 잠재적 연인들의 일상에 대한 엿탐, 관음의 공간으로서 SNS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이들에게 있어 SNS는 자신을 선택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 공간이자, 상대의 일상이나 취향을 통해 상대와의 호감을 조절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기능한다. 또한 SNS 공간의 경우 개인의 ‘취향’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이는 상대방을 파악하는 데 있어 들여야 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 취향의 경우 사실 상대와의 오랜 시간의 만남을 통해 개인이 스스로 발굴해 내어야 하는 것이었다. 즉, 상대에 대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알아낼 수 있는 통합적인 정보가 취향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SNS 공간에서는 이러한 취향이 공공연하게 제시된다. 개인은 자신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떠한 문화생활을 즐기고,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등을 자발적인 노출로서 제시하는 것이다. 결국 개인은 상대에게 굳이 자신의 취향이나 일상에 대해 말을 하기보다는 이를 SNS를 통해 ‘제시’할 수 있고, 또한 만남을 가져가며 상대방을 알아갈 필요 없이, 상대가 제시한 정보들만으로도 이를 나와 맞춰보며 상대와의 관계를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다. 곧 상호간의 선택적 노출이 하나의 정보로서 제시되는 온라인 공간은, 이들에게 있어 실제적인 만남을 통한 취향 파악의 수고를 줄여주는 친밀성의 공간인 것이다.

2) 부담스럽지 않은 연락

(1) 연락은 ‘카카오톡’을 통해, 수시로

인터뷰이들은 “썸”의 상대와 수시로 연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연락 수단은 보통 ‘카카오톡’이었다.⁵⁵⁾ 이들은 거의 하루종일, 민아의 말을 빌리자면 “논스톱”으로 상대방과 끊임없이 카톡을 주고받았다.

민아: “보통 카톡으로 연락해요. 카톡은 수시로. 거의 하루종일? 논스톱으로.”

민재: “요즘엔 다 카톡 아냐? 카톡은 수시로 하지.”

시은: “연락은 매일매일 수시로 자주. 카톡.”

지형: “연락은 매일 했어, 카톡으로.”

“썸”을 타는 이들에게 있어 ‘카카오톡’은 부담감 없이 상대방에게 ‘내가 관심이 있음’을 적절히 표현하는 수단이었다. 특히 민재는 썸녀와 단체 채팅방에서 카톡을 주고받다가 개인 톡을 했는데, 민재는 이것이 상대방에게 내가 ‘관심 있음’을 알리는 것이었다고 했다. 즉, 단체방에서 나온 개인 톡은 ‘개인적인 연락’을 하자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또한 민재는 카톡의 빈도수가 상대방과의 호감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했다.⁵⁶⁾ 곧 카톡을 끊임없이 이어간다는 것은 상대방도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한편, ‘카카오톡’은 ‘원하면 언제든지’ 상대와 상시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했다. 인터뷰이들은 문자메시지보다 카톡의 이용을 편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메신저는 꼭 필요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지형과 민아는 본인들이 ‘문자 메시지’ 세대도 겪었

55) 인터뷰이들은 이 외에도 전화, 페이스북 메시지, 인스타그램, 페이스타임 등을 통해 썸남/썸녀와 지속적으로 연락하였다.

56) 민재: “카톡이 약간 그 척도인 거 같은데. 계속 연락을 하니까. 연락의 빈도수나 그게. 그리고 단체를 하다가 개인 톡을 한다는거는 내가 관심이 있다는거를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지만, 과거에 어떻게 호감 가는 상대와 연락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현재 카톡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지형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연락 수단의 효과가 크다. 지형의 경우 현재 썸남이 미국에 있기 때문이다. 지형이 한국으로 와 썸남과 떨어진 지도 꽤 되었지만 지형은 오히려 매일 보는 대학원 사람들보다 썸남이 가깝게 느껴진다고 말한다.

지형: “**원하면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잖아.** 진짜 이거를 통하면 그냥 서울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큰 차이가 없어. **오히려 매일 얼굴 마주보는 대학원 사람들보다 훨씬 가깝게 느껴지는?**”

곧 지형에게 있어 카카오톡이라는 수단은 미국에 있는 상대방과 언제라도 즉시적으로 연락할 수 있게 해 주면서, 상대방의 사회적 현존감(내 social presence)⁵⁷⁾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즉, 지형은 썸남이 떨어져 있어도, 항상 그를 가깝게 느끼고 친밀하게 느끼는 것이다.

한편, 카카오톡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민아는 문자에 비해 카카오톡이 부담이 적다고 했다. 이는 이모티콘과 관련한 부분이었는데, 연구자는 이러한 부분이 흥미로워 민아에게 추가로 질문해 보았다.

민아: “(카톡은) 내가 만약에 먼저 연락을 하더라도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연구자: “부담감이 적다는 건 어떤 면에서요?”

민아: “계속 썸을 타게 되면 제 **감정을 100% 보여주기가 싫잖아요.** 근데 카톡은 뭔가 **이모티콘도 많으니까 굳이 말을 안써도.** 막 요즘에는 그 움직이는 이모티콘으로 다 설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간편하다 그래야 되나? 뭔가 **100% 나를 너무 드러내지**

57) 사회적 현존감(social presence)이란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음”을 경험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매개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관여(psychological involvement)”로 이해될 수 있다 (황하성, 2007, 537쪽).

않고 그냥 이모티콘으로 감정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부담이 덜 되고 뭔가 더 손해 안보는 느낌? 그러니까 계속 뭔가 약간 간 본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귀엽게 계속 진짜 나의 좋아하는 마음을 약간 가릴 수 있는 수단? 그리고 말이 많아지면 좀 찌질해 보인다 그래야하나.”

곧, 민아에게 있어 카카오톡은 적절한 이모티콘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노출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문자에 비해 부담스럽지 않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된다. 감정 표현을 문자로만 할 경우 이는 자칫 진지해지거나 상대방에게 나의 온전한 마음을 다 드러낼 수 있다. 하지만 말을 삼가고 말로 했어야 하는 부분들을 이모티콘으로 소위 ‘때우면서’, 나의 감정을 적절한 선으로 조절해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개인에게 있어 이는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손해 보지 않는’ 감정 표현의 수단이 된다. 이모티콘의 이용은 때때로 특정한 상황에서 ‘말’의 필요성을 소거해 주기 때문이다. 결국 민아에게 있어 이모티콘은 오히려 상황적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나의 감정을 비언어적 단서⁵⁸⁾(nonverbal cue)로서 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효과적이고도 내가 ‘손해 보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것이다.

(2) SNS ‘좋아요’를 통한 지속적인 ‘나의 존재 알리기’

연구자는 카카오톡을 통한 직접적인 연락 외에도, 이들이 SNS를 통해 간접적으로 상대와 지속적인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는 SNS의 ‘좋아요’ 기능을 통한 것인데, ‘좋아요’를 누를 경우 상대방에게 알림이 가기 때문에, 굳이 직접 연락을 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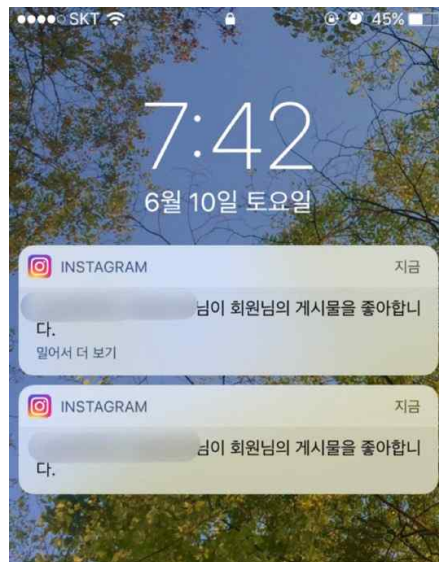
58) 텍스트 중심의 CMC(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의 상황에서는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의 표정이나 눈빛, 말투 등과 같은 비언어적 단서(nonverbal cue)가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용자들은 기호를 조합해 비언어적 단서를 극복하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모티콘이라 할 수 있다(황하성·박성복, 2008).

이 가능하다(〈그림 7〉 참조.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누를 경우 메시지가 온 것처럼 알림이 뜬다).

민재는 이러한 ‘좋아요’가 상대방에게 하나의 알림으로 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자신도 이러한 ‘푸시 알림’을 설정해 놓았다고 했다. 곧 민재에게 있어서는 ‘좋아요’가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연락이 끊기는 공백의 시간까지 채워 주는, 간접적인 연락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민재는 썸녀와 거의 하루 종일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그림 7〉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의 알림

*출처: 개인 소장



또한 이러한 ‘좋아요’는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나의 존재를 알려 주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인터뷰이들은 “썸”의 상대방과 서로 ‘좋아요’를 눌러주며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이 여기 있음’을 표현하고 있었다. 민재는 상대가 무엇이든 올리면 자신은 ‘좋아요’를 눌렀는데, 이것이 상대방에게 “내가 계속 여기 있음”을 알려 주는 수단이라 했고, 지형 또한 “내가 여기 있어 정도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 했다. 전술했듯이

개개인은 이러한 SNS 상에서의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하는 존재이다(이재현, 2016). 따라서 이때의 ‘좋아요’의 행위도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나의 존재를 알리는 수단으로 작용하는데, 이것이 특히 “썸”의 상대방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는 더욱 적극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SNS 상에서의 ‘좋아요’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의례”로 이해된다(이수현·한준·하홍규, 2014). 따라서 특히 “썸”의 상대방에게 있어 이러한 ‘좋아요’는 호감 표현의 수단이 된다. 인터뷰이들은 게시글이 좋지 않아도, 일단 상대방이 게시글을 올리면 무조건 ‘좋아요’를 누른다고 했다. 민재는 다른 사람이 올린 것들은 자신이 보아 가면서 ‘좋아요’를 누르지만 상대방이 올릴 경우 “일단 누르고 본다”고 했고, 민아의 경우에도 일단 ‘좋아요’는 일단 썸남에게 “다 눌러주는” 것이다. 민아는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의 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았을 때에는 ‘왜 안 눌렀지’라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곧 이러한 측면은 ‘좋아요’가 SNS 공간에서 호감 표시의 의례로서 기능하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서로간의 호감의 척도로서도 기능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이러한 ‘좋아요’는 상대방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 가장 부담을 줄여 주는 수단이기도 하다. 인터뷰이들은 이것이 호감 표현의 측면, 그리고 연락 자체의 측면 모두에서 가장 부담이 덜한 방법이라 말했다. 즉,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보다도 가장 덜 부담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민재: “뭔가 **다이렉트로 ‘호감 있어요’는 아니고** 그냥 은연중에 계속, 내가 계속 여기 있음? ... 카톡을 하는 거 같진 않지(좋아요가). 부담 면에서. 그냥 ‘너에게 관심 있어’ 이런 정도의.”

지형: “약간 그냥 **연락해서 hello하긴 어색하고?** 그냥 ‘**좋아요**’ 한번 눌러서 ‘**내가 여기 있어**’ 정도를 상기시켜 주는? DM보내거나 그러기엔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할 애기도 없고.

약간 그 단계. 전화하기엔 어색하고 카톡이 좀 편하고. 그거보다 좀 전단계인 ‘좋아요’?”

이처럼 이들에게 있어 ‘좋아요’는 상대방에게 ‘어색하지 않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부담을 줄인 호감의 표현이자 연락의 방식이다. 지형의 설명에 따르자면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연락의 수단은 ‘전화 > 문자 > 카톡 > 좋아요’ 순으로 부담이 적어진다. 결국 인터뷰이들은 기존의 전화나 문자와 같은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진지하고 부담스럽게 다가가기보다는, 부담스럽지 않고 캐주얼하게 다가가기 위해 카톡, 또는 SNS의 ‘좋아요’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은 곧 개인들이 자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연락의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즉, 이는 이들에게 있어 투자해야 할 노력과, 연락에 따른 위험 감수 또한 가장 적어지는 연락 수단인 것이다. 개인은 전화 같은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운’ 연락수단을 채택하기보다는 간편한 ‘좋아요’ 정도로서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이들에게 있어 이러한 연락은 ‘간편함’을 제공해주고 동시에 부담을 줄여주는데, 이때의 부담은 두 가지의 맥락에 있어서의 부담이다. 하나는 ‘상대방에게 나의 호감’을 알리는 감정적 부담, 다른 하나는 실제로 개인이 취하는 노력의 부담이다. ‘좋아요’와 같은 연락 수단은 이러한 두 가지의 부담 모두를 완화시켜주는데, 즉 상대방에 진지하게 다가가기보다는 ‘가볍게’ 다가갈 수 있게 해 주는 동시에, 이를 ‘적은 노력의 투자’로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다.

지형과 민아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없었다면, “썸”이 힘들었을 거라 말한다. 이들은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필요했던 것’이고, 이것이 “썸”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본다.

지형: “근데 썸은... 거의 95프로는 그 수단이 있으니까(가능한 것 같아). 5프로는 내 감정이라고 하면.”

민아: “없었으면 잘 안 됐을 것 같은? 카톡은 당연히 필요했던 거 같

고. 왜냐면 그런 뭐라그러지? 뭔가 카톡 자체가 이미 플랫폼이 어려운 그런 게 아니고 되게 **쉽게쉽게 접할 수 있는거고?** 뭔가 뭐. ... **문자 이런것 보다는.** 이제는 다 카톡이 워낙 대중화가 돼 있으니까.”

곧 지형과 민아가 언급한 것처럼, ‘카카오톡’이라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이들에게 “썸”이라는 관계맺음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과의 연락을 ‘쉽게’ 해 줄뿐더러, 지형의 경우 해외에 있는 썸남과의 연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해 주는 수단인 것이다. 지형은 만약에 SNS가 없었다면 이러한 관계는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라 말한다.

연구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SNS 이런게? 개랑 지금까지 연락했을까?”

지형: “못할 확률이 높지. 연락 못하지. **국제전화까지 할 사이는 아나** (웃음). **그렇게까지 투자할 건 아니고.** 그리고 국제전화는... 뭐 걱정하고 앉아서 해야 되잖아. 그리고 뭔가. **너무 격식이 있어.** 유선전화라는 것이. 그건 시간 맞추기도 쉽지 않고? 요금도 무시 못하고. 근데 그렇지 않고 **캐주얼하게 하려면...**”

즉, 지형은 상대와의 관계가 ‘그렇게까지 투자할 것은 아나’라고 했다. 시간을 맞춰야 하는 번거로움, 진지한 연락, 비용 등 그러한 노력을 통해 유지될 정도의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곧 과거였다면 “썸”의 관계로 지속되지도 않았을 그와의 관계가, 언제든 간단하고 즉시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SNS로서, 끊기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적은 투자로도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해 주는 ‘카카오톡’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이들에게 있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경제적이고도 합리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점은 곧 노력과 부담이 소거된 테크놀로지 기술이 “썸”이라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3) 연애했 때와 다름없는 데이트

실제적인 데이트와 관련해서, 이들은 상대와 수시로 연락하는 것과 더불어 연애했 때와 다름없는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 데이트의 횟수와 형태도 연애했 때와 다름이 없었다.

민아: “거의 **일주일에 4번? 퇴근하고**, 주말에는 뭐 쉬면 보고, 아니면 퇴근하고 보고 오고. **만나면 그냥 커플이에요.**”

민준: “A랑은 만나서 **밥 먹고 술** 먹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영화** 보고 뭐 하고 자연스럽게 술 먹는 경우도 있고. **미술관** 갔다가 돌아다니다가 술 먹는 경우도 있고. B랑은 **카페** 가서 공부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카페 가서 서로 같이 책 보다가? 영화 보고? 괜찮으면 뭐 **맥주나 술** 한잔 먹고.”

곧 이들은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남자친구/여자친구와 하는 데이트와 다름없는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 인터뷰이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데이트 플롯’에 따르는 만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퇴근 후 데이트를 하거나 주말에 따로 시간을 내어 데이트를 즐겼고, 취준생이나 대학생의 경우 일상적으로 소소한 커피, 밥, 술 등의 데이트를 즐겼다. 이러한 측면들은 곧 이들이 ‘연애’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맥락의 이성 관계를 실천하고 있음을 알려주는데, 곧 데이트만 놓고 보자면 ‘연애’와 “썸”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4) 선택적 스킨십

이들의 ‘연애’에서의 데이트와 “썸”의 데이트는 그 형태에 있어 별반 차이가 없었지만, 스킨십의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썸”에서 스킨십은 절대 불가라는 인터뷰이가 있었던 한편, 스킨십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터뷰이들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실제 이들의 스킨십

의 모습을 보자면 11명 중 7명이 “쌈” 단계에서 스킨십을 가졌고, 오직 민재만이 “쌈”에서 스킨십이 불가하다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이들의 스킨십 유무, 허용 가능 정도를 정리한 표이다.

〈표 3〉 인터뷰이들의 스킨십 유무와 허용 가능 정도

이름	성별	유	무	정도	허용가능
지형	여	-	○	-	키스
은경	여	-	○	-	손
민재	남	-	○	-	X
시은	여	○	-	성관계	성관계
민아	여	○	-	성관계	성관계
지훈	남	-	○	-	성관계
현준	남	○	-	성관계	성관계
서현	여	○	-	성관계	성관계
준혁	남	○	-	성관계	성관계
민준	남	○	-	가벼운 터치	성관계
예원	여	○	-	성관계	성관계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다수의 인터뷰이들이 “쌈”에서의 스킨십에 있어 관대한 태도를 보였는데, 11명의 인터뷰이들 중 8명이 성관계까지 허용 가능하다고 말했고, 이들 중 6명은 실제로도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 스킨십에 있어 인터뷰이들은 두 가지의 갈래로 갈렸는데, 상대적으로 스킨십에 관대하지 않은 지형, 은경, 민재, 그리고 성관계까지 허용 가능한 나머지 인터뷰이들로 나뉜 것이다. 이중 지형, 은경, 민재는 스킨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형: “스킨십이 없어서 너무 좋았어.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연인 관계가 아니다’라는 걸 확신 시켜 주는 거였거든.”

은경: “저는 만약에 그분(썸남)이 뭔가 저한테 적극적인 스킨십을 했더라면. 거기서 스텝을 하고 얘기를 했을 거 같아요. 이게 무슨 관계냐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냐고.”

민재: “무슨 소리야. 나는 완전 노터치. 썸 탈때는 손도 잡으면 안 돼.”

즉, 이들에게 있어 스킨십은 “썸”과 ‘연애’를 구분짓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들은 스킨십을 할 경우 어떠한 관계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한 것이 없을 경우 “썸”이어도 연인 관계가 아니라는 확신이 든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인터뷰이들은 이와 달랐다.

시은: “저는 솔직히 진지한 연애를 하기 전에 자보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파트고. 그게 맞지 않으면 건강한 연애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거나 이런 편은 아니예요.”

민아: “스킨십을 했다고 해서 관계에 책임감을 느끼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둘이 뭐 정신적이라든지 육체적으로 그걸 하고 싶어서 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막 부담은... 그 순간에 하고 싶으니까 한 거지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진 않아요.”

지훈: “심지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왔는데 썸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고, 또 애들끼리는 그렇게 하는 거 같더라구요. 저같은 경우도 (스킨십이) 이렇게 여기까지다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현준: “스킨십은... 그때그때 다른 거 같아요. 그니까 뭐 자연스럽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뭐 그런 뭔가 교감과 그런 게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이래서 해야 된다 이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뭔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스킨십도 어떻게 보면 소통인 거잖아요.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꼭 뭐 이렇게 하면 해야 돼. 안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인 둘이서 알아서 둘 다 좋으면 이루어지는거고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저는 룰은 없어요.”

준혁: “저는 그런 데에 대한 **제약은 없는 것 같은데...** 연애 이전에 뭐 상관관계까지도 있었어요.”

민준: “**서로 마음이 있는 게 확실하면 손을 잡든 뭘 하든 선은 크게 없는 거 같아요.** 이게 서로 진짜 마음이 있는 게 확실하면, 그러면은 상관 없는 거 같아요.”

예원: “저는 이거랑 **사귀는 거랑은 상관없거든요.**”

이렇듯 이들에게 있어 스킨십은 “썸”과 연애의 분기점이 아니다. 마음만 맞으면 스킨십에 제약은 없을뿐더러, 이는 상대방을 알아가는 과정이자 ‘연애 전 확인을 해 보아야 하는 요소’로서도 생각되고 있던 것이다. 연구자는 인터뷰이들에게 그렇다면 스킨십을 했을 경우 상대방이나 관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지를 질문하였는데, 대부분의 인터뷰이들이 스킨십은 ‘본인의 책임’이라 답했다. 대표적으로 현준과 지형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현준: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랑은 아무 상관 없는 거잖아요. **나에 대한 책임인 거죠.** 본인 마음 잘 보호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오케이. 뭘 해도 오케이.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지 없는지.**”

지형: “근데 솔직히 나는 스킨십은 내가 상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보다 그건 **나 자신에 대한 책임**이야. 스킨십이라는 게 남자가 나랑 손을 잡았어. 그러면은 남자가 나에 대해서 손 잡은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손을 잡았지만 헤어져도**

괜찮다'라는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손을 잡아야 되는 거야.
내가 내 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야. 이 사람한테 나에 대한 책임을 넘기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랑 원나잇을 하든 뭐 사귀고 나서 그런 관계를 가지든 손만 잡든 아무것도 안하든 그건 나의 자유고 내 선택이고 상대방이 합의만 되면 상관없어. 그거를 가지고 약간 무책임하다... 무책임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건간에 원나잇까지 상관없어' 이거는 무책임한건데 '합의된 상대방의 원나잇은 상관없어' 라는거는 그렇게 무책임한 것 같진 않아. 그게 결국에 자기 몸에 대한 자기의 권리잖아.”

이러한 부분은 결국 이들에게 있어 스킨십은 더 이상 어떠한 구속력을 갖는 행위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관계 요소라는 점을 말해준다. 곧 개인에게 있어 성관계는 이제 재생산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하나의 자율적인 선택의 문제가 된 것이다.

특히 연구자가 인터뷰했던 여성들 중 꽤 많은 인원(6명 중 4명)이 성 관계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였고, 이를 연구자에게 말할 때에 있어서도 전혀 거부감 없는 태도를 보였다. 연구자는 오히려 이들이 불편할까 봐 질문의 시점을 가늠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당당하게 자신의 경험에 대해 얘기하였고, 예원의 경우 오히려 “스킨십도 물어보실 거죠?” 라며 연구자에게 먼저 자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연구자는 이것이 이제 여성이 자기의 몸에 대한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어떠한 ‘관계’의 구속으로부터도 벗어나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주장하게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곧 ‘혼전순결’을 주장했던 과거의 결혼으로부터 나아가 이들은 자신의 성적 실천에 대한 권리를 자유롭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곧 이들이 스킨십을 하나의 별개의 실천으로서 이해하는 것은 성적 실천이 하나의 구별적인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음을 제시해준다. 즉, 이제 스킨십이 ‘결혼’이라는 관계뿐만 아니라 ‘연애’라는 관계로부터도 떨어져 나온 것이다. 스킨십이라는 성적 실천은 결혼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

니고, 또 상대와 ‘연애’를 해야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연구자가 인터뷰한 개인들에게 있어서 이는 어떠한 관계의 맥락과도 구별될 수 있는 ‘별개의 실천’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었고, 이들은 ‘연애’가 아닌 “썸”이라는 관계 내에서도 이러한 인식으로서 스킨십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2. ‘밀기(push)’의 전략

이들의 ‘당기기’의 전략은 전술했듯이 적절한 인상의 관리, 지속적인 연락과 데이트를 통한 호감 관리였다. 그렇다면 이들의 ‘밀기’의 전략은 어떠한가? 즉, 이들은 상대방을 호감으로 당기는 한편, 어떻게 이를 밀어내면서 ‘연애’로 넘어가지 않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가? 본 절에서는 이들이 연애로 넘어가지 않고 “썸”에 머무는, 관계유지의 전략에 대해 탐구한다.

1) 금기어 “사귀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연구자는 관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 인터뷰이들에게서 공통되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소위 할 건 다 하더라도, “사귀자”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의 관계가 연인이 아니라 했다. 즉, 이들에게 있어 “사귀자”의 선언은 관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말이었던 것이다. 많은 인터뷰이들이 “썸”과 ‘연애’의 분기점이 “사귀자”의 확인이라 했다.

서현: “사귀자는 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거를 말로라도 정확히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지형: “양 당사자간의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합의?”

민아: “사귀자”

예원: “한쪽이 사귀자고 해서 요이땅 하는거”

은경: “(“썸”)은) 둘 다 직접적으로 ‘우리 사귀는 거 맞아?’ 뭐 이렇게 정식으로 우리 뭔가 ‘연인 관계인가?’ ‘커플인가?’ 이렇게 얘기

를 하지 않는 관계?”

이처럼 이들은 “사귀자”, “여자친구”, “남자친구”, “커플” 등의 어떠한 선언(declaration)으로서 정의되지 않은 관계를 “썸”이라 말했다. 즉, “사귀자”의 공식적인 선언이 없으면 이는 ‘연애’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이들에게 있어 “사귀자”라는 말은 하나의 “언어 행위(speech act)”로서, ‘이제 우리는 연인 관계로 돌입한다’라는 상태의 변화를 초래하는 “발화 수반행위(illocutionary act)”⁵⁹⁾(Austin, 1975/1992)로 기능한다. 즉, 이들에게 있어 ‘연인 관계’의 중요한 구분은 정신적 교류나 행위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귀자”의 공식적인 선언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사귀자”의 발화 행위로서 관계가 구분되는 것이 한국만의 독특한 양상이라고 생각하였다. 사실 이러한 고백이 없더라도,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을 경우 개인이 이를 ‘연인’ 관계라고 인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자가 인터뷰한 개인들의 경우 대부분이 이러한 발화를 기점으로 관계를 파악했고, 실제로 성관계까지 스킨십을 진행한 경우라도 이러한 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했다. 결국 한국에서 상대와의 ‘연애’를 구분하는 기준은 호

59) 오스틴(Austin, 1975/1992)은 그가 체계화한 언어 행위론(speech act theory)에서 발화에는 일반적인 상황의 기술, 또는 진술의 문장이 있음과 동시에, “발화를 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수행적 문장(performative sentence)”이 있음을 제시하였다(27쪽). 즉, 결혼식에서의 ‘I do(네)’의 선언, 유언장에서의 유증, 사물에 대한 명명과 같은 것들은 모두 단순히 상황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말을 함으로써’ 곧 이러한 행동을 ‘수행’하는 “수행적 발화(performative utterance)”라는 것이다(26-27쪽). 오스틴은 이러한 발화를 locutionary act(발화행위), illocutionary act(발화수반행위), 그리고 perlocutionary act(발화매개행위)로 구분하였는데, 이때 locutionary act는 발화 그 자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illocutionary act는 약속, 명령, 질문 등과 같이 무언가를 말하는 중에 행하는 행위, 즉 언표를 함에 있어 어떤 특별한 의도를 뜻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perlocutionary act는 설득하고, 확신시키고, 두렵게 하고, 깨우치게 하는 등과 같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도록 실제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이효성, 2015). 논문에서의 “사귀자”의 경우 성혼 선언과 같이 발화를 통해 ‘연인의 관계로 진입할 것’을 약속하는 illocutionary act로, “썸”에서 ‘연애’로 관계를 전환시키는 언어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감의 교류 정도가 아닌 “사귀자”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발화 행위가 갖는 효과는 준혁의 설명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준혁: “연애 관계? 그니까 ‘사귀자’라고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의 구속력? 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니까 좀 당위적인? 도덕적인?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어느 정도 상대방한테 굉장히 진실해야 된다고 보는데 썸이라는 건 사실 그런 걸 요구하지 않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대의 기분에 맞는 말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도 있고.”

곧 이들에게 “사귀자”의 언어 행위는 당위적인 ‘연인’으로서의 구속력이 작동하는 관계로 이들을 돌입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터뷰이들은 “썸”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언어 행위를 피하고, 또한 그러한 말이 유도될 수 있는 상황도 피하고 있었다. 즉, 이들은 ‘연애하지 않기 위해’ 발화 행위를 조절하고, “사귀자”라는 말을 삼가고 있었던 것이다.

2) 뜨겁지 않아야 하는 호감 표현

인터뷰이들은 또한 “썸”의 관계를 종료시키지 않기 위해 관계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고 있었다. 민재와 준혁은 상대방에게 자신들의 직접적인 감정 표현을 조절했는데, 즉 “좋아해”라거나 “사랑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었다.

민재: “서로 감정에 대한 얘기는 잘 하지 않는 게 연애와 다른 것 같아. 자꾸 떠보기는 해. 근데 그렇다고 이것을 수면위로 툭 올리면서 ‘나 너 좋아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거는 내가 책임을 다시 져야 되는 관계로 재정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떠보기만 하고 그 이상으로 나도 안 넘어가는거지.”

준혁: “**강한 건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같이 놀아서 좋다’ 뭐 아니면 ‘어디 가보니까 거기 가보니까 니가 제일 예쁘더라’ 뭐 ‘니가 제일 잘생겼더라’ 약간 이런 류의 서로의 어떤 외모에 대한 칭찬이나, 아니면 어떤 **요소요소에 대한 어떤 호감 같은 걸 표현을 할 땐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 오늘 그게 되게 괜찮았다’ 뭐 ‘어떤 배려를 해줬는데 그게 고마웠다’ 약간 요런 류의 얘기들은 하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뭐 ‘사랑한다’** 뭐 **약간 이런 표현은 없는?**”

곧 준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외모에 대한 칭찬, 함께 했던 데이트에 대한 소감 정도로만, ‘강한 건 하지 않도록’ 상대방과의 감정 표현을 자제하고 있고, 민재에게 있어 ‘좋아해’의 고백은 상대와의 관계를 전환시키는 것이다. 즉, “썸”에서 이것이 ‘책임 져야 하는 관계’로 재정립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재는 상대를 ‘떠 보는 정도’의 호감 표현만 하면서 발화를 조절하고 있다. 결국 이들은 서로 적당한 호감 표현도 하고 칭찬도 하지만, 결국 ‘연애’라는 관계의 정립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발화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민준의 경우에는 강한 호감 표현은 물론이거니와 약속을 잡는데 있어서 상대가 ‘데이트 요청’이라고 느낄 만한 부분들을 삼가고 있었다. 민준은 상대에게 직접적인 어떤 요청을 할 경우, 이것이 ‘데이트 하러 가자’는 느낌이 들까봐 부담스럽다고 했다.

민준: “B(두 번째 썸녀)같은 경우는 서로 ‘**야 어디가서 뭐 볼래**’이렇게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뭔가 말하기가. 약간. **그냥 대놓고 ‘데이트하러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인 거 **같아요.** 어디 가서 보자. 뭐 하자. 이런 식으로 말하기 좀 그래서. **보통 그냥 어디가서 뭐 카페가서 공부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자: “뭐 보러가자 이러면 데이트 신청하는 거 같아서 좀 불편해요?”

민준: “네네 그런 거 같아요. 그니까 이런 거예요. 같이 공부하자 해가지고 만나서 얘기하다가 ‘이거 재밌다’ 그래서 영화보러 갈 순 있어요. 근데 처음에 볼 때 ‘**영화 보자**’ 이래가지고 만나긴 좀 그

런. 너무 대놓고 하자고 하는 거 같아서. 애도 좀 부담스러워 할 거 같고. 그래서 그런 거죠.”

결국 ‘데이트’로 인식할까 봐,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것 같아서, ‘책임 을 져야 되는 관계’로 재정립이 될까봐 상대방에게 강한 호감 표현은 물론 “사귀자”고 말하지 않는 이러한 사례들은, 이들이 표현의 통제를 통해 “썸”을 위한 “썸”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개인은 ‘연애’로 넘어갈 수 있을만한 발화를 조절하며, “썸”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개인이 스스로의 통제를 통해 하나의 독립적인 관계로서 “썸”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썸”은 연애의 전 단계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관계로서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몇몇 인터뷰이들은 상대와 이러한 관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를 하기도 했는데, 연구자는 다음에서 이들의 사례를 다룰 것이다.

3) “썸”의 명시적 합의

상황에 따라 “썸”은 명시적으로 합의되기도 하는 것이었다. 이는 크게 두 가지의 양상으로 합의되고 있었는데, 첫째는 상대가 “사귀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그 관계에 머무는 경우, 둘째는 아예 서로가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자’를 합의한 경우이다.

시은과 예원의 경우 전자의 사례인데, 이들은 모두 소개팅으로 만난 상대 남성이 “사귀자”고 제안했으나, ‘아직은 잘 모르겠다’며 이를 거절했다.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각각 달랐지만⁶⁰⁾, 결국 이들은 상대와의 현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귀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상대와 “썸”의 관계만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썸”의 상대방들 또한 이러한 시은과 예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들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준혁과 민아의 경우는 조금 다른 사례이다. 이들은 아예 상대방과 ‘이러한 관계에 머물 것’을 합의했다. 이는 상대방과의 “썸”이라는 관

60) 이에 대해서는 제 6장 <“썸”의 실천논리>에서 다룰 것이다.

계를 서로 전면에 드러내고, 이러한 관계 유지를 명시적으로 합의한다는 점에서 관계를 암묵적으로 유지하는 다른 “쌈”과는 구별된다. 먼저 민아의 경우 현재 “쌈”을 타고 있는 두 남성과 모두 어느 정도 관계에 대해 합의를 한 상태이다. 연구자는 먼저 A 남성과 어떻게 합의를 했느냐고 물었고, 민아는 상대 남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다음과 같은 얘기가 오갔다고 한다.

민아: “(A가) 나는 되게 너가 좋은데 나도 지금 군대에 있고 나중에 해외로 나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자긴 적극적으로 관계를 시작하자고 말은 못하겠는데 그냥 좋다. **그냥 몰 흐르듯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해 주는 거예요.”

연구자: “그렇게 얘기 들었을 때 민아씨는 어땠어요?”

민아: “**마음이 편해졌어요.** 왜냐면 완전 딱 약간 **깔끔하게 어느 정도 될 원하는지 얘기해 줬으니까?**”

곧 민아는 상대와 현실적인 상황, 즉 상대가 현재 군대에 있고 전역 이후로는 해외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쌈”의 관계를 합의하고 있었다. 서로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연인과 다른없는 데이트를 하지만 합의를 통해 서로 ‘연인’이 아닌, 자유로운 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민아는 B와도 이러한 명시적 합의를 한 상태다.

연구자: “그럼 B와는 어떻게 합의를 하신 거예요?”

민아: “그냥 그... **이 관계에 대해서 말을 짝 했어요.** 근데 오히려 서로가 편해진? **굳이 안 사겨도 서로가 편한 상태?** 괜찮은 거 같아요. 지금 잘 보고 있고, 편하게. 약간 친구 이상이긴 한데. **거의 사귀는거나 마찬가지로 오피셜하지는 않은?**”

결국 민아는 현재 A와 B 모두와 이러한 합의를 한 뒤 “쌈”을 이어가고 있다. 연구자는 민아가 이러한 관계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오히려 민아는 이것이 “깔끔하고”, “편한” 관계라 했다. 즉, 상대방과 합의를 한 이상, 관계에 있어 더 이상 신경 쓸 것이 없다는 것

이다. 연구자는 민아에게 그렇다면 서로 다른 이성의 존재가 걸리지는 않냐고 질문하였는데, 민아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민아: “이미 열린 관계로 애기가 끝난거라. 질투는 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나랑 사귀는 건 아니니까.”

곧 상대방이 다른 이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 질투는 나지만 상대가 나와 사귀는 것이 아닌 이상, 이는 서로 간섭할 수 없는 개인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민아의 관계는 각자 개인의 영역, 심지어 성적 실천의 영역에 있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건드리지 않는,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맺음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준혁의 경우에도 이러한 관계를 약 1년 이상 지속한 적이 있다. 준혁은 이 여성과 데이트도 하고, 스킨십도 자유롭게 하고, “사랑해”라는 호감 표현도 하면서 ‘연애’하지는 않았다. 준혁의 경우 상대 여성과 “사랑해”라는 호감 표현이 가능했던 이유는 상대와 그러한 관계에 대해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즉, 상대와 암묵적인 “썸”의 관계라면 그러한 표현은 관계를 다음 단계로 전환시키는 발화가 되지만, 준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기’로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호감 표현이 가능한 것이다. 준혁은 이러하면서도 상대와의 관계가 “연애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연구자가 그렇다면 왜 사귀지 않았냐고 질문하였을 때, 준혁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준혁: “둘이 한명만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복수의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약간 다른 사람을 만나는 상태를 추가로 계속 늘리고 싶어했던 거 같아요. 그 친구가 아무래도 여러 사람을 만나고 싶어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일대일 관계를 맺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까지는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관계를 가졌던 거 같아요.”

즉, 준혁의 경우 아예 상대와 서로 다른 이성을 추가로 만날 목적으로

이러한 관계를 연애가 아닌 “썸”으로 합의한 것이다. 연구자는 준혁에게 이러한 관계가 힘들진 않았냐고 질문했는데, 준혁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준혁: “**별로 안 힘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귀고 싶다는게, 어느 정도 고정된 관계에서는 안정감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별로 누군가와 ‘사귀다’라는 거 자체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는 사람 같진 않아요.** 그때 느꼈던 거(상대방이 다른 이성을 만났을 때)는 좀 질투에 가까운 거 같아요. ‘나는 다른 사람을 안 만나고, 못 만나고 다니는데 너는 되게 다른 사람 잘 만나고 다니다.’ 약간 요런 식의 감정이었지 뭐 **‘애’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힘들었다 이런 거는 실제로 없었던 것 같아요.**”

곧 준혁과 민아 모두 상대와 굳이 일대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이성과의 관계도 허용하는 이러한 관계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는 개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또 다른 이성의 개입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계는 얼핏 비독점적 다자연애⁶¹⁾인 ‘폴리아모리(polyamory)’⁶²⁾의 형태와 닮아 있다고 생각하였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썸”에서는 서로를 ‘연인’으로 칭하지 않고, 다른 이성의 존재를 상대방에게 ‘굳이’ 공개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폴리아모리의 경우 서로가 상대를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로 칭할 수 있고 다른 이성이 생길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가감 없이 공개해야 하지만, “썸”에서는 서로가 상대의 ‘연인’이 아니고, 연인이 아

61) 다자연애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웹툰이 있다. “독신으로 살겠다”(2013. 1. 2~)라는 네이버 웹툰인데, 이는 35세 미혼 여성의 다자연애 이야기를 다룬다. 당시 우스갯소리로 19금이 아니라 ‘30금’ 웹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파격적인 이야기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논란만큼이나 큰 설득력을 얻으며 인기를 끈 바 있다.

웹툰 페이지: URL: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530312>

62) 폴리아모리(polyamory)는 “두 사람 이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다자간 사랑을 뜻하는 말이다. 폴리아모리를 지향하는 이들은 일부일처제를 비판하며, 일부는 집단혼 형태로 가족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출처: 두산백과사전, UR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49192&cid=40942&categoryId=31611>

니기 때문에 다른 이성의 존재를 굳이 공개할 의무도 없다. 곧 이는 관계의 정의와(연인 vs 연인이 아님), 다른 이성의 공개(공개 vs 굳이 공개하지 않음)의 맥락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비독점적 다자연애의 양상을 띠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폴리아모리라기보다는 개인들간의 합의에 따른 “쌈”의 지속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5장. “쌈”의 관계인식

앞 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들이 이렇듯 행위의 측면에서 “쌈”을 실천하고 있었다면, ‘인식’의 측면에서는 어떠한가. 즉, 이들은 이러한 관계를 ‘어떠한 관계’로서 인식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본 장에서 연구자는 이들이 이러한 관계를 어떠한 관계로서 인식하는지를 알아보고, 관계의 실천 양상과 더불어 이를 통해 “쌈”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이해를 해 보려 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본 장의 마지막 절에서 관계의 형태를 제시해볼 것이다.

제 1절. ‘연애의 부담’은 없으면서 ‘연애 감정’은 누릴 수 있는 준(準)연애 관계

1. 연애의 부담

연구자가 이들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냐고 질문하였을 때, 이들이 공통적으로 답한 것이 있었다. 이는 “연애의 부담은 없지만, 연애의 감정은 느낄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할 것이 생긴다. ‘연애의 부담’은 무엇일까? 즉, 이들에게 있어 연애를 할 경우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부담은 무엇일까? 이는 어떠한 책임에 대한 부담인 것인가?

1) ‘연애하는 나’로서의 책임

(1) 상대방의 요구에 대한 책임

인터뷰이들은 만약 연애를 하게 된다면, ‘연애하는 나’로서 본인이 응당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즉, 본인이 상대와 연애를 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크게 다섯 가지의 부분에서 이러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중 첫째는 상대방의 요구에 대한 책임이다. 먼저 지형은 여자친구로서의 책임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형: “남자친구는 싫은 걸 강요해. 썸남은 싫은 걸 강요하지 않아. **남자친구는 뭔가 얘기하면 내가 들어줘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썸남에게는 내가 무언가 들어줘야 한다는 여자친구로서의 책임감이 없어. 그래서 그게 편하고.** 썸 관계에서는 서로의 생활이 있잖아. 근데 연인 관계에서는 내가 혼자였다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 보기 싫은 영화도 봐줘야 하고, 싫은 음식도 먹어야 하고. 그런 의무감이 있고 없고가 썸과 남자친구의 가장 큰 차이 같아. ... 나는 그게 너무 좋았어. 저녁을 내가 약속을 잡아. 근데 개(썸남)가 나한테 밥을 먹자 그래. 그럼 나는 개한테 ‘미안해’라고 말을 하지만 그랬을 때 **개가 ‘괜찮아’라고밖에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편했어.**”

곧 지형에게 있어 여자친구의 책임이란 ‘남자친구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 주는 것’이다. 먹기 싫은 음식, 또는 보기 싫은 영화도 ‘남자친구’가 원한다면 함께 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작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연인 간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 개인이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로서 상대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이는 개인에게 ‘불편한 일’이 된다. 내가 ‘여자친구로서의 도리를 다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형은 자신이 상대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했을 때 상대가 ‘괜찮아’라고밖에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편했다고 했다. 즉, 나도 의무감이 없고, 상대도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에서는 거절이 부담스럽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썸”이라는 관계는 상대방의 요구에 대한 책임감이 탈각된 관계로서, 이러한 요구에 대한 불편함 또한 소거된 관계라고 할 수 있겠다.

(2) 적절한 시간과 비용의 투자

또한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은 이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부담 요소다. 많은 인터뷰이들이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돈과 시간’을 꼽았다. 또한 특히 연인 관계의 수행에 투자할 시간자본과 경제자본이 부족한 이들에게 연애란, 현재에 있어 정상적으로 수행해나가기 힘든 관계이다. 특히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서현과 준혁, 그리고 수입이 일정치 않은 프리랜서 일을 하는 지훈에게는 이러한 부분이 더 막막하게 다가온다. 상대와의 관계 발전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맥락이기 때문이다.

먼저 서현의 경우 상대도 서현과 함께 취업을 준비 중인데, 서현은 그와 만나는 것이 ‘그냥 항상’ 부담이 되었다고 말한다. 연인은 아니더라도 호감 가는 이성과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함께 소비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하나의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것이다. “썸”의 경우에도 상대와의 데이트가 시간과 돈의 맥락에서 부담이 되는 서현에게 있어, ‘연애’는 더 생각해보기 힘든 선택지였다. 서현은 이러한 맥락에서 상대와의 관계 발전을 망설이고 있었다.

지훈의 경우에도 연애란 돈과 시간이 드는 일이다. 따라서 수입이 일정치 않은 지훈에게 있어 연애는 현재에 수행하기 힘든 각본이다. 지훈은 제작년에는 특히 경제적으로 힘들었었고, 현재에도 돈이 들어오는 게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연애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다. 결국 데이트 비용이라는 경제적 자본을 투자해야 실현이 가능한 ‘연애’라는 관계는, 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개인에게 있어 이러한 관계맺음 자체를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지훈은 스스로 ‘연애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 이는 지훈이 스스로 선택했다기보다는, 상황적인 맥락으로 인해 지훈이 이를 선택하게끔 된 관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준혁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스스로 상대와의 관계발전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준혁은 현재의 썸녀와 ‘희망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한다.

준혁: “(지금 썸녀와는) **딱 희망이 없네요.** 그니까. 뭐라 그러지. 제가 뭔가. 이건 좀 집안 경제적인 문제데. **어떤 연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게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집안의 어떤. **좀 경제적 문제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한동안 어떤. 내가 추가적으로 어떤. **정신이나 어떤 마음의 할당을 할 수 있는 여분이 없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상태예요.”

준혁의 경우 경제적인 맥락으로 인해 상대와의 관계 발전에 대한 희망이 차단되고 있었다. 준혁은 현재 정신의 여유,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말하는데, 곧 호감이 가는 상대방에게 온전히 감정을 쏟을 수 있는 상황적인 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준혁에게 있어 경제적 부담은 상대방과의 미래를 생각하는 데 있어 하나의 가림막으로서 작용하면서, 준혁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미래를 꿈꾸지 않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적 압박, 시간과 비용의 문제는 개인에게 있어 강력한 자기통제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곧 개인은 현재 자신의 상황 외 다른 곳에 시간과 비용을 들일 여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상대와의 관계 발전을 스스로 억제하고, 이를 조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이 개인에게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은, 개인이 관계의 포기라는 선택을 ‘스스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이는 ‘해 봤지만 안 되더라’가 아닌, 아예 그러한 시도 자체를 해 볼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시켜 버리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회, 경제적 요건과 같은 외부적 요인들이 개인의 친밀성의 영역을 압박하고 있는 친밀성의 양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앞서 한국에서의 친밀성 영역의 맥락화를 시도하며 개인이 사회적인 여건 속에서 혼인, 출산과 같은 친밀성의 영역을 스스로 조절해 온 양상을 살펴보았다. 연구자가 파악하기로는 시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상대와의 관계를 ‘연애’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썸”이라는 관계에만

머무르는 이들의 모습은,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출산을 조절하고, 혼인을 기피해왔던 한국에서의 친밀성 조절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개인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닌 다른 여건들로 인해 상대와의 관계를 ‘연애’로 발전시키지 않고, 이러한 “썸”의 관계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과거부터 이어진 사회적인 압박에 따른 친밀성의 조절 양상이 현재의 한국, 그리고 특히 소위 “N포세대”로 칭해지는 청년세대들의 관계맺음에서 발현한 것이 “썸”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 절로 넘어가기 이전에, 연구자는 연애의 시간과 비용에 대해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앞서 연구자가 4장 <“썸”의 실천양상>에서 다루었을 때, 이들의 “썸”에서의 데이트는 연애와 다르지 않았다. 스킨십에 있어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 데이트의 형태는 일반적인 연애와 비슷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썸”은 괜찮지만, ‘연애’의 경우 그 비용이 부담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왜 ‘연애’한다고 하면 부담이 가중되는 것일까? 인터뷰이들은 다음과 같이 “썸”과 연애에 비용 차이가 있다 말한다.

준혁: “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둘 다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서로 그렇게 크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어느 정도 예의의 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소비나 이런 데 있어서 한정적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 맛있는 거 먹어봐야 기껏해야 2만원 짜리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연인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위한 부분을 할당을 해야 맞는 거니까. 그때는 경제적 안정이 없으면은 사실. 좀. 어렵죠.”

서현: “(연인 사이에서) 뭐 챙겨주고 이러면은 좀 부담이 될 거 같긴 해요. 기념일 같은 것도 그렇고? 뭔가 어디 체험하고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막 거의 아까 인형뽑기 같은 것도 그냥 맨날 게임? 그런 거 요즘에 엄청 크게 생겼잖아요. 맨날 그런 거나 해요. 되게 소소하게 하는데. 지금 단계에는 뭐 참을지라도 사귀고 나면 더 서로 좋은 걸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더 서운함... 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지훈: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없으면은 그냥 안 만나면 되고,
그냥 애보고 사달라 그럴 때도 있고 그러는데... 뭔가 사귀게
되면 뭔가 내가 사줘야 될 거 같은 느낌이 강해서.”

곧 “썸”에서는 소비의 부분이 한정되어 있다. “썸”의 경우 상대에 대한 ‘예의’로서 애초에 적절한 소비 수준이 책정되기도 하고, 혹시 내가 부담이 된다면 상대를 ‘안 만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애의 경우 상대를 만나지 않기로 불가능할뿐더러, 기념일이나 이벤트 등과 같은 연애의 소비각본을 수행하기 위해 상대에게 써야 하는 비용이 할당된다. 즉, 연애의 ‘유지비용’이 부과되는 것이다. 연애의 유지비용이 높게 책정되는 것은 개인의 기대와도 관련이 있다. 즉 서현처럼 연애를 할 경우 “썸”에서보다는 ‘더 좋은 것을 하고 싶다’는 개인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훈의 경우 본인이 생각하는 ‘남자친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이 가중된다. 곧, 여자친구에게 ‘사줘야 할 것 같은’, 데이트에 있어서의 성 역할에 대한 생각이 지훈의 연애비용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훈은 ‘돈이 없으면 안 만나도 되고’, ‘돈이 없으면 상대에게 사달라고도 할 수 있는’ “썸”이라는 관계를 편하게 생각한다.

(3) 일상의 공유

많은 인터뷰이들이 “썸”에서는 상대에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감이 없다고 말했다. 즉, 연애의 경우에는 나의 일상을 모두 공개해야 하지만, “썸”에서는 상대방과 하루종일 연락을 하더라도 내가 연락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만 연락을 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은 “썸”의 관계를 의무감 없고, 자유로운 관계로 파악한다.

민아: “의무감 없는 그 상태가 좋아요. 내가 애한테 뭐... 내가 일일이 하는 걸 알려주고 아무리 하루 종일 카톡 하더라도 막 엄청 디테일하게는 안 하니까 그냥... 보통 남자친구가 되면 계속 되게 정말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근데 요거는 안 그래도 되고?”

예원: “**자유로움**. 왜냐면은 이 사람들(썸 타는 사람들)이랑 연락을 별로 안 하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다른 썸남들)을 만나도 다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누구 만나고 다니는지. 근데 **연애할 때는 워낙 올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하는지 서로 다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가 없었다 치면은 지금은 완전 자유로운 관계**이기도 한데.”

곧 이들에게 있어 ‘연애’라는 관계는 상대방에게 나의 스케줄을 일일이 알려줘야 하고, 상대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물어볼 경우 이에 대해 진실되게 대답해 줘야 하는 사이이다. 이들에게 있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고 있는 상대방은 상대적으로 ‘신경 쓰이는’ 상대이고,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을 방해한다. 따라서 이들은 그러한 의무감이 소거된 “썸”을 ‘자유로운 관계’로 여기게 된다. 나아가 준혁은 “썸”의 관계에서는 내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경우, 상대방과의 연락을 이어가지 않아도 ‘미안하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편하다 했다. 즉, 힘들 때 무조건 ‘내’가 우선 순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준혁: “예를 들어 **썸인 관계면은** 정말 막말로 내가 갑자기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여러 개 터지고 상황이 안 좋으면은 **그 사람 연락을 그냥 안 읽으면 되거든요**. 근데 **연인 관계**라는 거는? 그런 일이 터지면은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저한테 화가 났다든가, 아니면 다른 외부적 사건에 의해서 화가 나서 제 위로를 필요로 한다. 그럼 사실 다 들어 주고, 나 또한 힘든 걸 설명해 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연락이 어렵다. 라는 것까지 **설명을 해 줘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게 되게 힘겹게 느껴질 때가 좀... 있으니까**. 썸은 그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장점? 뭐. **편하다?** 그니까 (연애의 경우) 내가 힘들 때 이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한다는 그 관계의 정의가 싫어요.”

곧 준혁은 연애의 경우 내가 힘들 때에도 그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어떤 관계의 ‘정의’가 있다고 했다. 연락할 상황이 아닐 때에도 나의 힘들음을 그 사람에게 설명하고, 이를 이해시켜줘야 하기 때문이다. 준혁은 이러한 과정들이 ‘힘겹다’고 말한다. 따라서 준혁에게는 내가 바쁠 때, 또는 굳이 연락하고 싶지 않을 때 이를 제쳐놓을 수 있는 “썸”이 편한 것이다. 연인으로서의 그러한 의무감이 탈각된 이러한 관계는 상대가 아니라 오로지 ‘내’가 중심이 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결국 상대에 대한 배려 의무가 소거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계는 편한 관계이다. 또한 특히 상대에게 마음을 쓸 상황적인 여유가 없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썸”은 더욱 편한 관계가 된다. “썸”에서는 상대가 본인보다 우선할 수 없고, 상대에게 조금 덜 마음을 쓰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4) 안 좋은 모습, 약점의 공개

전술한 연애에서의 일상 공유와 관련해서도, 이들에게 있어 연애는 나에게 대한 ‘선택적 노출’이 불가해지는 시점이다. 따라서 이들은 연애의 단계로 돌입할 경우 상대에게 나의 안 좋은 모습, 약점이 공개될 것이라 말한다. 준혁은 자신의 약점이 상대방에게는 자신의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고, 나아가 상대방도 이러한 자신의 약점을 보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준혁: “썸이랑 연인이랑 가장 큰 차이가 저는 **연인은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들도 보여지고, 썸은 그게 아니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고 내가 보고 싶은 모습만 보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제 취약점? 또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점들을 당당하게 공개할 만한 관계는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변모할지도 모르고, 또 내가 이런 것들을 보여줬을 때 상대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고, ... 한마디로 약점을 보인다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저에겐 약점이지만 상대**

예겐 단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제 단점을 굳이 보여주고 싶지도. 관계의 특성상. 또. 뭐... 그 사람도 보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서로 뭐 놓고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의 연애 감정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 나는 이렇게 힘듭니다. 나는 요런 게 너무 지치고 요런 게 힘들어요’ 이런 얘기 하면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만나기 싫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좀 자제하게 되죠.”

곧 인터뷰이들은 연애 관계로 돌입하게 되면 나의 약점 공개, 안 좋은 모습의 공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반면 “썸”의 경우 나에 대한 선택적인 노출만 하면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 말했다. 이들이 약점 공개를 꺼리는 까닭은 나의 약점이 상대에게는 ‘단점’으로 보일 수 있을까봐서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나의 단점이란 헤어짐의 위험 요소이다. 즉, 단점이 공개될 경우 상대가 나에 대한 호감이 감소해 ‘나를 계속 만나기 싫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상대가 나를 떠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상대와 연애 관계로 돌입해 나의 단점을 공개하고 헤어질 위험성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이러한 “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다.

(5) 연애-결혼으로 이어지는 과정

인터뷰이들 중 현준과 준혁은 연애에 있어 ‘결혼’에 대한 부담도 함께 느끼고 있었다. 즉,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이는 단순히 연애에 대한 부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혼에 대한 부담까지 함께 따라온다는 것이다. 먼저 현준은 현재 이성을 만나 연애를 할 경우, 결혼에 대한 부분이 신경 쓰인다고 했다. 현준은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 여성이 그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현준: “이게 연애를 하면... **오늘은 연애지만 내일은 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하고 만나는 건

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되게 복잡한 것들이 많잖아요. 저보다는 이제 저쪽이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진짜 어린 친구를 만나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평생 연애를 하고 싶어하진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니까... 어느 선까지는 저랑 만나게 된다면 그래도 좋은 감정이니까?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상대방이)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되게 있지 않을까.** 그런 부담감이 분명히 있잖아요. 나이가 더 있으면 사람들이 ‘빨리 시집가야 되는데’라고 하지 ‘빨리 연애해야 된다’고 안 하잖아요. 그니까... 뭔가 그런... 목표가 좀 다를 때? 부담이 또 분명히 있겠죠.”

연구자: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협상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리고 연애한다고 다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현준: “웬지 그냥. 혹시라도. 근데 **그렇게 하고 나는 결혼 생각 없어. 라고 말하는 것도 좀 웃기고. 연애를 일단 하기로 했는데. 안 그래요? 그것도 웃기고... 복잡해요.** 저는 인생 사는 거 복잡한 거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거를 되게. 그래서 피해 가는 거 같아요. 그런 것까지 감수해 가면서 만나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이처럼 현준의 경우에는 ‘나와의 결혼을 생각할 수도 있는 상대’가 부담이다. 애초에 독신주의인 개인들이 만나지 않는 이상, 연애하는 개인들이 연애의 이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결혼 또는 이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은 일단 ‘연애’를 선택한 이상 결혼에 대한 암묵적인 책임의식도 함께 가져야 한다. ‘나는 결혼할 생각 없어’, ‘결혼은 하지 말고 연애만 하자’의 생각은 관계에 돌입한 상대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결국 아직 결혼 생각이 없는 현준은 상대와의 결혼을 생각해야 될 수도 있는 연애가 부담이다.

한편, 준혁의 경우 “썸”의 상대와 연애의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었을 때, 상대 여성이 실제로 결혼과 관련한 말을 꺼냈다고 한다.

준혁: “이제 뭐 아무래도. 조금 뭐 그런 유사한 분위기로 넘어가면. 그니

까 좀 ‘연인이 될 것만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의 상태에서는. **항상 경제적 얘기가 나오게 되더라구요.** 서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단계가 넘어가면은 되게 맥락이 없이 경제적 얘기가 튀어나와요. 제가 자격지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그분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은 하게 돼요.”

연구자: “경제적 얘기들이라면 어떤...”

준혁: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몇 살에 결혼을 한다고 치면은?** 뭐... 어떻게 되면은 **남자가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약간 이런 류의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류의 얘기들을 하게 돼요.”

연구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부담감이 드세요.”

준혁: “부담감이라기보다는... 좀. 슬프죠. 약간.”

이처럼 준혁은 상대와 ‘연애’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분위기에서는 항상 결혼과 관련한 ‘경제적 얘기’가 나온다고 했고, 이러한 이야기와 관련해 상대가 자신과 거리를 두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는 곧 ‘결혼’에 있어 경제적인 문제는 개인들에게 중요한 맥락이며, 이러한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개인은 상대와의 ‘연애’조차 시작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경제적 문제라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 “썸”, 연애, 결혼이라는 모든 친밀성의 영역에서, 이들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결혼’이라는 복잡한 관계, 즉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출산, 양육 등 여타의 다른 복잡한 문제들 또한 산재해 있는 ‘결혼’이라는 관계에 대한 부담은, 이들로 하여금 상대와 ‘연애’하지 않게 하는 하나의 맥락이 된다. 즉, ‘나’의 상태가 어떤지는 차치하더라도, 상대가 혹시나 결혼을 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준은 상대가 혹시라도 결혼을 생각할까봐 두렵고, 준혁은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마주한 경험이 있다. 결국 ‘결혼’에 대한 부담이 막막하게 다가오는 이들에 있어, “썸”은 그러한 부담들과 복잡한 문제들을 직면하지 않기 위한, ‘연애’라는 관계로부터의 이탈인 것이다.

2) ‘연애하는 남성’의 ‘여자친구의 행복’에 대한 책임

단순히 ‘연애하는 나’로서의 책임 외에, 연구자는 특히 남성 인터뷰이들이 추가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이들은 여성 인터뷰이들과는 달리 ‘남자친구’로서 무언가 여자친구에게 ‘해 줘야 한다’, 또는 ‘해 주고 싶다’는 것들이 있었다. 이들은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행복’, ‘남자친구로서의 자존심’등을 말하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연애의 부담이었다.

지훈: “내가 내 자신한테 누군가를 만날 때 ‘이런 거는 꼭 해주고 싶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누구를 만날 때는, 항상. 내가 적어도 이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는 해주고 싶은데. 내가 생각하는 만큼은 안 될 때는, 아... 비굴하게 만나지는 말자. 이런. 뭐 썸탈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굳이. 만나면서 내가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주고 못 사주고 제때 만나 주지 못해서 그런 것 때문에 막 ‘내 자신한테 실망하는 일은 만들지 말자’ 이런 것 같아요. 상대방한테 잘해 주고 싶으니까. 그거를 내가 못해준다 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게 굉장히 싫죠 전. 자존심 같은 것도 있으니까. 자존심 같은 거죠.”

현준: “저는 좀 기준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항상 저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 같아요. 이 사람은 좋은데, 이 사람한테 좋은 남자친구가 될 자신 없다. 그럼 바로... 썸을.. 그땐 끊기는 거 같아요. 좋은 남자친구가 될 수 있는지 부담스러운 거죠”

민재: “연애를 하면 잘해줘야 한다는 부담은 당연히 있지. 부담감이 없으면 잘 해줘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겠지. 챙겨줘야 되는 것도 있고. 내가 사귀기로 했잖아. 사귀기로 하면은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행복했음 좋겠어. 그런데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려면은 거기서 오는 노력과 그런 모든 것들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게 부담이지, 그 자체가. 씬 단계에서는 내가 뭘 줘야
겠다,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그런 건 좀 덜한 것 같아.”

연구자는 남성 인터뷰이들에게서만 이러한 부담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부분들은 여성 인터뷰이들에게는
도출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여성 인터뷰이들의 경우 ‘상대방의 행복’, ‘상
대방에게 잘해줘야 할 것 같아서’라 말하는 이는 없었다. 하지만 남성들
은 연애를 할 경우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
다. 이들은 그러한 데에 대한 하나의 ‘부담감’을 공유하고 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여자친구의 행복’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일까? 이는 지훈의 말로서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훈은 연애의 부담을 얘기하면서 “제대로 못해주고, 못 사
주고, 제때 만나 주지 못하고”를 얘기하였다. 즉, 이를 바꿔 말하면 남자
친구로서 “여자친구가 필요할 때 만나주고, 사주고 싶은 것을 사주고, 이
를 제대로 잘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 남녀 관계에 있어서의 성 역할 고정관념, 즉 ‘남
자친구로서의 역할’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소위 ‘능력 있는 남자친
구’, ‘여자친구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는 남자친구’의 고정관념이 이들에게
삽입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낭만적 사랑의 소비극본상에 나오는 이상
적인 남자친구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 느끼는 경우, 이들은 상
대와의 관계를 차단하는 것이다. 지훈과 현준, 그리고 민재는 현재의 상
황에 있어 이러한 부분에 자신이 없어 관계를 진행시키지 않고 있었다.
곧 여자친구의 행복에 대한 실패를 경험할 경우 이것이 자신에 대한 실
망, 나아가 자존심의 손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2. 연애의 감정

인터뷰이들은 “쌈”을 탈 때 ‘연애의 부담’은 소거되는 한편, 연애할 때
의 ‘연애 감정’은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즉, 사실상 ‘연애’는 아니지만, 그
래도 감정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연애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것

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얘기하는 “썸”에서 느낄 수 있는 ‘연애의 감정’이란 무엇일까?

1) 호감, 재미, 즐거움, 나아가 “썸”만의 ‘순수한 감정’

이들은 연애와 비슷하게 이러한 “썸”이라는 관계가, 만났을 때의 재미, 즐거움으로 인해 생활의 활력이 된다고 말한다. 연인은 아니더라도, 함께 데이트를 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성ى 있다는 것이 즐겁고, 좋다는 것이다. 민아는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 준다는 것’이 고마운 일이고, 이것이 없을 경우 서운하다 말한다. 따라서 민아는 이를 자꾸 유발하려고 ‘밀당’을 하게 된다고 말하는데, 이는 곧 상대방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다. 민아는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 주는 이성의 존재가 삶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 준다고 말한다.

또한, 민아와 더불어 현준은 단순히 준(準)연애 상태에서의 감정에서 나아가 “썸”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오히려 ‘연애’ 상태의 감정들보다 ‘순수한 감정’이라 지적한다.

현준: “뭔가 기대 없고 더 생각할 필요 없고 지금 그냥? 뭐. 되게 단순한 관계잖아요. 남녀 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복잡한 관계가 제일 단순할 때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점점 복잡해 지잖아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스킨십을 갖고. 그러면서 이제. 꼬이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단순함과? 그 순간적인 순수함들이 없어지는 거죠.”

민아: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좀 좋은 거 같아요. 연인이면 계획을 짜서 하는 게 많잖아요. 뭐 이때 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요고(썸)는 약간 이렇게 마음이 가는 대로. 만약에 내가 오늘은 약속 안 잡았는데 지금 내가 프리하면 어 우리 그럼 지금 볼까? 이러면 되게 호의적? 좀 더 재밌는 느낌? 약간 즉흥적인 그런,,,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막 지루한 느낌이 아니고 계속 뭔가 새롭지 않아도

그런 새로운 느낌? 계속 같은 맥락인 거 같은데 그렇게 하되 내가 빼고 싶을 때는 빼고. 연애하면 이게 패턴화가 되는데.”

곧 이들에게 있어 “썸”은 관계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순수한 관계(pure relationship)”(Giddens, 1993/2001)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즉, 연애나 결혼이라는 어떠한 정상관계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관계 자체에서 생기는 감정들을 위한 관계가 되고 있는 것이다. 현준과 민아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즉흥적이고, 순수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감정들은 ‘패턴화된 관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새롭고, 지루하지 않다. 즉, 단순하고 즉흥적인 관계로부터 나올 수 있는 순수한 감정이라는 점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연애와 구별되는 “썸”의 매력으로 소구되는 것이다.

2) 외로움, 상실감의 극복과 의지

이러한 관계는 개인에게 즐거움과 같은 추가적인 감정들을 줄 뿐 아니라, 연인의 빈자리를 채워 주기도 한다. 특히 시은, 서현과 같이 현재 ‘연인’의 존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시은의 경우 전 연인의 빈자리를 썸남이 채워 주고 있었다.

시은: “그냥 매일 연락하던 누군가가 없어지니까 대체를 했던 거 같아요. 대체를 하면서 그냥 혼자 안정기를 되찾고 그런 걸 줌... 옛날에 뭐 5년 동안이니까 그 동안 무뎠었던 감각을 다시, 감정들이나 그런 게 다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좋고. 그래서 다시 뭔가 좀 상실감이 채워졌다고 해야 하나. 근데 또 뭔가 연애 감정을 느끼고는 싶으니까 썸은 계속 타고. 요런 지금 좀 이기적인 단계.”

곧 상실감의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썸남은 시은에게 필요한 존재다. 도의적인 책임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개인의 상처를 극복하는 데 있어 썸

남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서현의 경우는 썸남의 존재는 상실감의 극복이라기보다 현재 상황에서의 의지의 대상이다.

서현: “그래도 오히려 애 정도 해야지 조금 할 말이 있고 애 외에는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애마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 친구들 중에는 똑같이 개네도 취준생 커플인데. 아예 헤어지면은 서로 취준하는데 너무 힘들니까 서로 취업한 다음에 헤어진다는 친구도 있어요. **못 헤어지는. 서로 너무 파급력이 크니까.** 그냥 뭐 대학교 1, 2학년 때 그때 헤어져도 엄청 큰데.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헤어지면 너무 영향이 크니까?** 그래서 뭔가 애랑 갑자기 **확 헤어져 버리면은 제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끝내지도 못하고. 차라리 이런 관계가 저는 막. 말씀 드렸듯이 **‘이용당하고 있는 거 같다’** 이렇게 느끼면은 저도 제 선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잖아요. 저도. **그게 안 되니까...**”

곧 서현의 경우에는 현재 상대에게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서현은 상대와 관계를 끝내고 싶어도, 이에 대한 파급력이 두려워 “썸”을 못 끝내고 있다. 애초에 “썸”이기 때문에 개인이 관계에 있어 큰 감정을 투자하지 않기는 하지만, 서현의 경우 취업 준비를 하며 상대에게 의지하는 부분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심지어 상대에게 **‘이용당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쉽게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곧 서현에게 있어 현재 썸남이라는 존재는 기약 없는 취업의 준비라는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의지의 대상이고, 시은에게 있어서도 상실의 극복을 위해 썸남은 필요한 존재인 것이다.

제 2절. 다양한 이성 탐색이 가능한 열린 관계

준(準)연애 관계에 이어, 이들에게 있어 “썸”은 다양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관계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아직 ‘사귀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다른 이성을 만나도, 또는 내가 다른 이성을 만나도 서로가 간섭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인터뷰한 사람들 모두가 “썸” 관계에서 ‘다른 이성과의 만남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이들은 곧 복수의 “썸”을 용인하면서 실제로 그러한 복수의 만남을 지속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이렇게 다른 이성을 만나는 한편, 현재의 썸남, 썸녀를 미래를 위해 남겨 놓는 경향을 보였는데, 즉, 이들에게 있어 썸남, 썸녀는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혹시 미래에 사귄 수도 있는 사람’으로서도 존재하고 있던 것이다.

1. 다양한 이성과의 만남

1) 복수의 “썸”의 경험

연구자가 인터뷰한 11명의 인터뷰이들 중 7명이 다수와의 “썸” 경험이 있거나, 현재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표 4>는 그러한 인터뷰이들의 목록이다.

먼저 은경과 준혁은 “썸”을 타고 있을 때 다른 이성을 만난 경험이었다. 은경의 경우 썸남과 만남을 지속할 때에도 다른 이성과 소개팅, 미팅을 하며 데이트를 했는데, 은경은 이러한 자리가 있을 때 굳이 마다하지 않았다 말했다. 준혁의 경우도 이와 비슷했는데, 준혁은 썸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에도 채팅 앱을 통해 두 명의 이성과 추가적으로 데이트를 한 적이 있다. 또한 준혁은 아예 다수 여성과의 만남을 위해 이러한 만남을 허용하는 열린 연애를 한 경험도 있다.

한편, 민아와 민준, 예원은 현재 복수의 이성과 동시에 “썸”을 타고 있다. 민아와 민준은 각각 2명, 예원은 6명과 동시에 “썸”을 유지하고 있

는 것이다. 물론 “썸”의 상대들은 이러한 상태에 대해 모르지만, 이들은 “썸”의 관계가 결국은 열린 관계이기 때문에 다수 이성과의 만남이 가능하다 말한다. 이 외에 지훈과 현준은 현재 명확한 “썸”의 대상은 없지만 몇 명의 이성과 종종 짧은 데이트를 하는 중이다.

〈표 4〉 복수의 “썸”을 경험한 인터뷰이들

	이름 (가명)	성별	나이	직업	복수의 “썸”의 경험
1	은경	여	30	직장인	썸남이 있을 때에도 소개팅, 미팅을 하며 데이트
2	민아	여	28	직장인	두 명의 남성과 동시에 썸 타는 중
3	지훈	남	37	직장인	몇몇의 이성들과 종종 짧은 데이트
4	현준	남	34	프리랜서	몇몇의 이성들과 종종 짧은 데이트
5	준혁	남	26	직장인	썸 타는 중 다른 두 명의 이성과 몇 차례 데이트. 이전에 다른 이성과의 만남을 허용하는 열린 연애의 경험
6	민준	남	26	대학생 (인턴 중)	두 명의 여성과 동시에 썸 타는 중
7	예원	여	28	직장인	6명의 남성과 동시에 썸 타는 중

이처럼 이들은 다른 이성들과 “썸” 관계 아래 자유로운 만남을 가지고 있다. 굳이 상대에게는 이를 밝히지 않아도, 서로 암묵적으로 다른 이성의 개입을 허용하고, 또 허가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썸”이 상대와의 일대일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즉, 이는 다수와의 만남이 가능한 열린 관계로 이해되고, 또한 실제로도 그렇게 실천되고 있는 관계라는 것이다.

2) 복수의 “썸”에 대한 인식

그렇다면 이들은 복수의 “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 이러한 관계는 다수의 이성의 개입이 허용되는 것일까? 인터뷰이들은 “썸”의 관계는 아직 미확정의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이성에 대한 간섭을 서로 할 수 없는 관계라 말한다. 즉, 나도 다른 이성을 만날 수 있고, 상대방도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들은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은 개인의 ‘마음’에 달린 것이라 했다.

민재: “썸 탈 때 나는 다른 여자를 만나도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책임을 안 지고 있으니까.** 상대방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막을 순 없잖아.”

지훈: “내가 **메뉴판에서 메뉴를 고르는 데 이거를 고르나 이거를 고르나 고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것인가.**”

준혁: “그 사람도 뭐 만나고 나한테 얘기만 안 해주면은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저도 그 사람한테 얘기만 안 해주면 되지 않겠나. 약간 이런 정돈거죠. **썸이라는 건 사실 동시에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A랑도 좀 어느 정도 설레고, B랑도 어느 정도 설렌다면은.”

민준: “썸 관계에서는 상관 없는 거 같아요. 소개팅 하거나 뭐 그러는 거는. 크게 상관 없는 거 같아요. **하는 사람 마음이니까. 하는 사람 마음인 거 같아요.**”

이러한 관점들은 곧 개인들이 “썸”을 다양한 선택지들 중 여러 선택지들 중 하나로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곧 이들에게 있어 “썸”은 유일한 그 상대와 ‘연애’라는 하나의 고정적인 관계로 돌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성들의 탐색을 허용하는 ‘선택의 시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지훈의 말을 빌리자면 이는 ‘메뉴판’에서의 선택의 시간인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 복수의 이성과의 만남이 가능한 이유는 이것이 상대와의 관계가 고정되지 않은 ‘유동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다. 상대와 여자친구, 남자친구로 공식화가 된 사이라면 다른 이성과의 만남은 불가능하다. 연인 관계에서는 서로의 성적 배타성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어길 경우 ‘바람을 핀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썸”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배타성이 없다. “썸”이 깊어진 상태라면 약간의 미안함은 있겠지만, 그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일은 아니다. “썸”의 관계에서는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해도 이에 대한 구속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이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몇몇 인터뷰이들에게는 다수의 “썸”이 그저 허용되는 것에서 나아가,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들에게 있어 “썸”이 많은 사람은 매력 있는 사람, 또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서현은 “썸”이 많다는 것은 ‘그냥 좋은 것’,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했고, 민아는 “남자친구가 있는 것보다 오히려 “썸”이 많은 것이 더 파워풀한 것이고, 이것이 상대를 더 매력적으로 돋보일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측면들은 곧 “썸”이 연애 시장에서의 하나의 자본으로서, 즉 ‘나’를 돋보일 수 있게 하는 스펙으로서도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썸남, 썸녀의 보험적 유지

이러한 관계는 다른 이성들의 탐색이 가능하면서도, 현재의 썸남/썸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관계이다. 즉, 다른 이성을 만나더라도 굳이 현재 “썸”을 타고 있는 상대와 헤어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몇몇 인터뷰이는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에는 사귀지 않지만 미래에 적당한 때가 되면 사귄 수 있는 ‘잠재적 연인’으로서 썸남, 썸녀를 남겨 놓았다. 이는 소위 말하자면 상대의 ‘킵(keep)’, 또는 관리인 것이다. 민재는 상대와 ‘현재

사권 다음에 헤어지면 안타까울 것 같아서' 상대를 남겨 놓는다고 했고, 지형 또한 현재의 상대와 지금 사귄 경우 결혼을 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상대를 열린 결말로 남겨 놓는다고 했다. 곧 이러한 부분들은 이들이 미래의 연애 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썸남, 썸녀를 남겨 놓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일종의 '보험'인 셈이다.

결국 “썸”은 현재의 사람을 잃지 않으면서도, 다수의 이성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관계’로 기능한다. 개인은 이러한 관계를 “썸”으로 유지하면서, 현재 존재하는 썸남, 썸녀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인 연인’으로서의 이성들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연애 시장’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썸”은 현재의 썸남, 썸녀를 보험으로 남겨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손실은 적으면서도, 다른 이성들을 만나는 것으로서 최대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도 효율적인 관계 형태인 것이다.

제 3절. ‘연인’이 결여된 불완전한 관계

1. 불안감의 산재

“썸”의 관계는 ‘연인’이라는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불안정성을 내포한 불안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서로가 공식적인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관계를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뷰이들은 이러한 관계의 불안정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불안함과 의심은 동시에 갖고 있었다.

민아: “그냥 질리면 바로 헤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깐. 그런 게 좀 안 좋은 것보단 약간 두려움? 뭐라 그러지 그냥... 뭔가... 완벽하게 이런 게 아니니까 언제든지 따르 데로 텔 수 있으니까 불안감? 막 만나면서도 계속 의심?을 하는 거 같아요.”

민재: “심리적 안정감은 여자친구가 더 많을 것 같아. 썸 관계에서는 어쨌거나 **불안감이 산재해 있는 거니까**. ... 남자들은 여자친구가 있는 걸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애.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게 여자친구의 존재”

곧 민아가 얘기했듯이 “썸”은 상대가 질리거나 내가 질리면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는 관계이다. 물론 연애의 경우 헤어짐도 그러하지만, “썸”의 경우 그러한 관계의 종료에 대한 고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와 다르다. “썸”에서 종료를 원할 경우 이는 단순히 ‘연락을 줄이는 것’, 또는 ‘안 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 상대와 공식적으로 관계를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 해지에 대한 고지 의무도 없는 것이다. 곧 “썸”은 헤어진다기보다 흐지부지 되는 관계이고, 이러한 점에서 “썸”은 개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관계가 아니다.

2. 온전한 의지의 불가능

또한 “썸”은 상대와의 완전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의지가 불가능하다. 전술했듯이 서로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며 나에 대한 선택적 노출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만큼 감정의 부담도 상대에게 지울 수 없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준혁과 예원은 이러한 관계 내에서는 감정적인 의지가 힘들다고 지적한다.⁶³⁾

준혁: “썸 타는 사람은. 만날 때 ‘연애한다’는 기분은 들어도, **감정적 위로가 되진 않아요. 굉장히 긴장되면 긴장됐지**. 썸이라는 건 사실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내가 또 **잠재적 연인으로서 심사 받**

63) 하지만 서현의 경우 이러한 사례에 벗어난다. 전술했듯이 서현은 썸남과 같이 취업 준비생의 신분을 유지하며 어느 정도 상대에 대한 감정적인 의지를 하고 있다. 다만 상대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서현이 유일했고, 다른 인터뷰이들은 모두 감정적 의지가 힘들다 말했다. 따라서 연구자는 여기에서 ‘온전한 의지의 불가능’이라 서술하였다.

는 과정이고 저 역시 약간 심사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가 나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성적 대상화할 수 있을까 약간 요런 식으로 항상 행동을 취하게 되는 거 같고. 그렇게 편하진 않네요. 연애한다는 어떤 설렘의 감정은 있어도. **심사 받는 설렘 같은 느낌?** 그니까 나는 설레고 있으나 내가 그 사람에게 잠재적 연인으로서 충분한 설렘을 제공하고 있는가? 약간 어떻게 보면 **면접 보는 느낌**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원: “어쨌거나 (썸남에게) 좋은 모습 보여야 되는데? **짜증나거나 막 우울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우울하고. 의지를 할 수가 없는 거?** 그니까 의지를 해도 예를 들면은 막 짜증나는 일이 있어. 그러면은 그래도 재밌게 풀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나 이랬는데 막 이랬다?’ 그랬는데 ‘아 그래? 뭐 짜증나겠다’ 했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막 ‘나 진짜 우울해 풀어줘’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번 정도로. 만약에 내가 진짜 그러면 나 진짜 우울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저는 되게 사랑을 해주고 사랑을 받고 싶은데. 이거는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더 공허하고, 더 외로울 때가 진짜 있는 게. 더 있어요 진짜로. 약간. 차라리 어쩔 때는 그냥 다 연락 끊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러면은 무섭잖아요. 더 외로울까봐. 그러다 보니까 끊진 않는데. 되게 내가 지금 쓸데없이 뭐하지? 약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하는 느낌인거죠.”

결국 이러한 관계는 상대에게 감정적인 부분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보아도 오히려 ‘긴장되는’ 관계이다.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하는 상대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든 점을 얘기할 수 없을뿐더러, 얘기하더라도 이를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은 내에서 털어 놓아야 한다. 상대방에게 부담을 지을 경우 이는 곧 호감의 감소로 이어지고, 나아가 상대와의 관계가 종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원의 경우 이러한 점에서 다수의 이성을 만나고 있어도 ‘오히려 더 외롭다’ 말한다. 상대방에게 ‘온전히 나를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곧 이러한 관계는 준혁이 말했듯이 ‘연애 면접’과 같은 관

계로서, 관계 내의 개인들에게 긴장감을 주는 관계인 것이다.

3. 떳떳하지 못한, ‘공표’의 불가능

“썸”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식으로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로서 소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떳떳한 관계가 아니다. 공식적인 명칭만 안 붙었을 뿐 사실상 ‘할 건 다 하는’ 이성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이 물었을 때 ‘남자친구/여자친구 없어’라고 답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서현과 민아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다.

서현: “친구들한테 ‘나 남자친구 있어’라고 얘기를 못하는 게 좀 약간 서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SNS에 뭐 올리면은 인물 사진 같은 거는 못 올리고. ... 부모님도 뭔가 아실 거 같은데 거기서 당당하게 남자친구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뭔가 이런 데서 뭐라 그러지? 썸썸함은 아니고... 뭔가... 남자친구처럼 하는 사람이.. 할 거 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 가서 떳떳하게 남자친구 여자친구예요 라고 말을 못 하는 게 그런 거 같아요... 서럽다?”

민아: “그냥 단지 지금 막 이상한 게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 친구들이 너 남자친구 있어? 이러면 있다고 말하고 싶은데 없다고 얘기하는.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제 없다고 해야 하는. 근데 뭔가 기분이 찝찝한? 사실 이 사람 타이틀만 없을 뿐이지 거의 남자친구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약간 아쉬운? 나도 말하고 싶은데 있다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곧 서현과 민아는 “썸”의 상대를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공표할 수 없다는 것이 서운하다 말한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 상대는 어떤 공식적인 ‘명칭’이 붙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떳떳하게 공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썸남이 있더라도 친구들, 부모님에게도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을 하지 못할뿐더러 SNS에 공개적으로 사진을 올리지도 못한다.⁶⁴⁾

민아의 경우 이와 관련한 에피소드도 있는데, 민아는 현재의 썸남과 주말에 손을 잡고 밀착해서 거리를 걸어다니다가 회사의 사수와 마주쳤다고 한다. 당시에는 당황해서 그냥 인사만 하고 넘어갔는데, 월요일에 출근을 하니 사수가 ‘남자친구가 있는 줄 몰랐다’고 말을 건넸다는 것이다. 이때 민아는, 민아의 정확한 표현을 빌리자면 “남자친구가 아니라고 하기엔 내가 너무 미친년 같아서” 사수에게 한 달 정도 된 남자친구라 말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곧 “썸”의 관계는 공표되지 못하는 관계이고, 개인이 이에 대해 떳떳하지 못한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 4절. 소결: “썸”의 관계형태 분석

연구자는 앞장의 “썸”의 실천 양상에 이어 이들의 관계 인식을 탐구하면서, 이러한 관계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파악해 볼 수 있었다. 특히 ‘연애’와 구별되는 지점들을 통해서 이러한 관계에 대한 밑그림을 미약하게나마 그려볼 수 있었던 것이다. 연구자는 도출된 결과들을 토대로, “썸”의 관계형태를 <표 5> 과 같이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물론 이것은 일반론도 아니고, 연구자가 시도한 다소 거친 구별에 불과하다.⁶⁴⁾ 다만 연구자는 “썸”이라는 관계양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기 위해 ‘연애’를 관계의 틀로 잡아 나름대로의 관계분석을 시도해 본 것이다.

연구자가 파악한 “썸”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는 상호간의 호감으로 시작해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 유지의 전략으로 지속되는 관계이다. 여기

64) 대부분의 인터뷰이들이 “썸” 관계에서는 SNS에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지는 않는다 말했다. 이들은 올리더라도 인물 사진은 올리지 않고 같이 갔던 장소의 배경, 카페, 풍경 등을 올렸다. 서현은 썸남과 함께 여행을 갔을 때 찍었던 풍경 사진을 올렸는데, 인물 사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썸남으로부터 게재를 제지당한 경험이 있다.

65) 예를 들면, “썸” 관계를 명시적으로 합의해 이를 실천하고 있는 민아, 준혁의 사례나 상대에게 감정적인 의지를 하고 있는 서현의 사례는 이 표에 완벽히 들어맞지 않는다.

서 부담스럽지 않은 전략이란, 연락과 데이트, 호감 표현에 있어서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만한 것들을 삼가는 것이다. 연락은 지속적으로 하되 일상적인 대화로, 데이트는 공식적인 데이트라기보다 캐주얼하게, 호감 표현은 감정의 직접적인 표현의 이전 단계로서 조절해야 하는 것이다.

〈표 5〉 연애와 “썸”의 관계형태 비교

		연애	“썸”
관계의 시작		“사귀자”의 언어 행위	상호간의 호감의 표현
관계의 유지	데이트 형태	일반적인 데이트	부담스럽지 않은 캐주얼한 데이트
	연락	일반적인 연락	부담스럽지 않은 연락
	스킨십	개인의 선택	개인의 선택
	호감 표현	가능	적정한 선에서 가능
관계의 배타성		다른 이성 불가	다른 이성 허용
관계의 부담		연인의 요구에 대한 책임 연애의 유지비용 일상의 공유 약점의 필연적 공개 결혼에 대한 부담 여자친구의 행복에 대한 부담	요구에 대한 책임 없음 연애보다 덜한 유지비용 일상의 선택적 노출 약점 미공개 결혼 생각하지 않아도 됨 여성의 행복에 대한 부담 없음
관계에서의 감정		사랑 온전한 의지 가능 안정된 관계로부터 나오는 감정	호감 온전한 의지 불가능 순수한 관계의 즉흥적이고 순수한 감정
관계의 완전성		완전	불완전
관계의 공표		가능	불가능
관계의 종료		헤어짐	호지부지 되는 것

또한 “썸”은 연애와 비교해 관계의 부담이 적은 관계이다. 우선 ‘연인’

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 의무가 없고, 나의 일상을 낱낱이 공개하지 않아도 되며, 상대방에게 보여주기 싫은 나의 약점도 감출 수 있다. 즉, 내가 원하는 일상과 모습만 취사선택해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썸”은 결혼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이다. 아직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미래를 그려야 한다는 압박이 없는 것이다. 관계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과 관련해서도 “썸”은 연애보다 훨씬 부담이 적다. 비용에 있어 적정한 암묵적인 ‘선’이 있기 때문이다. “썸”은 이러한 측면에서 남성들에게 훨씬 부담이 덜한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여자친구를 행복하게 해 주는 남자친구여야 한다’는 부담이 없을뿐더러, 내가 관계를 주도해야 한다는 압박도 없는 것이다.

한편, “썸”은 연인이라는 안정적인 존재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관계라고 할 수 있겠다. 상대와 호감이라는 감정의 교류는 하지만 끝나의 모습과 완전한 감정의 노출을 삼가야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상대에 온전한 의지가 불가능하고, 이러한 관계는 다른 이들에게 공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불확실한 관계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에서 도출되는 감정은 종종 ‘순수한 감정’으로 생각되어지기도 하는데, 즉 패턴화된 연애가 아닌 자유로운 관계로부터 도출되는 즉흥적인 감정들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순수한 감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연애의 관계에서처럼의 안정감은 덜하지만, 정상연애라는 관계의 구속력이나 이후의 결혼과 같은 미래를 상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썸”은 자유롭고도 순수한 관계로 여겨질 수 있다.

제 6장. “썸”의 실천논리

연구자는 4장, 5장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토대로 “썸”의 관계형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썸”은 연애의 부담이나 책임감이 소거된 관계이긴 하지만, ‘연인’이라는 울타리가 없다는 점에서 불안정성을 담보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질문할 것은 ‘왜 이들이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들은 왜 이러한 관계를 택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단순히 연애의 부담을 피하기 위함일까? 이들의 이러한 관계의 선택은 자발적인 것인가? 이번 장에서는 이들이 이러한 관계를 실천하는 이유, 그 논리에 대해 탐구한다.

제 1절. 항상적 불안정성(precarity)

연구자가 만났던 인터뷰이들은 보다 근본적으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었다. 즉, 이들은 스스로의 현재 상황이 관계를 이어가기에 안정적이지 않다고 파악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상대와의 관계발전을 꺼리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이들의 불안정성은 크게 두 가지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첫째는 커리어에 있어서의 불안정성이고, 둘째는 이로부터 야기된 관계적 불안정성이다.

탐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연구자가 이들의 불안을 불안정성(precarity)의 개념으로 파악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애초에 불안정성(precarity)은 유럽에서 불안정한 노동의 문제와 관련해 제기된 것인데, 이것이 현재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함한 개인의 삶의 조건 및 경험에서의 불안정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된 것이기 때문이다.⁶⁶⁾ 연구자가

66) 불안정성(precarity)은 불안정한 노동 문제와 관련해 유럽에서 부상한 개념이다. 1990년대 이탈리아의 대체교사들은 일반 교사들이 가지는 삶의 안정성을 갖지 못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을 부정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서 불안정성(precarity)이 사용된 것이다(채석진, 2016). 하지만 2003년 <유럽 사회 포럼> (Europe Social Forum)에서 ‘삶의 불안정성(la vie précaire)’이 주요 의제로 부각되면서 이 용어는 부상하였다. 당시 유연한 생산 시스템이 전

파악한 이들의 관계맺음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불안정성 역시 일차적으로는 이들의 커리어에 있어서의 불안정성이었고, 이차적으로 이로부터 파생된 연인 관계에 있어서의 불안정성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불안정성이 노동의 영역으로부터 시작해 관계맺음의 영역까지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의 ‘불안’ 개념이 아닌 불안정성(precarity)의 개념을 가져온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불안정성의 모습에 대해 다룰 것이다.

1. 커리어의 불안정성

대부분의 인터뷰이가 자신의 커리어가 ‘현재 안정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연구자는 이러한 부분이 놀라웠는데, 그 이유는 연구자가 인터뷰한 사람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을 한다고 여겨지는 직장인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업 준비생들을 포함해 직장인들 또한 자신의 현재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답했는데, 곧 이러한 커리어에 있어서의 불안정성은 이들로 하여금 현재 ‘연애’보다는 커리어의 계발에 집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불안정하고 착취적인 고용구조가 등장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빈곤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불안정성(precarity)이 제시된 것이다(박진우, 2011). 노동의 문제로 등장한 불안정성(precarity)은 점차 사회 전반적인 현상에 적용되는 용어로 확대되었는데, 버틀러(Butler, 2004/2008)는 기존의 precarity를 좁은 의미로 파악하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실존하는 존재의 불안정성을 의미하는 “precariousness”의 개념을 제시한다. 이는 “모두가 함께 하지만 불평등하게 직면한, 인간 육체의 현존의 취약함”(Butler, 2004/2008, 33쪽)이라는 것이다.

닐슨과 로지터(Neilson and Rossiter, 2008)는 버틀러의 이러한 구분을 지지하면서, 나아가 불안정성(precarity)의 개념이 “공동의 정치적 구성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는 존재론적 경험이자, 사회-경제적 조건”(55쪽)이라고 주장한다. 즉, 불안정성은 예외적인 경험이 아닌 공동의 경험으로서, 이것이 정치적인 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진우(2011)는 이것이 “현대사회의 ‘주어진 상황’에 대한 주체적인 인식으로, 현대사회 전반에 걸친 간주관적 삶(intersubjective life)의 경험을 통칭하는 개념”(61쪽)이라 주장하는데, 곧 현재에 있어 불안정성은 “precarity”와 “precariousness”를 모두 포함하며 신자유주의적인 삶의 전반적인 조건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확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채석진, 2016).

중하게 하고 있었다. 이들은 ‘연애’라는 관계를 시작하기보다는, 연애에 쏟아질 시간과 여타의 노력들을 ‘커리어의 계발’이라는 자기계발에 쏟으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1) 취업 준비생들의 “연애를 할 시기가 맞나”

먼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은 현재 자신의 상황이 ‘연애’를 시작하기에 부적절한 시기라 말했다. 시은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소개팅남과의 관계 발전을 꺼리고 있다.

시은: “더 뭔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고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연애를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뭐 이직을 하게 되거나 학교를 가게 되거나 이제 퇴사를 했으니까 **저의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그런 시기에 정신없이 뭔가 연애를 해도 지장이 없을까 ...** 연애와 커리어 모두 완벽하게 해내기는 조금 어렵더라구요. 여자 입장에서, **아직은 제가 안정되기까지는 커리어를 더 우선시할 것 같아요.** 아직은.”

이처럼 시은에게 있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커리어의 안정이다. 시은의 경우 현재 연애를 시작할 경우 커리어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 두려워 일단 관계를 보류하고 있다. 소개팅남이 시은에게 ‘사귀어 보자’고 말했지만, 시은이 이를 거절한 것이다. 곧 현재 자신의 커리어를 계발해 나가야 하는 시은에게 있어 연애는 하나의 ‘리스크(risk)’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연애’가 커리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방해 요소로서 여겨지면서, 시은은 이러한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 준혁도 이러한 취업 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토로한다. 그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스스로 상대방과의 관계가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준혁: “저는 근데. 제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향후 3년? 까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거라고 스스로 보고 있으니까. 어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진 못하겠구나. 그니까 ‘지금 단계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하죠. 예를 들어 내가 어느 정도 더 추가적인 호감을 느끼면은 사실 연인 관계로 정의됨으로써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은데. 예를 들어 직접적 감정 표현이나 쉽게 얘기하면 응석부리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 연인 관계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것들을 하지 못할 거고. 앞으로도 못할 것이고...”

즉, 준혁은 현재 자신의 불안정한 상황, 그리고 예상되는 불안정성으로 인해 상대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말한다. 준혁은 상대와 ‘연인’ 관계로 넘어갈 경우 상대에게 응석을 부릴 수도 있고, 직접적인 감정의 표현도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앞날이 ‘불안하기’ 때문에, 상대와 선불리 관계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곧 커리어에 있어서의 불안이 준혁으로 하여금 상대와의 관계 발전을 억누른 것이다. 준혁은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상대에게 마음을 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이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썸”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곧 시은과 준혁과 같이 현재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현재의 취업 준비라는 불안정한 상태, 그리고 미래에 예상하는 불안정성이 상대와의 관계를 정착시키는 데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 불안정한 현재의 모습과 더불어 앞으로도 예상되는 미래의 불안정성은, 개인으로 하여금 ‘연애’라는 안정적인 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다. 곧 이들에게 있어 현재는 ‘연애’보다는, 나의 ‘커리어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이는 곧 ‘연애’라는 관계는 취업이라는 커리어의 확립에 있어 후순위에 있는 것으로서, 나중으로 유예될 수 있는 것임을 알려준다. 곧 이들에게 있어 ‘안정적인 친밀성’이란 커리어의 계발 이후에나 가능하고, 또 그러한 것이 확립된 이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2) 직장인들의 “커리어 발전에 집중할 시기”

사실 연구자가 놀라웠던 점은 오히려 직장인들이 커리어의 불안정성에 대해 더 많은 토로를 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취업 준비생들과 공통적으로 현재는 커리어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먼저 지훈과 현준은 본인들의 일의 스케줄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연애를 피하고 있다고 고백한다.

지훈: “작년부터는 일이 많은데... 내가 지금 내 위치에서 성공을 하려면 아무튼 뭐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여자 친구가 생기거나 여자를 만나면... 또 일이 워낙에 시간 자체가 일정하지가 않다 보니까 약속을 정해도 취소할 경우가 많고, 그리고 약속을 주말에 잡기도 힘들고.”

현준: “제가 될 수 있으면 연애를 좀 많이 피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일도 그렇고... 제가 과연 다음 달에 어디 있을 지에 대한 것도 솔직히 좀 많이 힘들어요. 불규칙적인 생활과? 뭔가 다음 달을 모르는 스케줄을 사는데 연애를 해서 좋을 건 없더라구요. 업앤 다운이 있으니까. 그 패턴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솔직히 좀 힘들더라구요. 잘 이해도 안되고, 이해를 바라지도 않고 솔직히. ... 저도 몇 년 간 일이 없다가 지금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일을 마다하지 않는 입장에서. 어떻게 뭐 이제 갑자기 지금 일 많이 들어오는데 ‘아 좀더 여유롭게 연애 좀 하고 싶어’ 라고 말하면 배부른 소리잖아요. 그렇게 말은 못하고, 그냥. 지금 저한테 주어지는 거에. 미래에 그냥 최대한 열심히 하면... 언제 또 일이 끊길지 모르잖아요. 제가 하는 일은 항상 이게 거쳐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쪽(연애)으로는 별로 안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서운 게 또 좋은 사람 만나면 또 그런 마음이 생길까봐... 미리 좀 차단하는 것도 있다고 봐요. 제가 조금이라도... ‘아 이 사람한테 빠지면 되게 폭 빠지겠다’ 그러면 내 앞길,

내가 하는 일에 좀 지장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두 개 다 해보겠다고 하다가 결국 둘 다 못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약간 가능성을 미리 닫아놓는 편이에요.”

곧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연애는 하나의 사치로서 다가온다. 개인이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연인을 두기란 쉽지 않은 일일뿐더러, 언제 다시 들어올지도 모르는 일을 거절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 일의 유동성은, 이들이 일반적인 연애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억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불규칙한 일을 하는 개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터뷰이들 중 민재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소위 ‘메이저’라 불리는 기업에서 3년째 일하고 있다. 하지만 민재 역시 자신의 커리어가 불안정하다 말한다. 나아가 민재는 미래의 불투명성 때문에 상대와의 관계를 유보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구자: “상대한테 어떻게 하면 ‘사귀자’고 말할 것 같아?”

민재: “...**미래가 투명하면 사귄 것 같아.** 내가 앞으로 회사를 한국에서 쪽 다니고 나는 그냥 한국에 정착할 것이고 **‘나는 그냥 안정적인 삶을 살 거야’** 이러면은 일단 사겨볼래? 라는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애.”

그렇다면 민재가 말하는 투명한 미래의 ‘안정’은 무엇일까? 연구자는 민재에게 이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연구자: “그럼 언제쯤 커리어가 안정될 거 같은데?”

민재: “...근데 **커리어가 안정됐다고 얘기하는 건 되게... 오만한 말이야.** 뭐... 한 4-5년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조금 안정되게 되기까지는. 그냥 막, 현실적으로 계산했었을 때, 만약에 대학원을 간다면 2년 정도 걸리고, 다시 취직하는데까지 한... 4, 5년?”

연구자: “그럼 언제쯤 연애할 시기가 될까?”

민재: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다... 뭐...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때가 있지 않을까? 안정도 어느 정도에는 됐고. 뭔가 괜찮겠다 싶은 시기가 오지 않을까. **뭔가 지금은 그걸 속단하긴 되게 힘든 거 같아.** 그게 딱 언제다 라고 이렇게 정량화해서 딱 내보내기에는, **되게 비현실적인 것 같애.** 딱 언제라고 얘기하기에는.”

이처럼 민재에게 있어 미래의 ‘안정’이란 현재에 속단하기 힘들고, 이를 가늠하는 일은 ‘오만한 일’인 것이다. 민재는 현재의 상황이 객관적으로 안정적일지라도, 이후 해외로 나갈 가능성을 포함해 전반적인 ‘커리어 발전’의 맥락에서 자신의 상황이 현재 불안정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는 결국 취직으로서 커리어가 확립되더라도, 개인은 친밀성의 영역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친밀성의 영역을 커리어의 후순위에 놓은 채 자기계발에 매진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민재는 ‘연애’ 때문에 커리어가 바뀌는 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제시한다.

민재: “**아직은 연애 때문에 커리어가 바뀌는 일은 내가 내 스스로 용납을 못 할거 같애.** 좀 아직은 아쉬운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결혼 적령기라고 하는 30대 중후반에 들었는데 내가 뭘 하시겠다고 이렇게 나돌아다니고 이런 건 철이 좀 덜 들었을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연애 물론 중요하지. 연애도 물론 중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중요한데. 아직은 서로의 그런 영역을 조금 존중하면서 **서로의 커리어 베이스의 안정감을 조금 탄탄하게 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지금은.”

곧 끊임없이 자기계발하는 개인들에게 있어 ‘연애’라는 것은 항상적으로 ‘커리어의 다음’으로서나 생각해 보게 되는 문제이다. 이들에게 있어 현재 중요한 것은 “커리어의 안정”, “최대한 열심히 하기”, “성공”에의 자기계발인 것이다. 따라서 자기계발하는 개인들에게 있어 친밀성의 영역은 후순위로 밀릴 뿐 아니라 하나의 ‘리스크 관리’의 영역이 된다. 즉, 이들에게 있어 ‘연애’라는 관계는 단순한 ‘이성 관계’라기보다는 ‘나의 일과 삶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관계’로서 인식되는 것이다.

현준의 경우 상대와 관계가 발전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있다고 말한다. 현준은 혹시나 좋은 사람을 만나면 ‘상대와 사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봐’, ‘상대에게 빠질까봐’, 아예 그렇게 될 만한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그에게 있어 연애란 일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하나의 ‘위험 요소’로서, 현준은 리스크 관리의 차원에서 ‘연애’라는 잠재적 위험을 스스로 조절하며, 이를 그의 인생으로 끌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곧 끊임없이 자기계발에 매진하고, 자신의 감정까지 통치의 대상으로 삼는 강력한 자기통치하는 개인의 모습이다. 개인은 친밀성의 영역까지 하나의 ‘관리의 대상’으로 삼고, 자신의 ‘감정’까지 억누르며, 그 무엇보다 자기계발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개인은 단순히 결혼을 안 하거나 연애를 안 하는 개인보다 더욱 스스로를 통제하는 개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현재 ‘호감이 가는 상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성공’을 위해 스스로 감정의 발전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이들 스스로의 자기관리’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개인이 스스로를 자신의 자유 의지로서 통치하는 것과 같이, 이때의 개인들 또한 커리어의 계발을 위해 스스로 친밀성의 영역을 하나의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자신의 커리어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러한 친밀성을 조절하고 있었다.

2. 관계적 불안정성

커리어에 있어서의 불안정성은 이들로 하여금 현재 호감 가는 상대와의 관계의 끝을 미리 상정하게 한다. 이들은 지금 상대와 사귀다 하더라도 결국 ‘헤어질 것’이라 말한다.

지형: “왜냐면 지금 사귀어서 애랑 결혼을 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

그래서 일단 열린 결말로 놔두고 나의 결정은 보류하고 좋은 것들은 취하되? 뭔가 내 손으로 정리를 하고 이 사람을 끊어내는 건 하지 않고. 어차피 끝이 보이는 상황이니까.”

준혁: “관계의 종료는 언제 될지도 대충 아니까.”

민재: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앞으로 거쳐가야 될 커리어 패스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함께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도 같이 산재해 있는 거지. 더군다나 이게 계속 나이가 들면서 뭔가, 지금 사회적으로 되게 불안하잖아 약간. 근데 우리는 계속 커리어 디벨롭을 하려 그러고. 근데 그거를 지금 아무리 좋아해도, 아무리 좋아해도 현실적인 요소들이 자꾸 들어오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극복하기 힘든 상황들이 오잖아. 예를 들어서 뭐 전에 만났던 애처럼 룬디를 뭐 5년을 해야 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같더라고 이게, 생각해 보니까”

결국 이들은 관계를 시작하기에 앞서 관계의 ‘끝’을 미리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관계에 있어 유학이나 교환학생에 따른 룬디(장거리 연애), 또는 커리어 발전과 같은 현실적인 요소들의 개입을 예상하기 때문에, 상대와 연애를 시작하더라도 관계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들이 현실적으로 극복하기 힘든 요소들이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와의 연애가 결국 ‘깨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곧 이들은 이러한 현실적인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또는 그러한 극복에의 의지를 접어둔 채, 상대와의 끝을 미리 내다보고 관계를 우선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상대와의 관계를 ‘어차피 깨질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이들에게 있어 ‘연애’라는 관계는 안정적인 관계가 아니다. 불안정한 “썸”에서 나아가 ‘연애’를 하더라도, 이것이 결국에는 깨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앞서 이들의 “썸”이 ‘연인’이라는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불안정한 관계라고 파악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의 “썸”은 ‘연애’로 넘어간다고 해도 안정되는 관계가 아니다. 개인들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하는 현실적인 요소들의 개입을 예상하며, 이에 대한 극복의 가능성 또한 스스로 낮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연

애’에 비해 “썸”이 불안정한 관계가 아니라, ‘이들’이 맺는 관계가 불안정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은 서현의 이야기에서도 포착할 수 있다. 현재 취업을 준비하며 경제적, 시간적 부담으로 인해 관계를 유예하고 있는 서현은 취업을 한다고 했을 그때에도 연애는 ‘못 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연구자: “그럼 취직 하고, 경제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연애 하겠네요?”

서현: “...근데 또 취직을 하면...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더라도 시간적인 문제에서는...** 시간이 더 큰 요인이 될 거 같아요. 취직했을 때는 어떤 게 가장 부담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그때도 잘 못할 거 같아요.”

이러한 사례들은 곧 이들의 불안이 언젠가 해결되는 요소가 아니라, 항상적인 불안의 요소라는 것을 말해준다. 즉, 이들의 불안은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 또는 커리어 획득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적인 ‘마음의 불안’의 문제인 것이다.

결국 개인들은 현실적인 요건들로 인해 관계의 끝을 예상하기 때문에, 굳이 상대와 사귀지 않겠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어차피 헤어질 것이라면 시작하지도 않겠다’의 논리인 것이다. 준혁과 지형은 현실적인 요소들로 인해 사귀고 헤어질 바에는 “썸”을 지속하거나, 또는 “썸”에서 관계를 마무리하는 게 낫다고 말한다. 오히려 이것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준혁은 현재 스스로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상대와의 관계발전을 유예하고 있었다. 준혁은 이것이 현실적인 맥락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관계의 형태’라 말했다.

준혁: “예를 들어서 어디 출장을 갔다, 회사라든가 대학원생이나 아니면 학생이 어학연수를 갔다. 그럼 사실 한 1년정도 썸을 타더라도, 인종이 다르다든가 국적이 다르다든가 약간 묵직한 배리어들

이 있으면은. 연인이 되면은 그 이후에 그게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많이 꼬이잖아요. 그러면 자신 스스로 ‘이 선까지만 호감을 느낀다’라고 스스로 호감을 약간 조절해 가면서 연애는 하나, 상대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어떤 연애의 형태. 연애의 형태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귀지 않더라도.”

곧 준혁은 상대와 극복할 수 없는 현실적인 조건들이 놓여 있을 경우, 이러한 조건들을 미뤄둔 채 “썸”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맥락으로 인해 어차피 꼬일 관계라면, 감정을 연애의 이전까지만 조절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준혁에게 있어서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준혁은 현재 실제로도 해외에서 인턴을 하면서 상대와 관계의 발전 가능성이 없는 “썸”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연구자가 그렇다면 현재에도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있는 것이냐고 묻자, 준혁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준혁: “(저는 감정을) 조절해야 된다고 느끼는 순간에 ‘조절을 해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의식적으로 하는데, 감정의 깊이가 그렇게까지 깊어지기 전에 그런 결정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과정이 길어지는 거 같진 않아요. 그냥 ‘아 지금 아 이걸 조금 약간 관계가 너무 깊어지는 거 같은데?’ 싶을 때 거리를 뒀서 그 이후에는 뭐 계속 부담감을 느끼는 건 아니고, 조정이 된 상태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니까 자기 감정에 취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명확히 분리를 해놓는 느낌? ‘그러진 말아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곧 준혁은 상대와의 관계가 깊어짐을 느낄 때 자신의 감정을 ‘의식적으로 조절’하고 있다. ‘그러진 말아야지’라며 스스로를 제어하고 있는 것이다. 준혁은 감정이 깊어지기 전에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이 길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하는데, 곧 준혁에게 있어서는 이러

한 감정 조절의 기제가 우선적으로 작용해 상대와의 관계 발전을 억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들은 전술한 개인들의 감정 통치의 모습과 유사하게, 개인의 감정이 통제의 맥락에서 스스로 의식적으로 조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전술한 사례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전술한 사례들에서의 감정의 조절은 커리어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개인의 ‘리스크 관리’로서의 감정조절이었다면, 준혁의 사례는 상대와의 관계가 어차피 끝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합리적인 선택’으로서의 감정의 조절이다. 곧 이들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자기관리의 주체이자, 한편으로는 ‘경제적 개인’으로서의 판단으로, ‘상대에 대한 호감’이라는 감정까지 스스로 관리하며 상대와의 관계발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상대방과의 끝을 상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서 “썸”에만 머무르는 것은 일견 무책임하고 비겁한 개인의 양상으로 읽힐 수 있다. 호감의 관계를 유지하게 된 상대방에 대한 책임성이 결여된 모습이자, 관계에 있어 여러 조건들의 극복을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다는 점에서 이는 ‘관계의 의지’가 결여된 개인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합리적인 판단으로서, 관계의 끝이 제시되었을 때에는 이러한 관계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책임감 있는 태도’라 설명한다. 지형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형: “근데 나는 이게 쓰레기가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커리어나 앞으로의 내 생활을 희생하면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자체는 내 삶에 대한 책임감이 별로 없는 거야. 내 삶이 소중한데. 그리고 그냥 그거에 방해되면 ‘어쩔 수 없지. 헤어지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관계에 돌입하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펴보고 나중에 좋은 인연이 되면 그때 가서, 진짜 ‘내가 뭔가 책임을 질 수 있고, 이 사람과 진지한 관계를 도모할 수 있을 때 더 관계를 진전시킨다’ 라는 태도가 가장 이상적인 태도 아냐 요즘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즉, 지형에게 있어 현재 상대와 연애를 시작하지 않는 것은 나의 커리어에도, 상대방에게도 ‘책임감 있는 태도’인 것이다. 현재에는 커리어에 집중하는 것이 나의 삶에 있어 책임감 있는 태도일뿐더러, 상대와 어차피 끝날 것이라 예상하는 관계를 시작하지 않는 것은 상대에 대한 책임감의 차원이기도 하다. 곧 이들에게 있어서는 친밀성의 영역보다 개인의 커리어가 우선시되는 것이 오히려 ‘책임감 있는 태도’이자, ‘이상적인 태도’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자기계발의 맥락이 이들에게 있어 하나의 ‘규율’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즉 현재에 있어서는 ‘열일 다 제쳐두고 사랑에 빠지기’보다는, ‘커리어에 있어서의 성공’이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로서 인식되는 것이다. 앞서 민재는 연애 때문에 커리어가 바뀌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곧 이들에게 있어서는 ‘사랑을 이룬 개인’의 모습보다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개인’의 모습이 이상적인 개인의 모습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사랑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커리어를 확립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곧 ‘커리어 때문에 연애를 미뤘다’는 설명은 받아들여지지만, ‘연애 때문에 커리어를 미뤘다’는 말은 쉽게 용인되기 힘든 이유다. 개인은 이러한 맥락 속에 커리어에서의 성공을 1순위로 삼으면서, ‘연애를 유예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의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제 2절. 한국에서 규정된 ‘연애’의 부담

이들이 “썸”에 머무르는 다른 한 축은 ‘연애’에 대한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제 5장의 1절에서 이들이 언급한 ‘연애’에 대한 부담들을 다루었다. 개인들은 ‘연애하는 나’, ‘연애하는 남성’으로서 응당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러한 연애에 대한 부담은 곧 이들을 “썸”이라는 관계에 고정시키는 기제로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본 절에서 연구자는 이들이 “쌈”에 머무는 이유로서 이들이 언급한 부담을 다시 한 번 언급하기보다는, 이들이 ‘연애’를 부담스러워 하게 된 이유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한다. 즉, 이들은 왜 이러한 부분에 있어 ‘부담’을 느끼는 것일까? 이들은 어떠한 연애를 상정하기에 그러한 연애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일까. 이들은 스스로 연애를 한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특정한 연애의 모습이 있는가?

1. ‘낭만적 사랑’으로서의 소비주의 연애

연구자가 파악하기로는 이들이 연애를 부담스러워 하게 된 이유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연애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연애는 특히 ‘소비’의 맥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서구의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의 모습으로서 실천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한국에서의 연애가 애초에 소셜 속 서구의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의 이미지로서 제시되었고(제 2장의 2절에서 살펴본 바 있다), 현재에는 이것이 하나의 ‘연애 각본’으로서 미디어를 통해 반복적으로 소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낭만적 사랑은 현재 하나의 ‘멜로물’로서, ‘사랑-장애물의 극복-결혼’이라는 일정한 서사 구조를 가지는 고정적인 관계로 미디어를 통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이해진, 2016).

또한 이러한 낭만적 사랑의 각본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소비의 문제이다. 특히 한국에서의 연애를 고려할 때 있어 소비의 문제는 배제될 수 없는데, 이는 이들의 데이트 자체가 일반적으로 ‘카페, 영화, 밥’ 등의 일정한 소비 각본으로서 틀지어져있기 때문이다. 소비 각본으로서의 데이트는 웅당 ‘비용’의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실제로 인터뷰이들 중 서현과 지훈, 준혁은 경제적인 부담이 관계의 발전을 꺼리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했다. 이들은 연애에서 발생할 비용들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관계의 발전을 유예하고 있었다. 연애의 경우 현재보다 더 좋은 데이트를 하고 싶다는 기대, 상대에게 해 주고 싶은 것들, 기념일 등, 이들에게

먼저 와 닿는 것은 연애의 ‘비용’인 것이다.

그렇다면 평균적인 데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얼마일까?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 30대 커플의 평균 데이트 비용은 하루당 5만 5,9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⁶⁷⁾ 이들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약 1.9회 만나므로 결국 한 달에 데이트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총 42만 4,840원이다. 남녀가 똑같이 더치페이를 한다고 해도 21만원은 한 달에 오롯이 데이트에 들어가는 비용인 것이다.⁶⁸⁾

개인들은 이러한 데이트 비용을 부담스럽게 여긴다. 실제로 20대의 65%가 ‘연애할 때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고 답했고,⁶⁹⁾ 2, 30대의 약 80%는 ‘데이트 비용 문제로 연인과 헤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⁷⁰⁾ 데이트 비용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현재의 최저임금이 6,470원⁷¹⁾인 것을 감안하면, 9시간을 꼬박 일해야 평균적인 데이트를 ‘한 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과 커리어도 불투명한 청년들에게 이러한 평균적인 데이트는 사치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곧 데이트 비용에 대한 부담은 개인에게 연애로의 관계발전을 꺼리게 하는 기제로, 나아가 연애를 할 경우에는 관계를 포기하게 하는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연애에 돈을 써야 하는 것일까? 즉,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왜 돈을 쓰는 연애를 하게 된 것일까? 이는 연애를 소비문

67) 김민재 (2016, 7, 18). “웰셋방도 아방궁”... ‘삼포세대’ 강요하는 최저임금. <CBS 노컷뉴스>. URL: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851251>

68) 기념일의 경우 이러한 부담은 더 심해진다. 실제로 화이트 데이의 평균 데이트 비용을 조사한 결과 커플들은 평균 12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김경희 (2017, 3, 14). ‘화이트데이’ 데이트 비용, 남성 평균 15만원... 받고 싶은 선물은?. <조선일보>. URL: http://thestory.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4/2016031401131.html

69) 이신영 (2015, 7, 8). [20대를 말하다]④ 모텔비, 식비에...“연애, 경제적으로 부담” 65%. <조선비즈>. URL: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07/2015070702541.html

70) 최용석 (2016, 12, 19). 연애의 민낯...2030세대 80% “데이트 비용 문제로 연인과 헤어질 수 있다”. <동아일보>. URL: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028173>

71) 2017년 기준 현재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화와 밀접하게 연관시킨 자본주의 사회의 맥락과 닿아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연애하는 커플’을 하나의 소비 단위로 삼아, 이들로 하여금 더 많은 소비를 하게끔 유도한다. 사회는 개인들에게 연애를 권하면서, 놀이 공원이나 영화관 등의 소비 공간에서 이들로 하여금 소비하게 하고, 기념일을 기억하게 하고, 선물을 주고받게 하는 등의 ‘이벤트’를 만들어 내니 때문이다(꿈지모, 2003).

또한 미디어에서는 소비가 버무려진 ‘낭만적 사랑’의 이미지를 행복한 연애의 이상으로 제시한다. 선물, 기념일, 이벤트가 관계 발전의 단계마다 적절하게 삽입되어 있는 연애의 모습들은 개인들에게 있어 이러한 연애가 ‘일반적인 연애’이자, ‘행복한 연애’라고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곧 개인들은 이러한 소비 극본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것이 ‘연애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되기도 하며(김효진, 2011), 따라서 이러한 행복한 연애를 위해 개인들은 미디어에서 제시한 소비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주현, 김은미의 연구(2012)에서는 텔레비전을 많이 시청한 이들이 연애에 있어서 소비를 중시하고, 실제로도 연애를 하며 높은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연애를 할 때 다른 커플들도 높은 소비 수준을 유지한다고 생각했고, 나아가 데이트 비용, 선물, 또는 커플 아이템 등의 소비의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곧 이러한 부분들은 미디어 속의 연애의 이미지, 미디어가 노출하는 연애의 모습들이 개인들로 하여금 소비주의적인 연애를 하도록 부추겼을 수 있고, 이러한 소비주의적인 ‘연애’의 이미지가 하나의 정상적인(normative) 관계로서 제시되면서, 연애의 소비가 개인들에게 하나의 ‘부담’으로서 다가왔을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2. 남성들의 ‘관계 주도’의 부담감

또한 ‘낭만적 사랑’의 이미지는 남성이 무엇인가를 제공하고, 여성은 이를 받고 기뻐하는, 행복한 여성의 모습으로서 노출되어 왔다. 물론 최근의 미디어에서는 남성이 여성들보다 소극적인 남성, 또는 찌질한 남성

의 모습으로 재현되는 경우가 잦지만(박소정, 2016), 신데렐라 이야기는 아직도 많은 여성들에게 소구하는 이야기이고, ‘백마 탄 왕자’ 또한 여전히 매력 있는 대상이다.

연구자가 인터뷰한 이들을 포함해 많은 남성들이 아직도 이러한 ‘여성을 행복하게 하는 능력 있는 남자’라는 이상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가 만난 인터뷰이들 중 지훈과 현준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해 줘야 한다’, ‘여자친구를 행복하게 해 주고 싶다’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관계를 차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지훈은 연애를 할 경우 여자친구에게 “제때 만나주고, 사주고, 제대로 해줘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자존심’이라 말했다. 곧 그러한 남자친구가 못 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연구자가 파악하기로 이들은 결국 소위 ‘백마 탄 왕자’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여성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이는 여성들과의 합의를 통해 풀면 되는 문제이기는 하다. 데이트 비용을 적절히 부담한다든지, 만나는 횟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이를 수면 위로 올려 합의를 하지는 않고 있다. 한 설문조사의 결과 남성들의 71.9%가 ‘연애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고 말하고, ‘데이트 비용 문제는 기분 상하지 않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문제’라는 데에는 74.4%가 동의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였느냐의 질문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34.9%만이 그러하였다고 답했다.⁷²⁾ 결국 데이트 비용은 부담되는 것이지만, 이를 수면 위로 드러내 합의를 하는 것은 피하고 있는 것이다. 준혁은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합의는 심지어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굉장히 감정의 교류가 깊어졌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⁷³⁾

72) 박선영, 박재현 (2017, 4, 22). 사랑 앞에 돈?... “이 죽일 놈의 연애비용”. <한국일보>. URL: <http://www.hankookilbo.com/v/d76179df4b1b42aeb68a79b2e86549f1>

73)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합의와 관련해 준혁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훈: “상대한테 내가 금전적으로 그것까진 따라가기 어려우니 그걸 배려해 줘. 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저는 상당히 깊은 관계? 제가 그런 것들을

따라서 데이트 비용의 문제는 곧 이를 드러내지 않고, 서로가 스스로 알아서 잘 해 나가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데이트를 주도하는 것이 남성인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이 자연스레 해결되기란 쉽지 않다. 미디어 등을 통해 학습된 연애 관계와 성 고정관념으로 인해 연애 행위는 매우 성별화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남성은 데이트의 계획자 및 제공자의 역할을 하고, 여자는 남성이 준비한 계획에 따르고 이에 반응을 해주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이해진, 2016). 실제로 데이트의 주도권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남성들은 가장 많은 37%가 처음부터 데이트의 주도권을 본인이 계속 잡고 싶다고 말했다.⁷⁴⁾ 한편, 여성들의 경우 처음부터 계속 본인이 주도권을 잡고 싶다고 답한 비율이 6.4%에 불과했고, 처음부터 계속 상대가 잡았으면 좋겠다고 답한 비율도 34.6%로 많았다. 곧 주도하고 싶은 남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주도해 주기를 바라는 여성들의 인식이 더해져 남성들의 역할은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연구자가 만났던 남성 인터뷰이들은 곧 이러한 상황에서, ‘백마 탄 왕자’의 이미지를 수행할 수 없어 연애를 회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제때 만나주고, 사주고, 제대로 해주는” 남성이 못 될 것이라는 불안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썸”이란, 남성들에게 있어 ‘관계를 주도하는 남성’,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잘 해주는 남자친구’로서의 고정된 성 역할을 거부할 수 있는 관계일지도 모른다.⁷⁵⁾ 즉, “썸”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청구해도 될 만큼의 그 사람 인생에 지분이 있는 관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연인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 단어의 문제지... **그 정도의 지분이 쌓이기 위해서는 깊은 감정 교류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74) 최은경 (2016, 7, 24). 男, 연애 주도권 잡기 싫은 이유 2위 ‘비용부담’-1위는?. 〈스페셜경제〉. URL: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70871>

75) 민아는 “썸”이 남성들이 책임을 떠넘기는 경향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민아: “한국 문화가 예를 들어서 **남자한테 책임감에 대한 중요성을 어렸을 때부터 되게 심어주잖아요. 집도 사야되고 어떻게 해야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더 막. 남자애들로 인해서 썸이 더 이게 강조가 되고 더 연애의 메인이 되는 거 같아요. 압박감을 남자애들이 받으니깐. 여자한테 떠넘기고 싶어하는 거 같아요. 재보고 이런 것도?”**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남자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를 주도하지도, 데이트 비용을 더 부담하지도, 여자친구를 행복하게 해 줄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제 3절. ‘감정 투자자’로서의 개인

연구자가 “썸”의 논리로서 파악한 다른 한 축은 감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선택을 하는 감정 투자자적인 개인⁷⁶⁾의 차원이다. 인터뷰이들은 자신의 감정, 그리고 호감이 가는 상대와의 관계에 있어서 감정 차원에서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경제적인 선택’을 하고 있었다. 즉, ‘감정’을 하나의 자본으로 보고, 이해득실을 따지며 이를 관계에 투자할지 말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1. ‘연애’에서의 감정투자 회피

1) 기대에 따른 실망, 그리고 상처

인터뷰이들은 자신의 감정 소비를 줄이기 위해 ‘연인’이라는 관계를 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연애를 할 때에 관계에 투자되는 감정들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감정적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감정의 투자를 애초에 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을 보였다. 먼저 현준은 누군가를 사랑할 경우 사랑하는 상대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데, 이러한 기대에 따른 실망을 하기 싫어 관계를 맺기가 싫다고 설명한다.

76) 연구자는 이들이 상대와의 관계에 있어 득실을 따지며 감정의 투입을 결정하고, 나아가 사랑할 상대를 고르는 데 있어서도 이를 ‘경제적인 맥락’에서 선택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감정 투자자’로서의 개인이라 이름 붙였다. 감정이 하나의 ‘자본’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은 일루즈가 제시한 “감정자본주의”(Illouz, 2007/2010)와도 닿아 있는데, 일루즈는 개인의 감정생활이 경제적 관계 및 경제적 교환의 논리를 따른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현준: “사랑이라는 게 인위적인 거 같아요. 서로한테 사랑하면 뭔가 바라는 게 있고. 그 바람에 못 미치면 실망을 하고 불행하고. ... 왜 그 감정싸움을 가져야 되고 왜 기대를 갖고. 쓸데 없는 싸움들이 왜 필요해요. 솔직히. 스트레스. 약간 쓸데없는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사는 게 저는 제일 행복하니까. 별로 스트레스 안 받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연구자: “쓸데없는 감정이에요?”

현준: “뭐 질투라든지. 쓸데없는 감정싸움이라든지. 뭐.... 나중에 돌아보면 되게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왓김에 하는 말. 쓸데없는 기대...** 도.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 감정들이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냥 중요한 거랑 중요하지 않은 거랑 구별을 좀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연구자: “중요한 것들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현준: “이 사람이랑 시간 보내는 게 좋은 거잖아요. 밥을 한끼를 먹어도 즐겁게 먹는 거고. **뭐를 해도 즐겁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이처럼 현준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의 부분들을 소모적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현준에게 있어 연인 관계란 기대에 따른 실망, 그리고 상처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관계이다. 따라서 현준은 연인이 아닌 관계에서는 그러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감정 소모가 없다고 지적한다. 즉, 상대방에게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일 경우, 감정의 부담 없이 현재의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지형의 경우에도 서로에 대한 기대가 소거되었다는 점에서 현재의 “썸”이 ‘편한 관계’라고 말한다.

지형: “애한테 그렇게 기대도 하지 않고, 내가 충족시켜주지 않고 충족 받을 필요도 없고. 나도 개한테 요구를 못하잖아. 못한다 생각하니까 그냥 **섭섭할 것도 없고 그냥 그걸 안 하는 게 맞는 관계인 거잖아. 그냥 그게 편했던 것 같애.**”

곧 지형에게 있어서 “썸”은 ‘상대에게 기대하지도 않고, 상대도 나에게 기대하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섭섭한 것이 없는 관계이다. ‘기대를 안 하는 게 맞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편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에게 있어 “썸”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에 대한 감정의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이 기대에 따른 실망, 상처, 그리고 섭섭함과 같은 ‘연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의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관계로 인식된다. 곧 이러한 관계는 감정의 맥락에 있어 개인의 감정의 투자도 적고, 그러한 만큼 그에 따른 감정의 손실도 적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관계인 것이다.

2) 사회적 침투⁷⁷⁾에 따른 정신적 피로감과 감정의 전이

또한 상대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고 했을 때, 개인은 상대의 자기 노출에 따른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준혁은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 피로한 일이고, 이에 따른 감정의 전이도 힘겨운 일이라 말한다.

준혁: “제 단계에선 그래요. 그니까. 전 이제 4학년이니까? 어떤 취업 준비나 아니면 뭐 대학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선택? 또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제가 솔직히 **누군가를 완전하게 알아간다는 건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에너지 들고? 그니까 그런 피로를 좀 줄이면서도 내가 어떤 ‘연애를 하는구나’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 ... 이**

77) 알트만과 테일러(Altman and Taylor, 1973)는 사회적 침투 이론(social penetration theory)을 제시하면서, 대인간의 관계가 ‘자기 노출(self-disclosure)’과 ‘사회적 침투(social penetration)’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개인의 성격을 양파에 비유하는데, 곧 관계가 깊어질수록 개인들은 자기 노출을 하는 한편, 상대의 중심부로 침투하면서 결국 서로의 ‘사적 자아(private self)’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때 개인은 침투에 따른 비용과 이익(cost-benefit)을 따져 합리적으로 사회적 침투의 과정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Griffin, 2003/2012).

제. (연인 관계가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고통이 저한테
까지도 전이가 될 수 있고 제 고통 또한 그 사람한테 전이가
될 수 있는 관계**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적 부담감**이
좀 많이 크죠. 썸은 그게 없으니까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곧 준혁은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상대를 알아감에 따른 정신적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이에 따른 감정의 전이 또한 감수하게 된다고 말한다. 상대를 알아갈수록 개인이 처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도 많아질뿐더러, 상대와 감정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곧 준혁에게 있어 상대에 대한 사회적 침투는 ‘정신적 피로감’과 ‘감정의 전이’라는 ‘손실’이 오기 때문에, 준혁은 깊은 관계를 피하면서 상대의 외부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3) 헤어질 경우의 감정소모

또한 이들이 염두에 두는 것은 헤어질 경우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감정의 소모이다. 공식적인 ‘연인’의 경우 헤어짐에 대한 감정의 동요가 크지만, “썸”의 경우 이러한 감정의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썸”은 ‘헤어짐’을 경험한다기보다 그저 흐지부지 되는 것이고, 애초에 개인이 관계에 기대하거나 투자한 것이 적기 때문에 감정의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인터뷰이들은 “썸” 관계의 종료가 감정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덜하다 지적한다.

은경: “한쪽이 그 관계를 끝내고 싶을 때 먼저 뭔가 연락을 더디게 한
다거나 태도를 바꿔도 **상대방이 뭐라고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
나 뭐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벽이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
요. 한쪽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진지해지려거나 정색을 하게 됐
을 때 **언제라도 상대방이 감정에 대한 미안함을 좀 느끼지 않
고 접을 수 있는?**”

서현: “만약에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개가 그냥 ‘우리 사귄 거 아니잖아’라고 얘기하면 끝이잖아요.** 거꾸로 제가 또 갑자기 너무 괜찮은 사람이 제가 생겨서 개가 뭐라고 해도 저 같아도 **당장 ‘우리 사귄 거 아니었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은, 새로운 남자한테도 **결릴 게 없고.**”

즉, “썸”은 개인이 관계를 종료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접을 수 있는 책임(accountability)이 덜한 관계이다. 개인은 언제든지 연락을 덜 하는 것으로 관계에서 받을 뺄 수 있으며, 관계를 종료할 때에도 ‘우리는 사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미안함을 덜 느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도 훨씬 덜하다. 인터뷰이들은 “썸”의 종료가 아깝고, 공허하고, 허전하긴 하지만, 연애가 종료되었을 때의 배신감은 아니라 말한다. 곧, 이러한 관계는 흐지부지 되었을 경우에도, 약간의 아쉬움만 감수한 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관계인 것이다.

민재: “지금 썸이 끝나면 **아깝긴** 하겠지. 뭔가 그런 **공허한 느낌이 쏘끔은** 들겠지.”

시은: “지금 제가 다른 상대가 없는데 끝나면 **아쉽겠죠.** 근데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데 끝나면 **그저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하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단계인 거** 같아요. 아직 **썸이니까.** 연애가 아니고. 아니면 할 수 없지. 아쉽긴 하겠죠.”

지형: “(썸남이 여자친구가 생겼을 당시) **허전한 감정이** 들었지. 근데 남자친구가 바람 났을 때의 **배신감은 아니고.**”

결국 이들이 “썸”의 관계에 머무르는 이유를 말하면서 이러한 감정의 문제를 말한 것은, 곧 이들이 감정의 측면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개인으로서 상대와의 관계를 투자와 이익, 손실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는 앞서 푸코가 제시했던, 비-경제(non-economic)의 영역까지 시장 논리로서 재편되어 이것이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신자유주

의의 맥락과 닿아 있다. 연구자가 파악하기로 이들은 감정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러한 감정의 소모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연애’라는 관계를 피하면서, 최소한의 감정 투자로서 유지될 수 있는 “썸”의 관계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있어 “썸”은 감정 경제적인 관계로서 이해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애초에 개인이 관계에 투자하는 감정 자체가 적고, 상대에게 크게 마음을 쏟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정의 손실이 일어나지도 않을뿐더러, 또한 관계가 흐지부지될 경우에도 감정의 소모가 덜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시장의 논리를 내재화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적인 개인’의 모습이 감정의 영역에서도 발현한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들은 경제의 논리를 체화시켜, 본인의 감정에 있어서도 감정의 손실을 최대한 피하려는 경제적인 개인의 모습에 다름없는 것이다. 곧 경제적 개인들에게 있어 “썸”이라는 관계는 감정의 투자와 손실이 적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관계로서 채택되는 것이다.

2. 다양한 이성에 대한 분산투자

1) 개별적 투자자산 “썸”, 연애, 그리고 결혼

이러한 경제적인 개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다른 맥락은 이들이 “썸”의 관계를 하나의 열린 관계, 즉 ‘다양한 이성 탐색이 가능한 기회’로서 남겨놓는다는 점이다. 이들은 단순히 다양한 이성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성을 만나면서 이들 중 나의 짝으로서 선정할 ‘최고의 이성’을 찾으려 하고 있었다. 이는 곧 만족하는 선택보다는 최고의 선택을 이루려는, 감정자본주의적인 개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Illouz, 2012/2013). 인터뷰이들은 “썸”의 관계를 다양한 이성 탐색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상대를 ‘연애 상대’와 ‘결혼 상대’로 구분해 파악하는 모습도 보였다. 민아의 경우 ‘연애 상대’로 좋은 A와 ‘결혼 상대’로 좋은 B 둘 다와 동시에 “썸”을 타는 중이었고, 예원의 경우에도 결혼하기 좋은

이들을 현재 끊어내지 않고 소위 ‘킵(keep, 유지)’하고 있었다.

민아: “... 근데 이제 이게 확실한 거는 이 오빠랑 만나게 되더라도 되게 오래 못 만날 거 같은 느낌? 진짜 딱 약간 두 명의 대상이 있으면 **이 오빠(B)는 약간 연애하기 좋고 애(A)는 결혼하기 좋고.**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이미 구분을 지어놔가지고.”

예원: “스펙을 전 원래 안보고 사겼거든요. 저는 약간 느낌 같은 게 되게 중요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못 만나가지고 소개팅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 뭐 스펙이 진짜 저랑 너무, 그니까 **스펙이나 조건같은 게 저랑 좀 비슷해야 만나지.** 아예 이상한 사람은 만나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건을 보고 만나는 데? 그 **조건들이?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는거죠** 그러니까. 근데? **막상 끌리진 않으니까? 또 버리긴 아깝고?** 또 주위에서 **너 이제 나이 좀만 더 들면 이런 사람 절대 안 나온다고...** 너가 지금 정신 못 차려서 그런 거라고 하니까? 약간 또 버릴 수가 없는... 애네는 여건만 되면 사귀고 싶은 애들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약간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이처럼 이들은 현재의 연애 대상과 미래의 결혼 대상을 동시에 취하기 위해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민아의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를 포기할 수 없어’ 둘 다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예원의 경우에는 소개팅을 통해 소위 ‘스펙’이 좋은 사람이 나올 경우 ‘혹시나 모를 미래를 위해’ 이들을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즉, 당장은 감정이 동하지 않아도, 미래의 연애 시장, 결혼 시장을 위해 남겨 놓고 싶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이들이 “썸”과 연애, 그리고 결혼이라는 관계를 각각 분리해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상대가 연애의 대상이나 또는 결혼의 대상이나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각각의 스펙이 달라지는 것이다. 연애 대상의 경우 현재의 즐거움, 느낌, 호감과 같은 감정적인 측면이 많이 고려되지만, 결혼의 경우 이러한 요소들보다는 현실적인 ‘스펙’이 중요시된다. 결국 이들은 이러한 관계들을 구별지

어놓고, 각각의 목적에 따라 관계를 어떻게 지속할지를 결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제의 용어를 빌리자면, 이들에게 있어 “썸”과 연애, 결혼은 각각의 ‘투자 자산’인 셈이다. 결국 개인은 각각의 관계에 대한 투자의 결과를 상정해보고(“썸”의 경우 투자의 결과는 ‘연애’, ‘연애’의 경우 그 결과는 ‘결혼’이 될 것이다), 상대가 그러한 결과에 적합하지 않다 판단하면 관계에 있어 완전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민아와 예원의 경우 “썸”의 대상들이 모두 ‘연애’와 ‘결혼’의 대상으로 완전한 만족을 주는 대상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상대와 “썸”의 관계에 머무르며 그러한 관계의 결정을 유예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개인은 하나의 관계만을 유지하며 자신의 모든 감정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목적에 따른 대상들을 구분해놓고 각각의 관계에 ‘그만큼씩만’의 감정 투자를 하고 있었다. 즉, 여러 관계에 대한 감정의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의 투자는 개인에게 있어 위험 부담을 줄여주는데, 이는 각각의 관계에 투입되는 감정의 양 자체가 적고, 하나의 관계가 어그러지더라도 다른 관계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연애’의 경우 관계의 배타성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하다. 곧 하나의 관계만이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썸”의 경우 앞 장에서 전술하였듯이 다른 이성과의 만남이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도의적인 책임성의 문제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이성을 만나며, 다양한 이성에 대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 투자를 분산해 위험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자산들을 보유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이들은 곧 감정의 영역에서까지 감정의 득실을 따져 경제적인 판단을 내리며, 분산 투자가 가능한 “썸”이라는 관계로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며, 가장 ‘경제적’이고도 ‘합리적’인 관계로서 “썸”이라는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2) ‘나만 손해 보지 않겠다’의 투자전략

이들이 이처럼 “썸”의 관계를 유지하며 다른 이성을 탐색하는 것은 곧 ‘나만 손해 보지 않으려는’ 전략적인 심리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썸”을 타며 다른 이성도 함께 만나고 있는 개인들은 현재 자신이 “썸”을 타고 있는 상대들도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으리라 짐작하고 있었다. 예원은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상대도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예원: “일단 애(썸남 1)는 (다른 이성을)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애(썸남 2)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저는 사실 제가 만나는 것처럼? 다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니까 나도 만나고 있는데 애라고 안 만나겠어? 약간 이런거? 오빠가 만나도? 나도 할 말 없고. 그런 거? ... 친구들이 하는 말이? 여자가 제는 만큼 모든 남자들이 더 많이 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고르고 있는 것처럼 애네도 더 많이 고르니까.”

즉, 예원은 자신이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처럼 상대방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성을 부담 없이 만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예원은 친구들과 ‘남자들도 많이 썸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결국 ‘내가 고르는 만큼 이 사람도 많이 고른다’의 생각은, 예원으로 하여금 다른 이성을 더 탐색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은경은 이를 하나의 ‘사회 분위기’로 파악한다.

은경: “저는 제 주변을 보면. 사귀는 동안에도. 미팅을 나오거나. 소개팅? 소개팅까진 아니어도 어떤 자리를 마다하진 않더라고요. 그니까 어떤 모임에 남자들이 있고, 그 사람이 번호를 물어봤다거나 했을 때 그 연락을 막 쳐내거나, ‘남자친구 있어요’ 이걸 바로 밝히지는 않고 일단 한번 만나보고? 좀 이렇게 저울질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 많이 봤고. 저도 사실 그래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분위기인거 같아요.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

는 사회 분위기? 각자 각자가 이기적인 거죠. 그거에 대해선 누구도 비난할 수 없고. 뭐. 그걸로부터 완전히 떳떳한 사람도 없는 거 같은 느낌이에요. 요즘 같아서는.”

즉, 주변에서 심지어 ‘연인’이 있더라도 다른 이성에 대한 탐색을 지속하는 사례들을 자주 목격했기 때문에, 은경은 자신도 거리낌 없이 다른 이성을 만난다. 곧 ‘누구도 비난할 수 없고’, 이로부터 ‘완전히 떳떳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곧 이들이 다른 이성들을 굳이 마다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욕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다른 이들도 모두 이러한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만 손해볼 수 없다는 개인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즉, 나만 하나의 관계에 완전한 투자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손해 보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시장의 경쟁 논리가 개인에게 체화된 양상으로서도 이해할 수 있다. 즉 이를 하나의 ‘연애 시장’으로 보자면, 모두가 최고의 짝을 찾는 경쟁자이고 다른 이들이 모두 다양한 이성 탐색의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개인은 자신만 손해 보지 않기 위해 자신도 이러한 기회를 가지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들은 곧 개인이 개인들 간의 관계의 맥락, 이성 관계에 있어서도 이를 경쟁의 논리로서 파악하게 되었고, 친밀성의 맥락에 있어서도 개인에게 있어 최대의 효용을 낼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판단을 하려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제 7장. 결론 및 제언

제 1절. 결론: 신자유주의시대 청년세대 친밀성의 재구성으로서의 “썸”

결국 본 연구에서 “썸”에 대한 탐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 것은 이러한 친밀성의 양상을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에 있어 어떠한 친밀성의 양상으로서 파악해볼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연구자는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이들의 “썸”이 다음의 세 축이 맞물려 재구성된 친밀성의 양상이라고 본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개인성의 문제, ‘한국’이라는 친밀성의 공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친밀성과 얽혀 있는 테크놀로지의 맥락이다.

1. “썸”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개인성

먼저 신자유주의적 개인성의 문제와 관련해, 연구자가 파악하기로 이들은 감정의 영역까지도 자기통치의 영역으로 삼는, 지극히 신자유주의적인 자기통치의 개인이었다. 이들은 상대와의 ‘연애’를 커리어 발전에 있어서의 하나의 ‘리스크’로서 파악하였고, 이러한 리스크 감수를 하지 않기 위해 상대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보다는 “썸”이라는 관계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끊임없는 자기계발의 주체로서, 단순히 커리어를 확립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커리어의 확립’, ‘커리어의 발전’, ‘성공’이라는 과제를 순차적인 달성목표로 삼으며 이를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 친밀성의 영역을 스스로 억제하고 있었다. 이들은 “썸”의 상대와 호감은 교류하지만, 결국 커리어의 계발, 상황적 불안, 현실적인 조건 등으로 인해 스스로 ‘그러진 말아야지’라며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있어 이러한 감정의 억제가 실패하여 표출되는 것은 ‘일에서의 지장을 초래하는 것’, ‘꼬이는 일’, ‘책임감 없는 모습’이었고, 이들은 자기계발의 맥락에서 ‘연애’라는 관계를 유예하는 것이 삶에 있어 ‘책임

감 있는 태도’이자 ‘이상적인 태도’라며 스스로를 규율화하고 있었다. 따라서 개인은 스스로의 감정을 미리 차단하고, 상대와의 관계가 발전될 가능성이 생길 것 같으면 “썸”의 관계를 호지부지시켜 버리고 있었다. 곧 ‘연애’라는 친밀성의 맥락은 이들에게 있어 항상적으로 후순위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개인은 이러한 규율 아래 친밀성의 영역을 스스로 억제하고, 자신의 ‘감정’조차 통치의 영역으로 들여와 이를 관리하고자 한 것이다. 결국 연구자가 파악한 이들의 모습은 신자유주의 자기통치하는 개인의 모습이 감정의 영역에서도 발현한, 자신의 감정까지도 ‘성공’을 위한 통치의 일환으로 삼는 ‘감정통치적인 개인’의 모습이었다.

또한 개인은 시장의 논리, 즉 경제적인 선택과 ‘경쟁’을 내재화해 이를 이성 관계의 맥락에서도 실천하는 ‘감정 투자자’로서의 개인이었다. 이들은 경제적인 선택으로서 연애 대신 “썸”의 관계를 택했고, 관계의 속성이 “썸”, 연애, 또는 결혼이나에 따라 감정의 투입량을 결정했다. 또한 이들은 또한 ‘경쟁’의 논리를 내재화해 연애 시장에서도 최고의 이득을 얻으려는 신자유주의적 개인의 모습에 다름 아니었다. 개인들은 연애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전략으로서 “썸”이라는 관계를 택했다. “썸”은 다양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열린 관계라는 점에서 다양한 선택지의 포기라는 손실을 가져오지 않는다. 개인들은 썸남, 썸녀가 있는 와중에도 다른 이성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으며, 현재의 썸남, 썸녀 또한 하나의 ‘보험’으로서, 미래의 연애 시장을 위해 소위 ‘킵(keep)’ 해 놓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은 관계를 맺는 상대를 “썸”의 상대, 연애 상대, 결혼 상대로 구분지어, 각자의 목적에 따라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맥락들은 곧 이들이 경제적인 개인의 모습으로서, 연애 시장에 있어서도 경쟁을 통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썸”을 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곧 이들에게 있어 “썸”은, 경쟁적 연애시장에 있어 가장 ‘경제적인 관계의 방식’이라는 점에서 채택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썸”은 애초에 관계에 개인이 쏟아야 할 노력과 감정이 적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관계’이다. 애초에 투자되어야 할 양이 적기 때문에, 이

에 대한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들은 ‘연애’를 한다면 관계에 투입되었을 기대, 실망, 정신적 피로, 감정의 전이 등의 감정들을 감수하지 않으려 했고, 어차피 상대와 사귀더라도 ‘헤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에 감정을 투자하지 않으려 했다. 곧 이들은 많은 양의 감정이 투자되어야 하는 ‘연애’의 관계로의 발전을 하지 않고, 어차피 끝날 관계라면 이에 감정 투자를 하지 않으려는 ‘감정 투자자’로서의 ‘경제적인 개인들’이었던 것이다.

2. ‘한국’이라는 친밀성의 공간에서의 “썸”

연구자는 “썸”이라는 친밀성의 양상이 ‘한국’이라는 특정한 친밀성의 공간에서 등장한 관계 양상이라 파악한다. 연구자는 연구 결과를 통해 한국이라는 친밀성의 공간이 크게 세 가지의 측면에서 “썸”에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첫째는 경제적인 압박·사회적인 조건으로 인해 친밀성을 포기하거나 유예하는 한국의 친밀성의 맥락, 둘째는 ‘낭만적 사랑’으로 틀지어지며 특히 소비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한국에서의 ‘소비주의 연애’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귀자”라는 발화를 통해 관계가 “썸”에서 ‘연애’로 전환되는 관계 구분의 맥락이다.

먼저 연구자는 이들이 경제적인 압박, 현실적인 조건들로 인해 상대와의 ‘연애’라는 관계 발전을 포기하고 유예하는 양상이, 한국에서 친밀성의 영역이 조절되어 온 맥락과 닿아 있다고 파악한다. 즉, ‘발전주의’로 인해 개인이 스스로 친밀성을 억제해 온 한국의 맥락으로부터 “썸”이 발현했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근대화를 압축적으로 거치면서 개인이 출산, 혼인율을 스스로 조절해온 맥락이 있다(연구자는 제 2장의 2절에서 한국에서의 친밀성의 양상을 맥락화하며 이를 다루었다). 가사와 노동이라는 이중부담을 피하기 위해, 혼인과 출산과 관련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개인은 ‘강요된 선택’으로서 친밀성의 영역을 스스로 조절해왔던 것이다. 연구자가 인터뷰한 이들 또한 경제적인 압박, 현실적인 조건으로 본인의 관계를 조절하는 양상을 보였다. 곧 이들은 개인들의 감정

의 문제보다도, 외부적인 여건들로 인해 스스로 상대와의 관계 발전 자체를 차단하거나 이에 대한 의지를 상실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는 곧 ‘감정’의 문제가 아닌 외부적인 요인이 이들의 친밀성의 양상을 조절한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발전주의’의 맥락에서, 모두가 자기발전에 매진하고,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또한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로 맥락화되는 시점에서 개인은 그러한 귀결로서 친밀성의 영역이 억압되게 된 것이다.

청년들의 이러한 “썸”이라는 관계 양상은 말 그대로 이것이 ‘유동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는 바우만이 관계맺음의 양상으로 제시한 “유동적 사랑(Liquid love)”(Bauman, 2003/2013)과도 닿아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연구자는 이것이 개인의 감정이나 의지적인 문제로서 발현한 ‘유동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조건, 현실적인 압박으로 인해 억제된 친밀성의 양상으로서 나타나는, ‘유동적일 수 밖에 없는’ 친밀성의 양상으로서 바라본다. 즉, 관계적 불안정성의 문제로서도 제시했듯이, 이들의 친밀성은 사회적인 맥락으로 인해, 개인이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연구자가 연구를 통해 이러한 ‘발전주의’와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확인할 순 없었지만, 이들이 무엇보다 ‘성공’을 하나의 최고 목표로 여기고, 그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 친밀성의 영역을 ‘당연히’ 제쳐 둔다는 점에서 연구자는 이러한 “썸”의 양상이 ‘발전주의’로 맥락화되는 한국의 맥락과 닿아 있다고 파악하였다.

둘째로 이러한 양상이 ‘한국’이라는 친밀성의 공간에서 발현한 데에는 개인에게 ‘부담스러운 연애’의 모습을 제시하는 한국의 맥락이 있을 것이다. 연구자가 제 6장 <“썸”의 실천논리>에서 제시했듯이 한국에서의 연애는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 그리고 특히 ‘소비주의 연애’의 모습으로서 틀지어진다. 더욱이 이때 남성들에게 부과되는 역할은 그 비중이 큰데, 곧 남성들은 관계에 있어 소위 ‘백마 탄 왕자’의 역할을 하도록 기대되는 것이다. 결국 한국에서의 연애에 있어 이러한 남성들의 부담은, 이들로 하여금 ‘연애’라는 관계로부터 이탈해 그러한 부담감이 탈각된

“썸”이라는 관계에 머무르게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사귀자”의 발화 행위로서 관계가 구분되는 것이 한국의 독특한 양상이라고 파악하였다. 적어도 연구자가 인터뷰한 이들은 “썸”과 ‘연애’를 가르는 기준이 감정의 정도, 스킨십 등이 아닌 “사귀자”의 발화 행위였다. 이들은 “썸”의 관계에서 스킨십도 자유롭게 했지만, 그러한 발화 행위가 없었기에 이것이 ‘연애’가 아니라 했다. 연구자는 행위의 측면과는 관계없이 이러한 말의 ‘고백’에 따른 관계의 전환이, 한국의 맥락에서 독특하게 이해될 수 있는 양상이라고 생각하였다.

3. “썸”과 얽힌 테크놀로지의 맥락

연구자가 파악한 “썸”의 마지막 축은 테크놀로지이다. 연구자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로서의 테크놀로지가 이들로 하여금 “썸”이라는 관계를 맺게끔 제시해주었다고 본다. 이는 크게 두 가지의 맥락에서 그러하는데, 첫째로 테크놀로지는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친밀성의 공간’을 소개하며 개인들로 하여금 가장 빠르고도 합리적인 관계 맺음을 맺을 수 있게 해 주었고, 둘째로 이는 이러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개인들의 감정의 부담, 노력의 부담을 줄여 주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서, 이들이 “썸”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온라인 공간은 개인들에게 “썸”의 상대를 가시적으로 제시해주는 공간으로서, 곧 일루즈가 제시했듯이 ‘연애 시장’을 가시화하였다(Illouz, 2007/2010). 연구자가 인터뷰한 개인들 또한 페이스북, 메신저 앱, 소개팅 앱 등을 이용해 이러한 공간 속에서, 상대방의 조건과 프로필, 나와 맞는 취향 등을 확인하며 상대방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자기 노출은 곧 관계를 맺는 개인들에게 있어 관계를 맺을 상대를 찾고, 또 그에 대해 알아가는 노력의 부담을 줄여 주면서, 가장 ‘경제적인 만남의 방식’으로서 제시되고 있었다.

또한 이는 개인들에게 있어 가장 ‘부담이 적은’ 연락의 수단으로서 기

능하기도 했다. 특히 카카오톡과 SNS상의 ‘좋아요’와 같은 연락의 방법은 이들에게 있어 개인의 감정의 부담(진지하게 말고 가볍게 연락하기), 그리고 연락 자체의 부담을 동시에 줄여주면서 ‘손해 보지 않는’ 연락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즉, 이들은 과거의 ‘연애 편지’와 같은 진지한 표현이 아닌, SNS상의 ‘좋아요’로서 자신의 감정을 무겁지 않고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곧 이러한 테크놀로지는 ‘그렇게까지 투자할 만한’ 것이 아닌 상대방과의 관계를, “썸”이라는 관계로서 유지시켜 준다. 이들로 하여금 관계의 유지에 대한 투자를 적게 하도록 경감시켜 주면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나아가 간편한 관계맺음의 방식으로써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이러한 세 축이 한데 얹혀 “썸”이라는 친밀성을 구성하였다고 본다. 신자유주의라는 전지구적 맥락, ‘한국’이라는 친밀성의 공간, 그리고 경제적인 관계맺음을 가능케 해주는 테크놀로지가 만나 “썸”이라는 관계를 구성해낸 것이다. 연구자는 청년세대들의 “썸”이, 신자유주의적 개인이 ‘한국’이라는 친밀성의 맥락에서, 이러한 관계맺음을 가능하게 하는 테크놀로지로서 등장시킨 친밀성의 양상으로 본다.

그리고 이때 이러한 세 가지를 관통하는 것은 바로 ‘경제의 원리’이다. 이들에게 있어 “썸”은 관계의 시작, 유지, 그리고 그 종료에 있어서도 가장 감정의 손실, 노력의 손실을 줄여주는 관계였고, 관계를 맺는 대상에 있어서도 이는 현재의 상대방을 포함해 다양한 이성들을 만날 수 있는, 즉 ‘손해 보지 않는’ 관계였던 것이다. 또한, 이때 테크놀로지는 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기능하는데, ‘좋아요’를 한 번 눌러 주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렇듯 ‘경제의 논리’로서 “썸”이라는 관계를 채택해 실천하고 있다는 점은 곧 이들을 ‘계산적인 인간’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다. 즉, 관계에 있어서도 경제적 득실을 따지고, 자신의 감정까지 자본화해 이를 통치의 영역으로 삼는 개인의 모습은 너무나 ‘감정적이지 않은’ 인간의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자는,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상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이들은 ‘연애’라는 관계가 압박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상대와의 관계맺음을 추구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비록 이것이 지극히 ‘경제적인 방식’이더라도, 친밀성이 억눌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그래도 상대방과의 ‘관계맺음’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려 한다. 곧 개인들은 비록 ‘연애’는 안하지만(또는 못하지만),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도 적어도 ‘연애’와 유사한 관계를 획득하기 위해 가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이를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들의 “썸”을, “신자유주의시대 한국사회의 청년세대들이, 이러한 관계맺음을 가능하게 하는 테크놀로지로서, 가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한 친밀성의 양상”으로서 바라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얼핏 청년들의 미시적인 현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썸”이라는 현상을 통해 청년들의 친밀성을 들여다보았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 ‘독신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출산율도 반등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친밀성의 가장 초기 단계, 즉 ‘연애’라는 것을 시작하기도 이전의 단계를 조명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썸”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향후 한국에서의 친밀성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연구자는 실제로 이러한 관계를 실천하고 있는 개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썸”이라는 관계 양상에 대해 다양한 결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관계 형태를 거칠게나마 규정해 봄으로써 “썸”의 관계 요소들, 즉, 연락, 데이트, 스킨십 등의 구체적인 실천 양상부터 관계의 인식과 논리의 문제까지 조명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제 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몇 가지 지점에서 한계를 남긴다. 먼저, 표집과 관련한 문제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썸”이라는 경험을 공유하는 개인들을 모집하면서, 몇 가지의 모집 방법을 복합적으로 채택하였다. 지인들을 통한 눈

당이 표집, 의도적 표집, 그리고 모집 글을 통한 참여자 모집의 표집방법들을 복합적으로 취한 것이다. 이러한 표집 방법의 문제로서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다.

하지만 연구자는 인터뷰이 선정 과정에서도 밝혔듯이, 이러한 “쌈”의 ‘경험’을 공유하는 개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관계 양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따라서 연구자는 ‘경험의 공유’를 조건으로 인터뷰이들을 모집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표집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애초에 이러한 관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을 찾기 쉽지 않았을 뿐더러, 이들을 인터뷰이로 섭외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한 가지의 표집 방법으로 너무 소수의 인터뷰이들을 섭외하기보다는 다소 복잡한 모집 방법을 취하더라도,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려 했기 때문에 이러한 표집 방법을 택했던 것이다. 연구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비를 맞추고, 이들이 청년세대의 다양한 맥락을 포괄할 수 있도록 직장인, 취업 준비생, 무직 등 구성군을 다양하게 포함시키려고 했다.

“쌈”이 기존에 있던 어떠한 명확한 관계가 아니라는 맥락에서, 연구자가 이러한 관계를 분석해 낼 명확한 틀을 미리 갖추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라고 할 수 있겠다. 연구자는 기존의 ‘연애’와 비교해 “쌈”의 관계형태를 나름대로 분석해내기는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연애’에 기반한 분석이고, 연구자의 분석이기 때문이다. 남녀간의 관계를 정의내리기 쉽지 않은 만큼, 이들의 관계를 연구자가 하나의 형태로 분석해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연구자는 실제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청년들과의 실제적인 대화를 통해, 그리고 이들 중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부분들을 찾아 나름대로의 분석을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지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쌈”의 양상을 탐구하면서, 그동안 ‘연애’로서 분류되지 못했던 청년들의 관계맺음을 조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연구자는 “쌈”의 양상을 살펴보면서, 합의된 “쌈”의 양상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즉, 연애는 아니지만 ‘이러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합의한 관계를 목격한 것이

다. 연구자는 이것이 비독점적 다자연애인 ‘폴리아모리(polyamory)’의 양상과 닮아 있다고 파악하였다. 물론 서로가 서로를 ‘연인’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본래의 폴리아모리와는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지만, 보다 다양한 이성관계의 결을 발견해냈다는 점에서도 연구는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썸”이라는 관계 양상에 대한 더욱 더 풍부한 논의와 더불어, 기존의 ‘연애’로 분류될 수 없었던 다양한 관계들에 대해서도 보다 다양하게 밝혀주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강내희 (2014).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문화정치경제. 서울: 문화과학사.
- 강명구, 김홍중, 신혜선 (편) (2016). <한중일 청년을 말하다>. 과천: 진인진.
- 강정석 (2016). 왜 한국을 버릴 생각을 했을까?. <노오력의 배신> (135-152쪽). 과주: 창비.
- 강진숙 (2016).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지금.
- 권보드래 (2008). ‘연애’의 현실성과 허구성- 한국 근대 ‘연애’ 개념의 형성. <문학 사학 철학>, 통권 14호, 64-86.
- 김경일 (2000). 일제하의 신여성 연구-성과 사랑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57, 45-78.
- 김세균 (2007).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와 한국 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 연구>, 4권 2호, 82-100.
- 김은정 (2011). 새로운 생애 발달 단계로서의 성인모색기(Emerging Adulthood)- 20대 전반 여대생을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19, 329-372.
- 김은정 (2016). 성인모색기 20대 여성의 이성교제 및 성행동을 통한 자아정체성 형성에 관한 일 연구. <한국여성학>, 32권 2호, 149-184.
- 김정영, 이성민, 이소은 (2014). ‘나’의 성장과 경험으로서 연애의 재구성. <미디어, 젠더 & 문화>, 29(3), 45-81.
- 김지영 (2008). <연애라는 표상>, 서울: 소명출판.
- 김지영 (2012). [풍경 속 우리말] ‘연애’란 무엇이었는가. <새국어생활>. 22권 2호, 127-135.
- 김홍중 (2009). 육화된 신자유주의의 윤리적 해체. <사회와 이론>, 14, 173-212.
- 김홍중 (2015a). 꿈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 <경제와 사회>, 108, 32-72.
- 김홍중 (2015b).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한국사회학>.

- 49권 1호, 179-212.
- 김홍중 (2016). 청년 여성 프레카리아트의 얼굴. <한국문화연구> , 30호 (단일호), 31-66.
- 김효진 (2011). <신자유주의적 상황 아래 대학생의 연애와 생애기획> .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꿈지모 (2003). 여성과 환경-연애 원하는 사회와 자본주의 소비 문화. <환경과 생명> , 36호, 182-195.
-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2014a). <2015 20대 트렌드 리포트> . 서울: 홍익.
-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2014b). “내 꺼인 듯 내 꺼 아닌, 대학생의 썸. 대학생의 ‘썸’ 관계 현황 및 인식 조사”.
- URL: <https://20slab.naeilshot.co.kr/archives/523>
- 류종렬, 남부진, 이태숙, 정혜영 (2006). 근대의 성립과 연애의 발전. <한국문학논총> , 43, 139-167.
- 박소정 (2016).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에서 연애하기>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순, 안명숙, 이명진, 이명훈, 이정선, 정석환 (2016). <상담학 질적연구 방법론 사례집> . 서울: 시그마프레스.
- 박은영 (2002). <국내 기업의 기업 PR로서의 IR 활동에 대한 고찰 : 기업의 IR 담당자와 투자분석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진우 (2011). 유연성, 창의성, 불안정성. <언론과 사회> , 19(4), 41-86.
- 배은경 (2010). 현재의 저출산이 여성들 때문일까? - 저출산 담론의 여성주의적 전유를 위하여. <젠더와 문화> , 3(2), 37-75.
- 신경아, 김혜경, 강이수 외 (2014). 제 6장 가족과 개인, 개인화. <가족과 친밀성의 사회학> . 서울: 다산출판사.
- 심성욱 (2015). <소셜 데이팅 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20-30대의 관계 맺기 방식 변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심영희 (2005). 사이버 섹스: 새로운 친밀성의 가능성인가?. <아시아 여성연구> , 44(2). 101-133.

- 심영희 (2011). 21세기형 공동체 가족' 모델의 모색과 지원방안. <아시아 여성연구> , 50(2), 7-44.
- 심영희 (2013). 개인화의 두 유형에 관한 연구. <사회와 이론> , 23(2), 277-312.
- 엄혜진 (2015).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의 자기계발 담론에 나타난 여성 주체성과 젠더 관계>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상우 (2009).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국가의 성격 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 83호, 40-68.
- 이수현, 한준, 하홍규 (2014). 페이스북에서의 자아 연출과 인상 관리. <사회이론> , 46, 293-335.
- 이안나 (2013). 모델 이야기. <여성학연구> , 23권 1호, 41-73.
- 이재현 (2013). <SNS의 열 가지 얼굴> .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재현 (2014). SNS와 소셜리티의 위기. <풍요한 빈곤의 시대> . 249-285쪽. 서울: (주) 민음사.
- 이재현 (2016). 관계의 과잉, 상호작용의 과잉. <언론정보연구> , 53(1), 217-266.
- 이주현, 김은미 (2012). 텔레비전 시청이 연애에서의 소비 및 소비 수준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 56권 6호, 196-221.
- 이충한 (2016). 사회로부터 멀어지는 청년들. <노오력의 배신> 71-90쪽. 파주: 창비.
- 이한나 (2014). <시민성 개념 및 교수행위에 관한 교사 신념>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해진, 배은경, 백영경 외 (2016). 5장 한국사회의 낭만적 사랑과 연애 각본. <성, 사랑, 사회> 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이현재 (2013). 포스트모던적 로맨스 주체. <여/성이론> , 28권, 10-31.
- 이효성 (2015). 권력과 소통의 관계에 대한 일고찰- 언어 행위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 69호, 30-70.
- 임동근 (2008). 국가와 통치성. <문화과학> , 54, 13-27.

- 임세화 (2014). 우리가 사랑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
〈내가 연애를 못 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인문학 탓이야〉
67-114쪽. 서울: 알마.
- 장경섭 (2009). 〈가족·생애·정치경제 :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파주: 창비.
- 조영한 (2012).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읽기: “국면적인 경제 읽기”를
제안하며. 〈커뮤니케이션이론〉, 8권 2호, 22-64.
- 조원광 (2009). 〈후기 푸코의 국가론 연구 : 통치성(Governmentality)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 (2010). 젠더 불평등 또는 젠더 패러독스. 〈한국여성학〉, 26(1),
69-95.
- 조한혜정, 엄기호, 천주희 외 (2015). 〈노오력의 배신 : 청년을 거부하는
국가 사회를 거부하는 청년〉. 파주: 창비.
- 조혜정 (1991). 결혼, 사랑, 그리고 성. 또하나의문화 (편). 〈새로 쓰는 사
랑 이야기〉 23-44쪽. 서울: 또하나의문화.
- 지주형 (2011). 신자유주의의 복합질서: 금융화, 계급권력, 사사화. 〈사회
과학연구〉, 19권 1호. 194-296.
- 지주형 (2013).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서울: 책세상.
- 채석진 (2016). 테크놀로지, 노동, 그리고 삶의 취약성. 〈한국언론정보학
보〉, 79, 226-259.
- 최섯별, 최흠 (2009). 〈만화! 문화사회학적 읽기〉. 이화여자대학교 출판
부.
- 최은주 (2016). ‘노오력’이 삶을 보호할 수 있을까?. 〈노오력의 배신〉
31-49쪽. 파주: 창비.
- 통계청 (2016). 2016 한국의 사회지표,
URL: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5/index.board?bmode=read&bSeq=&aSeq=35962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 홍찬숙 (2015). 〈개인화 : 해방과 위험의 양면성〉. 서울: 서울대학교출판

문화원.

- 황하성 (2007). 사회적 현존감(social presence)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인스턴트 메신저의 이용 사례를 중심으로. <언론과 학연구> , 7권 2호, 529-561.
- 황하성, 박성복 (2008). 문자메시지의 이모티콘 활용에 관한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 9, 133-162.
- Altman, I., & Taylor, D. A. (1973). *Social penetration: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Anderson, Benedict R. O'G.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윤형숙 (역) (2007).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 서울: 나남.
- Austin, J.L. (1975). *How to do Things with Words*. 김영진 (역). (1992). <말과 행위> . 서울: 서광사.
- Babbie, E. R. (2012).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13th Edition*. 고성호, 김광기, 김상욱 외 (역). (2013). <사회조사방법론> . 서울: 박영사.
- Bauman, Z. (2003). *Liquid love : on the frailty of human bonds*. 권태우, 조형준 (역) (2013). <((사랑하지 않을 권리) 리퀴드 러브 : 현대의 우울과 고통의 원천에 대하여> . 서울: 새물결.
- Beck (1986). *Risikogesellschaft-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홍성태 (역) (1997). <위험사회 :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 서울: 새물결.
- Beck and Beck-Gernshiem (1990). *(Das)Ganz normale Chaos der Liebe*. 강수영, 권기돈, 배은경 (역) (1999).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 서울 : 새물결.
- Burchell, G. (1993) Liberal government and techniques of the self. *Economy and Society*, 22(3), 267-282

- Butler, J. (2004). *Precarious life: The powers of mourning and violence*. 양효실 (역) (2008). <불확실한 삶: 애도와 폭력의 권력들> . 창원: 경성대학교 출판부.
- Chang, K. S. and Song, M. Y. (2010). The Stranded Individualizer under Compressed Modernity: South Korean Women in 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1(3), 539-564.
- Choi, B. D.(2007). Beyond developmentalism and neoliberalism: Development process and alternative visions for Korean geography.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2(2), 218-242.
- Creswell, J. W. (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Edition. 조홍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역) (2015). <질적 연구방법론 - 다섯 가지 접근> . 서울: 학지사.
- Foucault, Michel. (1978). *La gouvernamentalité, in DE III*. 정일준 (역). (1994). <미셸 푸코의 권력이론> . 서울: 새물결.
- Foucault, Michel. (1988). *Technologies of the Self: A Seminar with Michel Foucault*. 이희원 (역). (2002). <자기의 테크놀로지> . 서울: 동문선.
- Foucault, Michel. (2004).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Cours au Collège de France, 1977-1978 par Michel Foucault*. 오트르망 (역). (2011). <안전, 영토, 인구> . 서울: 난장.
- Foucault, Michel. (2008). *The Birth of Biopolitics: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78-1979*, edited by Michel Senellart, translated by Graham Burchel.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Geertz, Clifford (1973). "Thick description: Toward an interpretive theory of culture".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 Giddens, A. (1993). *Transformation of intimacy : sexuality, love, and eroticism in modern*. 배은경, 황정미 (역) (2001).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 친밀성의 구조변동> . 서울: 새물결.
-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진수미 (역) (2016). <자아연출의 사회학> . 서울: 현암사.
- Griffin, E. (2003). *(A) first look at communication theory*. 5E. 김동윤, 오소현 (역) (2012). <첫눈에 반한 커뮤니케이션 이론> .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Habermas, J. (1990).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 Untersuchungen zu einer Kategorie*. 한승완 (역) (2001). <공론장의 구조변동> . 파주: 나남.
- Hakim, C. (2012). *Honey Money*. 이현주 (역) (2013). <매력 자본> . 서울: (주) 민음사.
- Harvey, D. (2006). Neo Liberalism as creative destruction.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88(2), 145-158.
- Hill, R. C., Park, B.-G., & Saito, A.(2012). Introduction: Locating neoliberalism in East Asia. In B.-G. Park, R. C. Hill & A. Saito(Eds.) *Locating Neoliberalism in East Asia: Neoliberalizing Spaces in Developmental States*. pp1-26. Malden & Oxford: Wiley-Blackwell.
- Illouz, Eva. (1997). *Consuming the Romantic Utopia*. 박형신·권오한 (역) (2014). <낭만적 유토피아 소비하기> . 서울: 이학사.
- Illouz, E. (2007). *Cold intimacies: the making of emotional capitalism*. 김정아 (역) (2010). <감정 자본주의> . 파주: 돌베개.
- Illouz, E. (2012). *Warum Liebe weh tut: Eine soziologische Erklärung*. 김희상 (역) (2013). <사랑은 왜 아픈가> . 파주: 돌베개.

- Jamieson, L., & Jameison, L. (1998). *Intimacy*. Cambridge: Polity Press.
- Laurent, Alain. (1993). *Histoire de l'individualisme*. 김용민 (역) (2001). <개인주의의 역사> . 서울: 한길사.
- Luhmann (1982). Liebe als Passion : zur Codierung von Intimitat. 정성훈, 권기돈, 조형준 (역) (2009). <열정으로서의 사랑 : 친밀성의 코드화> . 서울: 새물결.
- Neilson, B., & Rossiter, N. (2008). Precarity as a political concept, or, Fordism as exception. *Theory, Culture & Society*, 25(7-8), 51-72.
- Ochiai, E. and Hosoya, L. (2014). *Transformation of the intimate and the public in Asian modernity*. Leiden: Brill.
- Sarsby, J. (1983). *Romantic Love and Society*. 박찬길 (역) (1985). <낭만적 사랑과 사회> . 서울 : 민음사.

[부록] 인터뷰이 모집글

인터뷰이 모집글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들의 연애 문화, 특히 “썸”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안혜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썸”은 타고 있으나 연애로 넘어가지는 않고 계신 대학생 및 대학원생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연애를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 안하시는 분, 연애보다 “썸”을 즐기시는 분 모두 인터뷰 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썸”은 서로 이성적인 호감은 오가지만 사귀지는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사귀자’와 같은 말로 서로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공식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세대 많은 사람들이 “썸”만 타고 관계를 끝내거나, 오히려 연애보다 “썸”관계를 좋게 여겨 이를 오래 지속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적 여건, 마음의 여유, 경제적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여러 이성의 탐색, 연애의 감정소모, 귀찮음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본 연구에서는 현재 “썸”은 타고 계시나 연애는 하지 않고 계신 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왜 “썸”만 타는지, 그 현상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인터뷰는 한두시간 가량 카페에서 이루어질 예정이고, 연구자가 질문을 드리고 이에 대답해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간당 10000원의 사례를 현금으로 드릴 예정이고, 한시간 초과시 2만원은 기본으로 드립니다. 가감없이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썸”은 타고 있으나 연애로 넘어가지는 않고 계신 대학생 및 대학원생.

* 조건:

1. ”썸“은 한 달 이상
 2. 짝사랑은 해당하지 않음 (상대와 연락이 오가고 데이트도 두번 이상)
 3. 여러 명과의 “썸” 가능
- (여러 명과 썸은 타지만 연애는 하지 않는 경우도 가능)

* 사례: 시간당 현금 10000원 (한시간 초과시 20000원은 기본으로 지급)

* 모집 인원: 3명

* 모집 기간: 4월 1일~4월 15일 (정원 충족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및 참여 방법:

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연구원 안혜상에게 문자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bstract

The Reconstruction of Intimacy
among Young Generation
of Neoliberal Korean Society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omantic
Relationship so-called *Some*
in South Korea

Hyesang Ahn
Department of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a type of romantic relationship so-called *Some* in neoliberal Korean society. *Some*, in South Korea, is known as an open relationship, in which they do not declare themselves as a couple—as the relationship is not official, sexual exclusivity is not held.

This paper demonstrates the phenomenon that the increasing number of young people in South Korea get into such relationship through the interviews with those who are having *Some*. The study specifically explores three questions: 1) how is *Some* practiced?; 2) how do they perceive the relationship of their own; and 3) what is

the practical logic behind *Some*? With the results, the young generation's *Some* is examined in the context of neoliberal Korean society for conclusion of the paper.

In regards to the first question, *Some* is practiced as a distinguishable relationship from traditional romantic relationship. Unlike the traditional one, interviewees do not eager to develop *Some*. They only try to maintain the current state with the strategy so-called 'Push and Pull'— 'Pull' is a strategy which attracts the partner and 'Push' is a strategy which keeps him or her at a distance. On one hand, as a 'Pull' strategy, they try to maintain a good impression of themselves online and offline. In particular, they make the use of social medias for presenting themselves as well as confirming the tastes of each other. In addition, even though they keep texting each other with Kakaotalk (mobile messaging app in South Korea), they do not allow having even a short period of no contact by utilizing 'Like' function in social medias. Indeed, social media is a cost-effective way for them to keep the relationship while minimizing the effort and the burden of emotion as they could reach out to each other with a single click of 'Like'. Even though how they date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in traditional romantic relationship, people seem to have slightly different opinions on sexual relations—among eleven interviewees, eight claimed that they could have sexual relations. On the other hand, as a 'Push' strategy, they try not to develop the relationship into the traditional romantic relationship by controlling the expression of emotions. Sometimes, they even explicitly agree on maintaining the relationship as *Some*. Thus, this relationship is constructed not only as a distinguishable relationship form of romantic relationship but also as a form of relationship which can be mutually agreed and settled.

Secondly, in regards to the perception of their relationship, *Some* is considered as a relationship in which they could feel romantic emotions while they have smaller burden than they would do in traditional romantic relationships. In other words, they maintain *Some* since it offers what they could enjoy in romantic relationship without the burden of role as a girlfriend or boyfriend. To be more specific, they enjoy similar feelings in *Some* as in traditional romantic relationship: fun, joy, happiness, etc. As they rely on each other from time to time, they overcome loneliness and frustration with the help of *Some*. In fact, some interviewees even declare that the feelings in this relationship could be the purest emotions since they do not have responsibilities or burdens that regular couples have such as marriage. Indeed, for those who consider traditional romantic relationship as burdensome, especially for men who usually find it burdensome to make their girlfriends happy, *Some* allows them to have a romantic relationship without such burden.

Besides, *Some* is recognized as an open relationship in which they could date another one. Indeed, most of the interviewees were having *Some* with several people. They assert that it is acceptable since *Some* is not formal nor official. Furthermore, they tend to have each other as an insurance in case *Some* could develop into the traditional romantic relationship and he or she could become an official girlfriend or boyfriend in the future. Indeed, it is a strategic choice for them to have *Some* to take the dominant position in the market of relationship.

However, *Some* is also understood as an imperfect form of relationship. As the relationship is not formal, they always have anxiety that their partners could leave them any time. Thus, it is impossible for them to fully rely on each other.

Then, lastly, what is the logic behind such imperfect relationship?

For the first, they experience precarity in their career, which leads them to the precarity in their relationship. They believe not only that their relationship is likely to break since they have a lot to do for their career but also that traditional romantic relationship consuming time and energies could be a risk to their career development. Thus, they try not to develop the relationship to the serious one.

Secondly, as mentioned above, they try to maintain *Some* since they find the traditional romantic relationship burdensome. In fact, the main factor that makes it burdensome is that the traditional romantic relationship in South Korea is usually regarded as a chivalry-like 'romantic love,' which is closely related to consumption. In particular, men who usually spend more money for such traditional relationship in South Korea are reluctant to pursue the traditional romantic relationship when they are not financially prepared.

In this environment, they decide whether to invest their emotional energies in relationships considering the cost and benefit of the investment. They try to avoid having official relationship as they expect the relationship would not last forever. They prefer developing a relationship only up to *Some* so that they do not have to put emotional energies that they would need for the traditional romantic relationship. Furthermore, they tend to diversify their assets of emotional energies by having different forms of relationship with multiple people. They also try to meet diverse people as they believe the other people do so, which implies that they try not to lose in the competitive market of romantic love. Indeed, each one of them represents a neoliberal economic individual who internalizes the system of competition and not to lose any of his or her capital including the emotional energies.

After all, the study concludes that *Some* in South Korea is an economically reconstructed form of intimacy together with the neoliberal individuality, the context of intimacy in South Korea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keywords : some, romantic relationship, intimacy,
neoliberalism, young generation, technology

Student Number : 2014-22332